

# 『BK21 플러스』 특화 전문인재양성 (특화전문인재양성형분야) 사업단 재선정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31Z20130012917							
사업분야	특화전문인재양성형	신청분야		단위	지역	구분	사업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역사학	동양사	중국어와문학	중문학	일본어와문학	일본문학	
	비중(%)	34%		33%		33%		
학과(학부) 또는 협동과정명	동아시아문화학과			협동과정여부	0	학과 개설일	201403	
사업단명	국문)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인재 양성 사업단							
	영문) YU Project Team for Training Specialists in “Glocal East Asian Cultural Contents”							
사업단장	소 속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역사학과						
	직 위	교수						
	성명	국문	손승희	전화	053) 810-2227			
				팩스				
		영문	Son, SeungHoi	이동전화	010-7254-2227			
E-mail				sonshoi@yumail.ac.kr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4차년도 ( '16.3~'17.2)	5차년도 ( '17.3~'18.2)	6차년도 ( '18.3~'19.2)	7차년도 ( '19.3~'20.2)	8차년도 ( '20.3~'20.8)		
		국고지원금	240	240	240	240	120	
총 사업기간		2016.3.1. ~ 2020.8.31.(54개월)						
재선정평가 대상기간		2013.9.1. ~ 2015.8.31.(24개월)						
<p>본인은 『BK21 플러스』 사업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 귀 재단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년 09월 15일</p>								
작성자	영남대학교			사업단장	손승희 (인)			
확인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확인자				총장	(인)			
<b>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b>								

## <신청서 요약문>

중심어	글로벌리즘(glocalism)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	글로벌 인재
	유기적 지식인	인문학의 대중화·산업화	
<p>지원분야의 중요성 (미래가치)</p>	<p>글로벌리즘(glocalism)은 글로벌리즘(globalism)과 로컬리즘(localism)의 합성어로 흔히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적 현상을 역사의 발전적 지향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화의 강화라는 일견 모순된 현상을 어떻게 상호 병존·발전·승화의 양상으로 견인해 낼 수 있는가? 이것이 글로벌리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과제이다. 이는 오늘날 진행되는 세계화가 소수의 패권적 국가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다양한 초국경적 현상이 반드시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즉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중심에서 배제된 지역(민) 및 경계(인)가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상상하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역(민) 및 경계(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국가와 중심에 대한 지역의 특권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리즘이란 패권적 국가주의가 횡행하는 현실 국제관계 속에서는 이를 수 없는 대안적 세계화를 지역 간 중층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 대안적 세계화를 동아시아라는 장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더욱이 국가 중심의 지역 통합 논의 및 동아시아론에서 탈피하여 지역 간 중층적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대안적 동아시아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수준의 지역거점 사립대학’을 지향하는 우리 대학은 ‘지역과 주변에서 본’, 그리고 ‘경계에서 본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대안적 동아시아학을 구축하기에 적절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에 진행되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류적 동아시아론에 대한 보완체로서 그동안 부정되고 무시되며 억압된 지역의 담론, 지역의 경험, 지역의 문화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리즘과 동아시아문화학’라는 우리의 기본 주제로 수렴되며,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 인재’로서의 차세대 전문가 육성이 우리 활동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p> <p>이 인재육성 과정에 필수적인 것은 담론적 수준의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사문화 상품으로 가공하여 대중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실무적 교육이다.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인문학의 산업화과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재는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과 함께 그것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확산시킬 수 있는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p>		
<p>사업단 목표 및 구성</p>	<p>우리의 사업목표는 새로운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모색, 그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의 양성,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현실 적용 및 대중화·산업화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설정한다.</p> <p>첫째,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정의 및 내용·특성과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과제, 둘째, 정립된 이론적 틀과 성과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 내용의 확충, 셋째,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대중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역사문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의 양성.</p> <p>이러한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토대로 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는 기존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 갇힌 편협한 일국적 관점을 초월하고, ‘지역주의’·‘내부 식민주의’라는 특권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상을 상상하게 할 수 있다.</p> <p>우리 사업단은 기존의 단일 학과가 아닌 국어국문학과, 언론정보학과, 역사학과, 일어일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철학과 등 다수 학과의 우수한 교수진이 2011년부터 동아시아학 관련 여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토대를 바탕으로 2013년 9월에 만들어졌다.</p>		

	<p>이에 사업단에 참여한 교수와 대학원학생들은 사업단이 목표로 한 동아시아문화학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결속력을 강화시켜 왔다. 또 참여 교수 가운데에는 SSCI 등 국제저명 학술지와 학진등재지를 비롯한 국내저명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해 온 우수한 연구진 및 WCU, 토대연구, 중견연구 등 다양한 국책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지닌 연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과의 융·복합적 결합을 토대로 형성된 동아시아문화학과는 우리의 목적인 새로운 동아시아문화학의 정립 및 전파, 연구 및 교육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p> <p>또한 우리 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오랜 전통의 연구소이며, 사이버감성연구소는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융·복합되어 진행되는 학제 간 교류 연구소이다. 이들 연구소는 학진 등재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인력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연구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학술지 및 연구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우리 사업단에는 위의 세 연구소 소장 및 부소장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는 설득력 있는 구상이다. 또한 사업단 참여교수 가운데 한 명이 편집을 맡고 있는 잡지 &lt;&lt;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gt;&gt;는 현재 SCOPUS 등재 심의 중에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인재’의 연구 활동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p> <p>실무분야와 관련해서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하고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교수가 참여하고 있어, 다학제적 학문 기반의 산학교류 협력 활동 또한 기대되는 바이다.</p>
<p>창의적 교육 및 산학협력</p>	<p>우리는 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동아시아문화학과를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2014년 3월 신설하였다. 이것은 전통 학문체계가 가진 분과성을 탈피하고 융복합화라는 시대정신, 그리고 ‘글로벌 이니셔티브(Glocal Initiative)’라는 학교의 교육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업단은 이론과 실무의 두 트랙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새로운 교과목을 설계하여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이라는 비전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p> <p>교과목들의 창의적 설계와 더불어 우리 사업단은 현장밀착형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매달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맺었다. 또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업체의 대표에게 실습형 강의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기존 교수진이 할 수 없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방학기간에는 대학원생들을 위 기관에 인턴사원으로 파견하는 등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무 교육은 우리 대학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활발한 취·창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남지역은 하회마을(안동), 양동마을(경주), 경주 역사지구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서원(안동), 산사(영주), 가야 고분군(고령) 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영남지역의 것이 대다수이다. 또한 경주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인재’의 수요가 절실한 영남지역의 배경 속에서 우리 사업단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p> <p>또한 우리 사업단은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 일본 간사이대학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세계화 전략과 이어진 것으로,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간사이대학과는 공동학위제를 체결하</p>

	<p>여 현재 동아시아문화학과 석사과정생 2명, 간사이대학 석사과정생 1명이 서로 파견되어 있다. 베이징외국어대학과도 이러한 공동학위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1+1+1의 3개교 공동학위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p> <p>한편, 우리 사업단은 다양한 공동 연구 및 창작물을 출판하였다. 우선, 위 대학들과 국제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대학원생 및 연구자의 우수한 논문은 &lt;&lt;東亞與世界&gt;&gt;(제1집(2013), 제2집(2015))에 수록될 수 있었다. 이 학술대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참여교수진을 비롯한 연구진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이다.</p> <p>또한 사업단 차원의 공동연구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우리 사업단은 경산 시청, 경산시립박물관, 영남대박물관, 삼성현역사박물관,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협력하여 [동행의 인문학: 청년인문도시 경산 만들기 프로젝트](201505)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현재 [글로벌리즘: 대구·경북과 동아시아]란 연구 과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다.</p>
사업단 지원	<p>우리 사업단은 우리 대학의 ‘YU the Future 미래를 만드는 대학’ 이라는 비전과 ‘세계수준의 지역거점 사립대학’ 이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대학의 비전과 목표 아래에서 수립된 [2015년 대학원 발전계획]에는 ‘미래창조 지식생산’ 이 대학원의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아래 ‘융복합 연구특성화’, ‘산학협력 역량강화’, ‘국제적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 구축’ 의 세 가지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 동아시아문화학과는 융복합적 성격을 띤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인문학의 대중화·산업화, 학과의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업단은 위에서 소개한 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p> <p>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대학원 정책 개발 및 체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두 개의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대학원 내부에 융복합적 협동과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학원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협동과정의 신설 및 진입을 확대하였다. 우리 동아시아문화학과는 신설은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였다.</p> <p>우리 대학은 외국인 대학원생의 유치를 위해 국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특별장학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은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 추진한 간사이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석박사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수월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학사 관리제도 및 학위 수여제도를 개선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p> <p>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원)은 동아시아문화학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과 사무실 및 기자재·운영비를 제공하고 행정전담 조교를 파견하였다. 교육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세미나실 및 교보재를 지원하였다. 또한 대학은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및 선도연구자과제 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p> <p>더불어 우리 대학(원)은 이러한 학과 지원과는 별개로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의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의 특성화된 장학제도인 천마장학금을 비롯하여 강의조교 장학금, 연구조교 장학금, 외국인 특별장학금, 학술대회 참가지원금, 논문게재 장려금 등의 지원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졌다.</p> <p>한편 우리 대학은 연구 윤리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학과에서는 개설하기 힘든 [연구윤리]라는 과목을 대학원 차원에서 개설하여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하였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표절 검사 시스템인 Turnitin 교육 동영상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p>

	<p>다.</p> <p>이와 같이 우리 대학(원)은 제도적 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생 지원, 연구 윤리 지원을 우리 사업단에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지원들은 1억 3천7백만 원 이상의 금액에 상응하였다. 이러한 대학(원)의 지원은 학과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p>
<p>기대효과</p>	<p>우리 사업단은 지난 3년간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구축을 위한 토대작업들을 수행하여 왔다. 동아시아문화학과와 개설, 교육과정의 설계 등은 개별분과학문에서 활동하던 연구자들에게 융복합적 공동연구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었다. 또한 이론에 치우쳐 있던 인문학 분야에 현장성과 실용성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p> <p>우리는 국가와 중심이 아닌 ‘지역과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론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이 성숙해감에 따라 국가 중심의 동아시아론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의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통해 기존에 소외되었던 주변이 새롭게 인식되고 지역 간 중층적 네트워크의 중요한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장차 이 인재들은 ‘유기적 지식인’으로서 지역민과 호흡하며 자신들의 학문적 성과를 대중들과 공유할 것이다. ‘글로벌 인재’들은 인문학적 교육역량 이외에도 역사문화의 상품화를 이끌 수 있는 실무역량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글로벌 인재’들은 영남과 동아시아가 필요로 하는 문화산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p> <p>우리 사업단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p> <p>1단계 기대 효과: 우리 사업단은 다각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모든 사업의 기초자원인 인적 자원의 전반적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우리 사업단의 공동학위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과 더불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동아시아 대학원 국제학술대회, 해외 석학과의 세미나, 장·단기연수 등은 사업단의 모든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의 연구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p> <p>2단계 기대 효과: 우리 사업단은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특화전문인재인 ‘동아시아 문화전문가’를 배출할 것이고, 이들은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도 동아시아를 선도할 수 있는 실무형 인력으로 활용될 것이다. 우리의 인재는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인재,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될 것이다.</p> <p>3단계 기대 효과: 우리 사업단의 궁극적 목표인 동아시아의 상호 이해와 호혜적 교류는 현재 동아시아의 당면문제(영토, 이념, 역사 등)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대표 3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p> <p>4단계 기대 효과: 더 나아가 우리 사업단이 구축하게 될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과 동아시아의 지역 간 중층적 네트워크는 서양 위주의 경제·문화의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동서양의 대등한 구도의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동서양의 균형 잡힌 상호 이해와 교류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p>

# I 사업단 현황

## 1 사업단 구성

### 1.1 사업단장

성명	한글	손승희	영문	Son, SeungHoi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역사학과

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현황

<표 1-1> 사업단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현황

(단위: 명, %)

기준일	전체 교수 수(교육, 분교, 기금 제외)					전체 교수 수(교육, 분교, 기금 포함)				
	전체	참여			참여비율 (%)	전체	참여			참여비율 (%)
		전임	겸임	계			전임	겸임	계	
접수마 감일	7	0	6	6	85.71%	7	0	6	6	85.71%

<표 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참여교수 지도학생 현황

(단위: 명, %)

기준일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비율(%)	전체	참여	참여비율(%)	전체	참여	참여비율(%)	전체	참여	참여비율(%)
접수마 감일	9	9	100%	3	3	100%	0	0	0%	12	12	100%

## II 부문별

<사업단 목표 및 구성 영역>

### 1 사업단의 목표 및 구성

#### 1.1 지원 분야 및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미래지향적 창의성

우리의 사업목표는 새로운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구축하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동아시아상을 인문학적으로 구상하며 그것을 현실에 적용, 대중화할 수 있는 전문인재(‘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로 유기적 관련성을 지닌 일차적 과제를 설정한다. 첫째,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정의와 내용 및 특성과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정립된 이론적 틀과 성과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고, 창조성을 고무시키는 현장체험교육을 강화함을 통해 진취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셋째,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대중적 소통능력, 역사문화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능력을 갖춘 실용적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글로벌리즘(globalism)은 글로벌리즘(globalism)과 로컬리즘(localism)의 합성어로 흔히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적 현상을 역사의 발전적 지향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화의 강화라는 일견 모순된 현상을 어떻게 상호 병존·발전·승화의 양상으로 견인해 낼 수 있는가? 이것이 글로벌리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과제이다. 이는 오늘날 진행되는 세계화가 소수의 패권적 국가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다양한 초국경적 현상이 반드시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즉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중심에서 배제된 지역(민) 및 경계(인)가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상상하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역(민) 및 경계(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국가와 중심에 대한 지역의 특권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리즘이란 패권적 국가주의가 횡행하는 현실 국제관계 속에서는 이를 수 없는 대안적 세계화를 지역 간 중층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 대안적 세계화의 출발을 동아시아라는 장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수도권·국가 중심의 지역 통합 논의 및 동아시아론에서 탈피하여 지역 간 중층적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대안적 동아시아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수준의 지역거점 사립대학’을 지향하는 우리 대학은 ‘지역과 주변에서 본’, 그리고 ‘경계에서 본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대안적 동아시아학을 구축하기에 적절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진행되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류적 동아시아론에 대한 보완으로서 그동안 부정되고 무시되며 억압된 지역의 담론, 지역의 경험, 지역의 문화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문화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물질적·역사적 산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언급된 공동체는 비단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이 발굴·보존·소통 및 확산되지 않고서는 ‘문화융성’을 이룩해 낼 수 없다. 현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창의성의 이면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학의 세계화’는 저개발국가의 빈곤퇴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 사업단은 새마을학이 가진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에는 경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문화는 부유와 빈곤의 틀이 아닌 대화와 포용의 틀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문화의 상호교류가 발생하며, 공존과 상생이 실현된다고 본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의 등장은 이러한 상호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환경의 발달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를 발굴·보존·정제·가공해 낼 수 있는, 지역에 뿌리를 둔 ‘유기적 지식인’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우리 사업단은 SNS, 빅데이터 분석 등의 전문적 기술과 인문학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의 발굴과 창달에 기여할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구체적 내용이다.

영남지역은 하회마을(안동), 양동마을(경주), 경주 역사지구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적·세계적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한국의 서원(안동 등), 산사(영주 등), 가야 고분군(고령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그 가운데 영남지역의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경주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남지역은 풍부한 문화적 자산들을 발굴·보존·가공·유통할 수 있는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재들은 지역에서 양성되지 못하고 상당수 외부 유입에 의존하고 있다. 학문적 엄밀성이 상실되고 대중적 선정성만이 강조되는 문화행사들이 반복되는 현실도 존재한다. 지역 문화 연구와 발굴의 부진으로 인하여 문화행사들은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소재 고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지역 개념은 국가 내부의 지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하는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학’은 동아시아의 한 지역으로서의 영남을 연구한다. 앞서 거론된 서원, 산사, 고분문화 등은 결코 한국만의 것이 아니며, 이것들은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적 시선으로 살펴볼 때 비로소 동아시아적 공통성과 지역적 독특성이 동시에 드러나게 된다. 우리 사업단은 관계사적 맥락에서 지역의 문화(‘모명재, 녹동서원 등의 유산을 통한 영남의 귀화인 연구’, ‘대구 북성로, 포항 구룡포지역 근대 일본인 거류지 연구’ 등)를 연구하고 대중화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한국학의 하위단위로서의 지역학 연구에서는 누락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단은 융복합이라는 사회적·미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4년 3월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동아시아문화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 학문체계는 분과성을 가진 상아탑으로 존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제 간의 소통이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 역시 부재했다. 우리 사업단은 연구성과들을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교육할 수 있고 역사문화의 상품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등의 실무기관과의 협약체결, 인턴사원 파견,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업단은 2011년부터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원), 일본 간사이대학(원)과 교류를 맺고 매년 여러 차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간사이대학과는 공동학위제를 실시하여 학생을 상호파견 중에 있다. 우리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한국(인)으로 한정하지 않을 것이며, 해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한·중 인문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일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창조 지식생산’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우리는 문화의 융성이 한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 현재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세계 수준의 지역거점 대학’이란 비전을 우리 사업단은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이라는 형태로 실현해나갈 것이다. 우리 사업단은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통해 동아시아적 문화융성을 지향하며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 1.2 사업단 구성의 타당성 및 우수성

우리 사업단은 단일 학과라는 근대 분과 학문 체계의 편협함을 넘어 세분화된 전공 영역의 학문적 통섭이야말로 지식 기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인식하에 인문학 중심의 다양한 과들이 융·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2011년 7월 ‘CAMPUS Asia 시범사업’에 중국 베이징외국어(北京外國語)대학, 일본 간사이(關西)대학과 함께 ‘차세대 아시아 마인드를 갖춘 인터로컬 인재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업단 참여교수가 참여한 경험적 자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2014년 3월 동아시아문화학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동아시아문화학과는 기존의 단일 학과가 아닌 언어·문학·역사·문화·철학·언론 등 다수 학과의 우수한 교수진이 참여하여 구성된 학과로서, 새로운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구축하고 그에 걸맞은 ‘동아시아상’을 인문학적으로 구상하여 그것을 현실에 적용·대중화할 수 있는 창조적 융·복합형 고급 특화전문인재양성을 이상으로 삼는다. 다수 학과,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이 참여한 만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2011년도 ‘CAMPUS Asia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베이징외국어 대학과 간사이대학 그리고 우리 대학이 번갈아가면서 꾸준히 개최된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했던 A, B, C, E, F, G 등의 교수와 그 대학원생이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함으로써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비전과 공동사업을 위한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 ‘CAMPUS Asia 시범사업’은 본 사업에서 목표하는 ‘특화된 융·복합형 고급 실무 전문인력’에 부합하여 사업단 운영에 큰 경험적 자산과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었다. 이와 같은 기존 활동과 목표를 토대로 우리 사업단은 2014년 3월 대학원 협동과정 ‘동아시아문화학과’를 개설하였다. 이는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모색하고 글로벌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학제 개념인 단일 학과를 초월하여 공통의 융·복합적 사고와 실천이 가능한 학과의 탄생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첫째,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모색, 둘째, ‘글로벌 인재’ 양성, 셋째,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대중화로 정리할 수 있다.

참여 교수 가운데에는 SSCI 등 국제저명 학술지와 학진등재지를 비롯한 국내저명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해 온 우수한 연구진 및 WCU, 토대연구, 중견연구 등 다양한 국책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 사업단의 연구와 프로젝트 수행역량을 여실히 반영한다. 아울러 국어국문학과, 언론정보학과, 역사학과, 일어일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철학과 등 새로운 동아시아문화학의 정립과 전파라는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공분야의 교수와 학생들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효과적인 연구,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사업단장 A는 전공은 중국근현대사이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동아시아 담론을 교육과정에 도입했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연구교수를 2년간 역임하며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과 관련된 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공유한 바 있다. 더불어 지원분야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 또한 진행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로는 <만보산사건과 중국공산당>, <만주사변 전야 재만한인의 국적문제와 중국·일본의 대응> 등이 있다. 또한 2012년 2학기 대학원 수업([동양국제정치사])에서는 현 사업단 참여교수들과 지도 학생을 중심으로 팀티칭 수업을 실험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그 결과물은 2013년 제4차 동아시아 대학원생 학술대회(20130225~20130229)에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2014년 1학기 대학원 수업 [동아시아담론의계보]에서의 결과물 또한 제7차(20140825~20140828) 동아시아 4개국 대학원생 학술대회(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한 바 있고, 특히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동아시아문화학과 5명의 논문은 우수한 논문으로 인정되어 한·중·일 3개국 우수 논문집 <<東亞與世界>>(제2집, 社會科學文獻出版社)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끝으로 부임 이래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사업(신진연구인력, 명저번역, 중견연구자 지원 우수학술저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또한 현재 수행 중에 있다.

(2) 사업단 소속 교수 B는 SSCI급 잡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 역시 대부분 동아시아 문화와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인터넷을 매개로 한 한류의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사업단이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WCU 등 기존에 진행한 다양한 국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형성한 국제적 네트워크는 대학원생 국제학술발표대회 등 국제적 연구 및 교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과 2014년에 주관한 DISC(Daegu Kyungboo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국제학술대회에 2014년 2학기 대학원 수업 [동아시아학술위한계량적조사·방법론]의 결과물을 수업을 수강한 학생에게 발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B는 2010년 우리 대학 사이버감성연구소의 초대소장으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역임하면서 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물론 옥스퍼드인터넷연구소 초청 학술행사에 참여하는(20140626) 등 사이버,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주제로 다양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 주요 데이터 연구기관(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과

의 연구 협력을 통해 중국 내 빅데이터 연구 인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B는 현재 SCOPUS 등재 심의 중에 있는 잡지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의 편집을 맡고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인재’의 연구 활동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단 소속 교수 C는 영남 지역 문화와 역사 전문가로서 로컬 인문학콘텐츠 생산을 위해 필수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문학 연구자로서의 명성과 함께 토대연구와 지역 희귀 자료 개발 그리고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기념공원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생산 등 인문학의 대중화·상품화를 위해 크게 활약한 바 있다. 역사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지역 소재 개발을 이뤄냄으로써 다양한 국책 지원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 수행 중에 있다. 더불어 C는 2015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여 연구소 주최의 다양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009년 중국 산둥대학(山東大學), 2011년 중화민국(臺灣) 운림과학기술대학(雲林科技大學)과의 학술 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3개국 연구소 공동 주최의 국제학술대회를 번갈아 가며 진행하고 동시에 논문 또한 발표하였다.(<조선전기(15~16세기) 사립과적 학문정통성 강화>(20150425~20150426), <18~19世紀嶺南地域鄉論的分裂與鄉戰>(20140530)) 영남 지역 문화의 동아시아적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네트워크 및 학술대회에 동아시아문화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논문 발표의 장으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사업단 소속 교수 D는 유학의 전문가이자 주역(周易), 고대 유학, 중국현대철학 등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연구자로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거나 대안적 글로벌리즘 모색,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전망 제시 등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역학회 회장은 물론, 국제역학연합회(IAYS), 한국동양철학회, 한국유교학회 등의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D는 2011년에는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여 같은 해 중화민국 운림과학기술대학과의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에 2009년 학술 교류 협정을 맺은 중국 산둥대학과 더불어 3개국 연구소 공동 주최 국제학술대회를 번갈아 가며 진행하고 동시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다.(<李二曲對儒家經典之“治療的詮釋李二曲對儒家經典之”>(20140425), <有關理雅各(James Legge)與衛禮賢(Richard Wilhelm)의<<周易>>翻譯>(20140529~20140531)) 동아시아 3국의 학술적 비교 교류 활동을 수년째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3국의 학술적 비교 교류 활동장에 동아시아문화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의 장으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머지 사업단 소속 교수들은 한국, 중국, 일본의 언어와 문화의 전공자들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대중화를 담당할 ‘글로벌 인재’가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함은 필지의 사실이다. 이들 교수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학을 물론 동아시아 내부의 문화 교류 및 변용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각국 연구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5) 사업단 소속 교수 E는 국문학 전공자로, 스토리텔링 작가 양산 등을 통해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4년 2학기에는 [스토리텔링제작실습]이라는 대학원 수업을 개설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스토리텔링 제작에 관한 이론을 함양시켰으며, 그와 더불어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팀장을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제작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등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대중화를 담당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사업단 소속 교수 F는 일본어 전공자로 동아시아문화학과 대학원생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일본어를 교육시키는 물론, 동아시아 언어의 비교와 교섭, 해외 연수프로그램개발, 일본 간사이대학과의 공동/복수 학위제 실시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7) 사업단 소속 교수 G는 중어중문학 전공자로 동아시아문화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중국어 및 중국 문학, 중국 문학과 한국 문학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 한자 문학 등을 교육시키고, 사업단 소속 교수 F와 더불어 해외 연수프로그램개발,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과의 공동/복수 학위제 실시 등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2012~2013년에는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하면서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리뷰’ 등 동아시아 관련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동아시아 속의 대구·경산’ 및 ‘중국인문학의 연구방법모색’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아시아 관련 분야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업단에 참여한 교수는 2011년 이후 동아시아문화학 관련 각종 대학원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해 왔으며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 및 이의 대중화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속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그 지도학생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업단은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 특화전문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사업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오랜 전통의 연구소이며, 사이버감성연구소는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융·복합되어 진행되는 학제 간 교류 연구소이다. 이들 연구소는 <<인문연구>>, <<민족문화논총>> 등 학진등재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인력이 연구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우리는 이들 연구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학술지 및 연구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콜로키움과 학술대회 등의 주제를 우리 주제와 연결시킴으로써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관심을 환기시키며 그것을 다시 우리 연구에 반영시키는 교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들 학술 잡지를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 결과물의 게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 사업단에는 위의 세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소장 및 부소장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이 외 3명의 사업단 소속 교수가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구상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업단 참여교수의 지도학생들 또한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사과정생 정남희는 참여교수 A의 교과목 [동아시아담론의계보]를 통해 습득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지도교수 E와 함께 기존의 한국의 동아시아론을 분석하는 논문을 동아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진 등재 학술지 <<동아인문학>>에 투고하여 게재하였다. 게재 논문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정체성의 문제>는 국가주도적 동아시아론이 정체성의 기획으로만 변질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새로운 동아시아론에서는 조르조 아감벤의 ‘정체성 없는 특이성’ 개념을 도입한 ‘특이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동아시아 담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창작과 비평의 동아시아론자인 백영서의 신작에 대한 서평 또한 작성하여 학진 등재지에 게재하였다. 최근에는 이효석의 문학, 서원 등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주목하여 동아시아적 공통성과 지역적·개인적 특이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또 다른 박사과정생 박지영은 유튜브에서 나타난 싸이의 강남스타일 비디오의 확산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스페인에서 개최된 [European Conference on Social Networks]에서 발표하여 아시아를 넘어 확산 중인 한류 연구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으며, 동 연구를 SSCI 학술지 <<Online Information Review>>에 투고하여 게재하였다. 박지영은 참여교수 A의 교과목 [동아시아담론의계보]를 통해 인식한 동아시아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2000년대 한국에서 출판된 동아시아학 관련 논문 6천여 편의 동향을 지도교수 B와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진 등재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에 투고하여 게재하였다. 또한, 지도교수 B의 교과목 [동아시아학을 위한 계량적조사방법론]을 통해 습득한 네트워크 방법론을 이용한 페이스북 연구의 일환으로 선거기간 동안 페이스북에 나타난 메시지 분석 논문을 [Daegu gyu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에서 발표하였으며, 학진 등재 학술지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에 투고하여 게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석사과정생 장아름과 함께 참여한 논문 역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에 게재되어, 활발한 학술대회 및 논문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학자로서의 기대가 크다.

아울러 2015년 2학기 새로 입학한 박사과정생 육담성(陸潭晟)은 영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이미 박사과정을 수료한 중국인 유학생으로, 최근 2년간 국내외 논문 12편·학술대회 발표 4회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수한 학생이다. 특히 육담성은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국가우수자비유학생 장학금’을 2014년도에 받은 바 있다. 2003년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이 장학 제도는 외국에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자비 유학생 중 연구 성과가 탁월한 유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우수자비유학생 장학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장학금 지원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우수 유학생으로 추천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학위 취득 후 본국에서 활동 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학생이 동아시아문화학과를 졸업한다면 이후 중국과 대구·경북과의 원활한 국제적 네트워크 및 대구·경북지역의 문화를 중국에 직접 알리고 소개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 석사과정생 정호윤과 장아름은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에서 발표한 논문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한·중·일 3개국 우수 논문집 <<東亞與世界>>(제2집)(출판사: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에 수록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2학기 새로 입학한 석사과정생 갈천은 중국 화중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중국인 유학생으로, 우리 사업단의 단장이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를 위해 올 4월 중국의 우수한 대학을 돌며 우리 학과를 적극 홍보한 결과 우리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다. 중국 명문 대학 출신에 뛰어난 한국어 실력 또한 겸비한 학생인 만큼 앞으로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가능성이 기대되는 학생이다.([참고 1] 사업단 조직도 및 운영진 <http://glocal.yu.ac.kr/>)

1.3 전공학과(학사단위) 전체교수 중 참여교수 비율

<표 2> 2015년 참여교수 비율

(단위 : 명, %)

구분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비율 (%)
2015년 참여교수 비율	7	6	85.71%

<표 3-1> 최근 2년간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 교수 수 (명)	7	7	7	7
전입 교수 수 (명)	0	0	1	0
전출 교수 수 (명)	0	0	1	0

<표 3-2> 최근 2년간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1	정병석	2015년 1학기	전입	신규임용
2	박명진	2015년 1학기	전출	겸무해제

## 2 사업단의 교육 기본 여건

### 2.1 등록금 대비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률 실적 및 계획(학과기준)

#### 가. 등록금 대비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률 실적(최근 2년)

<표 4> 등록금 대비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비율

(단위 : 천원)

연도	총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교내	교외	계	
2013년	0	0	0	0	X
2014년	70,220	50,953	121,800	172,753	221.01%
2015년	47,972	32,323	56,140	88,463	X

#### 나. 등록금 대비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계획

<표 5> 향후 사업단 학과(부) 등록금 대비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률 목표

(단위 : %)

구분	연도별 목표(%)				
	4차년도( '16.3~ '17.2)	5차년도( '17.3~ '18.2)	6차년도( '18.3~ '19.2)	7차년도( '19.3~ '20.2)	8차년도( '20.3~ '20.8)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	213.5%	213.5%	213.5%	213.5%	107.8%

2.2 대학원생 인력 확보/배출 및 지원 계획

①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최근 2년)

<표 6> 사업단 소속 학과(부) 참여교수 지도학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2013년	0	0	0	0
	2014년	5.5	2	0	7.5
	2015년	4	1	0	5
	계	9.5	3	0	12.5
배출	2014년	0	0	X	0
	2015년	0	0	X	0
	계	0	0	X	0

②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가. 대학원생 배출 계획

<표 7> 향후 사업단 소속 학과(부) 참여교수 지도학생 배출 계획 (단위: 명)

연도	대학원생 배출 계획		
	석사	박사	계
4차년도	3	0	3
5차년도	4	2	6
6차년도	5	2	7
7차년도	6	2	8
8차년도	6	2	8
계	24	8	X

※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

우리 사업단은 2013년 9월, 15명의 대학원생(박사과정 4명, 석박사 통합과정 2명, 석사과정 9명)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동아시아문화학과 협동과정이 구성되지 못한 관계로 국사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언론정보학과, 일어일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등 6개 학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한시적 조직 형태를 취했다. 2014년 3월 정식으로 동아시아문화학과가 성립되어 정규 대학원생 9명(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6명)을 모집하였다. 2014년 9월에는 추가로 2명의 석사과정생을 모집하였다. 2015년 3월과 9월에는 각각 3명의 대학원생(각각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학원생 수는 휴학생 3명을 제외한 총 14명(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10명)이다. 이 가운데 2013년 첫 번째 참여한 대학원생 15명은 2015년 9월 현재 대다수가 학위 과정을 졸업 및 수료한 상태이다.

2014. 2. 졸업: 김리나(석사)

2015. 2. 졸업: 노준수, 권미영, 김명월(이상 석사)

2015. 8. 졸업: 구찬휴, 김순한(이상 석사)

석사 및 박사, 석박사 과정 수료: 김지영, 이승아, 백지국, 최정순, 이대훈, 이동향, 최성철

재학생: 이노우에 사치코, 박지원

이러한 대학원생 배출 성과는 본래 계획했던 1차년도(석사 3명), 2차년도(0), 3차년도(석사 3명)의 계획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향후 석사·박사 배출 목표 달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4차년도에서 8차년도까지의 대학원생 배출계획은 표에 있는 대로이다. 우리 사업단은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첫째,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화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적절한 교육 시스템과 함께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게 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외의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졸업논문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와 학생과의 접촉 기회를 넓히고 공동연구, 공동발표를 제도화한다. 대학원 학점제도 가운데 하나인 [개별연구], [연구학점]의 수업을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졸업논문 지도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연구조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의 수혜를 확대시키고,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 발표, 게재토록 한다.

셋째, 대학원생에게 논문 발표,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발표, 게재된 논문을 졸업논문으로 수렴함으로써 대학원 졸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또한 대학원 수업의 내용과 기말 리포트 그리고 졸업논문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대학원 수업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넷째, 대학원의 학칙 가운데 하나인 석·박사 연계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학원 과정 수료 때까지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킨다. 석사 입학생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면 학비 부담은 물론 학생의 학습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대학생 분담 지도 학생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지도교수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 대한 지도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높인다. 우리 사업단은 한국문학, 어학, 중국 어문학, 일본 어문학, 역사, 철학, 언론정보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과 교수가 모여 이루어진 협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학문 분과의 특수성보다는 동아시아문화학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공은 동아시아문화학으로 수렴될 것이다. 따라서 지도교수의 개별 전공을 강조하기보다는 학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논문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 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 1.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해 홈페이지 활용 등의 다양한 활동 시도

### 1) 홈페이지 활용

우리 사업단은 2014년 3월 14일에 개설된 동아시아문화학과 홈페이지(<http://glocal.yu.ac.kr>)를 활용하여 사업단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홈페이지는 학과의 사업성과를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학과 구성원을 비롯하여 우리 학과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참고 2] 동아시아문화학과 홈페이지)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는 ① [사업단소개], ② [사업내용], ③ [사업성과], ④ [동아시아문화학과] 그리고 ⑤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

① [사업단소개]에는 [단장 인사말], [사업목표], [조직도] 및 [인력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아시아문화학과와 지향점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단을 구성해가는 인력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메뉴이다.

② [사업내용] 메뉴는 사업단이 지향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학과 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세부 메뉴인 [추진전략], [기대효과], [연차별 사업일정]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사업성과] 메뉴에서는 우리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출판된 논문과 저서를 소개하고, 구원성원들이 참여한 학술대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우수한 세미나/특강 목록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업단에서 실무교육을 위한 진행해 온 MOU 등의 활동 또한 제시되어 있다.

④ [동아시아문화학과] 메뉴에서는 사업단이 지원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학과 의 기본적인 교육방향을 비롯하여 [학과 교수]를 소개하고, 대학원 내의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원 소모임과 관련하여 [대학원 자료실] 메뉴에서는 본 사업단의 구체적인 대학원 교육과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 관련된 세부 메뉴를 통해 학과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⑤ [커뮤니티] 메뉴는 사업단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단과 관련된 정보 및 관련 산업,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 대학원생 및 관련 분야 학생들의 관심을 이끄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실]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화기, 일제 강점기 신문 자료 원문 다운로드] 같은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어 있다. [포토갤러리]에서는 사업단이 참여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특강 및 기사 등이 사진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Q&A] 메뉴를 통해 질의응답의 여지를 두고 있어, 단순히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으로 [규정/내규] 메뉴에서는 사업단의 내부 규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 사이트 메뉴를 통해 사업단과 관련된 주요 사이트들을 집약적으로 제시하였다.

모든 사업단의 활동들은 공개되어 사업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참여 대학원생 및 연구진을 비롯한 외부 인사와의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수한 대학원생을 계속해서 확보해 갈 것이다.

### 2) 인터넷과 SNS 매체 활용

본 사업단은 동아시아문화학과 의 정보를 널리 알리고 유능한 대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과 SNS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SNS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한 예로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B가 페이스북에 홍보한 동아시아문화학과 입학정보를 보고 MBC 구성 작가 강병순이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그는 현재 일본 간사이대학교 의 복수학위를 위해 유학 중에 있다. 이러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해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것이다.

[참고 3] 트위터 홍보 화면(20140222), [참고 4] 사업단 참여교수 B의 페이스북 홍보 활동(20131223))

또한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를 등록하여 우리 학과에 관심 있는 이들이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5] 네이버의 ‘동아시아문화학과’ 검색 화면)

### 3) 신문 매체 활용

영남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영대신문>>에 학과 주임교수(사업단장)의 인터뷰 및 대학원과 BK사업단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동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앞으로는 영대신문 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사와 중앙지를 통하여 인터뷰 및 대학원 보도 자료를 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보다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yureka.yu.ac.kr/news/articleView.html?idxno=5160>)

< “BK21플러스 사업, 인문사회계열 추가 선정돼” -인문학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발판 마련>

지난달 18일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의 전문인재 양성 사업단이 BK21 플러스 사업에 특화전문인재양성형으로 선발됐다. 인문사회계열 지원 사업단 중 한 팀에게만 주어지는 ‘특화전문인재양성형’ 프로그램은 창조경제를 이끌 융·복합 분야의 고급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인재 양성 사업단은 2019년까지 석·박사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18억 9백6십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지난 9월 15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BK21 플러스 사업의 선정결과 우리 대학교 총 6팀이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으로 선정된 후 타 유형으로 추가 선발된 것이다.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인재 양성 사업단장인 손승희 교수(사학과)는 “많은 대학에서 인문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특성화 아닌 일반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BK21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인문학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인재 양성 사업단은 베이징외국어대학원과 2012년부터 교류 협조관계를 유지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베이징외국어대학원을 포함한 3개국 동시 학위제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에 ‘동아시아문화학과’를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김명아 기자 ma9306@ynu.ac.kr 20131209)

더불어 학과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 광고는 다음과 같다.

([참고 6] 동아시아문화학과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홍보 광고 기사, <<영대신문>>, 20141013)

신입생 홍보 광고는 학기마다 계속해서 낼 것이며 이를 통해 신입생을 유치할 것이다.

#### 4) 학과 홍보물 제작 및 설치

학과를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신, 입학 시기 및 수시로 교내에 대학원 입학과 과정을 소개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하였다. 앞으로도 매 학기마다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할 것이다.

([참고 7] 학과 홍보 브로슈어, [참고 8] 학과 입학 홍보 현수막 설치 사진 자료(201506))

## 2. 동아시아문화학과 관련 교양강좌 개설

동아시아문화학에 대한 학부 교양강좌를 개설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참고 9] 2014년 [동아시아 인문학의 이해] 제안서)

예시) 2014년 [동아시아 인문학의 이해] 제안서

### [교과목 개요]

1. 최근 동아시아 각국이 공히 애국주의-민족주의적 경향의 대두와 함께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지역 내의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노력이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하지만 동아시아 각국은 정치적으로는 멀지라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하며 문화적으로는 그 근원의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간단히 규정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닌 관계이다.

3. 본 강의는 이처럼 여럿이면서 하나이기도 한 동아시아세계의 유기성, 상호연관성을 인문학적 관점으로부터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는 가치관, 제도, 관습 등을 단지 일국사의 틀 안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적 시야로부터 재인식하고 재구성해 보는 관점을 강의수강자에게 제시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본래 우리의 전통, 관습, 제도, 가치관과 같은 것들은 국가가 법으로 규정해주면서 생겨나기 보다는, 상호 연관된

인간, 집단 간의 소통과 교류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국민국가의 가치가 강조된 20세기 이후로는 동아시아 공통의 지적 재산이자 자원으로 간주되어 오던 문학, 철학, 사상 등에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그것들이 지닌 본연의 가치마저 국가적 관점으로부터 재단되거나 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학생들에게 편협하지 않은 개인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으로부터 자신의 연원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5. 본 강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적-문화적 전통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서적, 사건 등을 선정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의 ‘나’, ‘우리’ 를 구성하는 것들이 보다 다양한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져 온 것임을 확인케 한다.

6. 이를 위해서 본 강의는 동아시아의 고전이 지닌 국경을 넘어서는 인문적 가치들의 재확인, 중세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에 있어서 상호간에 끼친 영향 고찰, 근세 이후 국가형태들의 유사성과 이질성, 근대 이후 서구지식을 수용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양상 등을 인문학적 관점으로부터 비교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수업계획서]

1주 동아시아론의 전개 (1): 일본 동아시아론의 제기과 변화 그 의미 등을 계보적으로 파악하여 그 한계와 의도를 파악한다.

2주 동아시아론의 전개 (2): 중국 동아시아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과거 제국으로서의 중국을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최근의 제국론을 경계한다.

3주 동아시아론의 전개 (3): 한국 동아시아론이 지니는 세계사적 의미를 밝히고 그 현실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4주 전통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1):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공질서의 실상과 한계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그 안에서의 이루어진 상호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5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2): 동아시아 각 국가들이 확립한 독자적 질서에 대한 상호비교를 통해 각자가 추구하는 근대성의 실체에 접근해 본다.

6주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1): 서구의 접촉 과정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것들이 지닌 전통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근대사의 전개과정을 검토한다.

7주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2): 동아시아의 혁명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비교 검토한다.

#### 8주 중간고사

9주 동아시아인의 서구체험과 서구 인식 (1): 근대 동아시아의 서구체험기 등을 선별하여 읽고 분석해 본다.

10주 동아시아인의 서구체험과 서구 인식 (2): 근대 동아시아의 서구체험기 등을 선별하여 읽고 분석해 본다.

11주 ‘계몽주의’와 동아시아: ‘계몽’이라는 슬로건의 유입과 동아시아사회의 반응을 살펴본다.

12주 근대국가의 성립과 동아시아세계: ‘입헌주의’의 수용과 관련한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체계와 그 대응 및 변용양상들을 살펴본다.

13주 ‘진화론’과 동아시아 (1) - 일본의 경우: ‘진화론’의 유입과 동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현재적 의미를 인문학의 시점에서 고찰 한다.

14주 ‘진화론’과 동아시아 (2) - 중국의 경우: ‘진화론’의 유입과 동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현재적 의미를 인문학의 시점에서 고찰 한다.

#### 15주 기말고사

2015년 현재도 제안서를 제출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학부 학생들에게 우리 학과를 적절히 소개하는 홍보와 더불어 학생 유치의 계기로 삼고 대학원생들에게는 교육을 담당할 기회를 제공한다.

### 3. 장학제도

BK21플러스 사업 장학금과 대학 자체의 각종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학생 유치에 효과를 얻고 있다. 아래는 동 대학의 대학원에서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장학금 혜택을 나타낸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별도의 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우수한 학생 유치에 힘쓸 것이다.

1) 입학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천마장학금 등록금의 100%), 일반대학원 장학금(등록금의 35%)

2) BK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월 석사과정 60만 원, 박사과정 100만 원

3) 강의조교 장학금: 강의조교 장학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강의조교 1은 장학수혜율 100%를 통해 한 학기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의조교 2는 75%, 강의조교 3은 50%에 해당하는 장학수혜율의 혜택을 받는다. 단, 강의조교의 경우 장학수혜율에 해당하는 업무를 참여 학과에서 수행해야하는 의무조건을 가진다.

4) 연구조교 장학금: 이 장학금 제도는 일정 기한 내에 지도교수와 함께 참여 대학원생이 논문의 공동 저자 또는 연구 보조자로 참여하여, 논문이 출판되는 조건으로 학기당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 10] 연구조교 장학금)

5) 외국인 장학금 제도: 토픽(TOPIK) 4급 이상의 외국인대학원생에게전면장학금을지급함으로써우수한외국인대학원생을확보하고 있다. 우리 사업단에 소속된 외국인 유학생 5명은 모두 100%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 4. 해외 우수 대학원생 유치 위한 교류활동

1) 사업단장 A는 2015년 4월 19~23일까지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중국의 대학에 방문하였다. 중국의 무한 사범대학, 호남 사범대학, 중남 임업과기대학, 중남민족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을 직접 만나 교류하고 동아시아문화학과를 설명하고 홍보했다. 그 결과 중국 유수의 화중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갈천(토픽 6급)이 2015년 2학기에 동아시아문화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 2) 베트남 대학원생 유치 계획

2016년 1월 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 단기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계기로 대학원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전 교육으로 호치민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영남대 교양학부 이지선 교수를 초빙하여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베트남 남부 화인 사회의 형성], 201506) 앞으로도 그를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에 도움을 얻을 예정이다. 더불어 베트남 홍방대와외의 교류를 통해서도 대학원생을 유치할 계획인데 영남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홍방대 부이 판 안트(BUI, Phan Anh Thu) 교수를 연결 통로로 삼을 예정이다.

#### 5. 공동복수학위제 및 국내외 장단기 연수, 학술대회

1) 국내, 해외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복수학위제를 추진하여 일본 간사이 대학과 협정을 맺었고 베이징 대학 및 해외 우수 대학과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대학과의 교류와 협정 내용들을 홈페이지와 신문기사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해외 학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2) 영남대와 MOU를 체결한 중국 중경대학(중칭대)과 앞으로 학술교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경대학은 재학생 5만 명 규모의 국립 종합대학으로 28개 단과대학과 90개 학부과정, 256개 석사과정, 133개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이다. 특히, 환경건축, 공학, 기술,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중국내 10위권에 속하는 교육부 직속의 국가중점대학으로, 본 학과는 MOU 체결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문화학과와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3) 국내외 장단기 연수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2.3 대학원생의 취업 및 창업 실적 및 계획(참여교수 지도학생 기준)

① 취업률 및 취업의 질적 우수성(최근 1년)

<표 8> 사업단 소속 학과(부) 참여교수 지도학생 취업률 실적

(단위: 명, %)

구분		졸업 및 취업현황						취업률(%) (D/C)×100
		졸업자(G)	비취업자(B)			취업대상자 (C=G-B)	취업자(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14년 8월 졸업자	석사	0	0	0	0	0	0	석사/박사 합산
	박사	0	X	X	0	0	0	0
2015년 2월 졸업자	석사	0	0	0	0	0	0	석사/박사 합산
	박사	0	X	X	0	0	0	0
계		0	0	0	0	0	0	0

취업률 및 취업의 질적 우수성(최근 1년)

우리 사업단은 2014년 3월 동아시아문화학과가 대학원 협동 과정으로 개설된 후 2015년 9월 현재 졸업생이 없으므로 취업과 관련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취업자의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진출 실적이나 취업기관의 전공 적합성 등에 대한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협동전공은 향후 취업률 및 취업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과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예컨대, 박사과정 신미삼은 연구교수로 발령되었으며, 해외대학과 공동/복수학위제, 국내외 장단기 연수 및 5개국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및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양성 중이다.

또한, 우리 사업단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201412), 그리고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201503)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박사과정생 정남희와 석사과정생 정호윤이(20150223~20150417),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에서는 석사과정생 정혜윤, 장아름, 서보현이(201507) 각각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15년 경북 스토리텔링 아카데미]에 참여 대학원생들(박사과정 정남희, 박사과정 김태환, 석사과정 정호윤)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참고 11] 2015년 경북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그밖에도, 해외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강사로 활동할 역량을 갖춘 참여 대학원생(박사과정 김태환)의 역량을 키워 해외에서 강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12] 중국 파견 한국어강사 모집 공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의 개설뿐만 아니라 실무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역사문화 해설, 동아시아 통번역, 동아시아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동아시아의 다문화 문제,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개발·기획·연출 및 국제행사 기획·운영 분야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우리 대학의 지리적 조건과도 상당히 부합한다. 즉 인근 지역인 하회마을(안동)과 양동마을(경주)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경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의 도시로 세계문화엑스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대구는 DIMF(대구 국제 뮤지컬 축제), 거창은 KITF(거창 국제연극제) 등 다양한 국제 예술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한 우리 사업단의 유능한 ‘글로벌 인재’의 수요가 절실한 지역이다.

또한, 우리 사업단은 현재 지역 언론매체(대구 MBC·대구 KBS·TBC, 영남일보·매일신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단 특성상 협조관계에 있는 관광회사(하나투어, 로얄관광여행사)를 비롯하여 유학원(베이징유학원), 무역회사, 출판기획회사, 예술기획회사 등과의 산학협력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분야의 창업도 가능하도록 창업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단기 창업연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업단이 배출한 인재는 사업단의 효율적인 교육과정에서 익히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진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동아시아 역사문화 해설 분야
- ② 동아시아 통번역 분야
- ③ 동아시아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분야
- ④ 다문화 관련 분야
- ⑤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 연출 분야
- ⑥ 국제행사 주관 기획 운영 분야
- ⑦ 관광 해설 분야
- ⑧ 유학 관련 분야
- ⑨ 무역 통상 분야
- ⑩ 문화기획 분야
- ⑪ 국제 축제 예술 행사 분야

② 창업건수 및 창업의 질적 우수성(최근 1년)

가. 창업건수

<표 9> 사업단 학과(부) 소속 참여교수 지도학생 창업건수 실적

(단위: 명, %)

구분		졸업 및 창업 현황						
		졸업자(G)	비취업자(B)			취업대상자 (C=G-B)	창업건수 (E)	창업율 (E/C)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14년 8 월 졸업자	석사	0	0	0	0	0	0	0
	박사	0	X	X	0	0	0	0
2015년 2 월 졸업자	석사	0	0	0	0	0	0	0
	박사	0	X	X	0	0	0	0
계		0	0	0	0	0	0	0

창업건수 및 창업의 질적 우수성(최근 1년)

우리 사업단은 2014년 3월 동아시아문화 협동 과정이 개설된 후 2015년 9월 현재 졸업생이 없으므로, 현재 창업자의 창업기업의 특성 및 학과와의 관련성 등 창업실적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기술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우리 협동전공은 향후 창업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학과 차원의 노력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1. 2014년도 2학기 강의(강의명: [동아시아문화콘텐츠이론])를 맡았던 윤애숙([윤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사업자번호: 502-28-83971)이 운영하는 연구소와의 교류를 통한 콘텐츠 기획자 양성 및 공동창업을 기획하고 있음.
2. 2015년도 1학기 강의(강의명: [동아시아대중문화])를 맡았던 서성희([영화와 소통하기] 대표, 사업자번호: 850-07-00044)와의 교류를 통한 문화연구가 양성 및 공동창업을 기획하고 있음.

<창의적 교육 및 산학협력 영역>

### 3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역량

#### 3.1 참여교수 국내·외 활동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① 참여교수 1인당 연구실적 및 창작물 실적(최근 2년) (인사 및 예술분야만 해당)

<표 11> 참여교수 1인당 연구실적 및 창작물(전시회/공모전/영화제) 실적 (단위: 편)

항목		최근 2년간 실적(편)			전체기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7	14.5	6.5	28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	-	-	-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	1	-	1
학술저서 환산편수	국어	0.1666	5.6841	3	8.8507
	외국어	-	-	0.1304	0.1304
전시회 창작 환산편수	국제	-	-	-	-
	국내	-	-	-	-
공모전(입상) 창작 환산편수	국제	-	-	-	-
	국내	-	-	-	-
영화제 창작 환산편수	국제	-	-	-	-
	국내	-	-	-	-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7.1666	21.1841	9.6304	37.9811
총 창작물 실적 환산편수		0	0	0	0
참여교수 1인당 연구실적 및 창작물 실적 환산편수		X			6.3301
참여교수 수					6

② 참여교수의 대표실적(최근 2년)

<표 12> 사업단 참여교수 대표실적 목록

연번	실적정보		참여교수 성명	주저자 여부	객관적 우수성
	실적명	연월(YYYYMM)			
1	헤테로토피아와	201412	손승희	제1	이 책은 학계에서



1	만주	201412	손승희	제1	<p>처음으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을 근대 만주에 적용하여 그 실상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 저서이다. 푸코에 따르면 역사란 ‘우리의 현재’에 내재한 정상성을 비추는 거울인데 반하여 헤테로토피아는 ‘우리의 이곳’에서 작동하는 배치의 규범 바깥으로 나 있는 미로이다. 또한 헤테로토피아는 어떤 중심에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불연속성, 전위, 변환, 과열, 절단 등 탈중심의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헤테로토피아는 편협한 민족주의 관점이나 단선적 역사관을 넘어 만주를 새롭게 조망하는 분석틀로 사유할 수 있다.</p>
2	동아시아의 사형	201402	손승희	제1	<p>-2015년 영남대학교 우수연구상 수상(20150515)-이 책은 중국고대사의 대가인 도미야 이타루(富谷 至)의 [[東アジアの死刑]](京都大學出版會, 2008)을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은 사형이라는 궁극의 형벌을 통해서 동아시아 세계 죄와 벌의 법의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명하</p>

2	동아시아의 사형	201402	손승희	제1	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사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도와 네팔 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형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또한 이 책은 일본, 중국,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의 역사학, 법학, 사회학, 종교학, 인류학, 철학, 민족학, 어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명실상부한 공동연구의 소산이다. 그 결과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풍부한 자료 제시를 함으로써, 동아시아 역사의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The networked cultural diffusion of Korean Wave	201502	박한우	교신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튜브 동영상의 코멘트를 분석하여 한류 확산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류의 내부를 웹보메트릭스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	Network Analysis of East Asian Research in South Korea for the 2004-2013 Period	201503	박한우	교신	여러 학문의 학제성을 띄는 동아시아학의 국내 협력연구 행태를 분석하였다. 약 10년간의 논문 출판정보를 계량정보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관

4	Network Analysis of East Asian Research in South Korea for the 2004-2013 Period	201503	박한우	교신	<p>련 연구 및 연구 기관은 늘어났지만 주요 참여 기관은 소수였으며 협력 연구보다는 단독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학문적으로는 역사와 한국어 분야가 해당 학문을 이끌고 있었다.</p>
5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한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분석	201505	박한우	교신	<p>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의 세계인들의 인지도와 관심도를 분석하였으며, 트위터를 통한 SNS 전략과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p>
6	한국의 서원문화	201403	이수환	제1	<p>한국의 서원에는 유, 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 즉 역사, 교육, 제향 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 등이 존재하며 도서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다. 이 책은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서원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서원이 가지는 특징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서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유네스</p>

6	한국의 서원문화	201403	이수환	제1	코 등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荀子の ‘天生人成’ 과 尊群體의 정신	201312	정병석	제1	이 논문은 본래 중국에서 개최된 2013년 10월 [荀子思想當代價值學術研討會]에서 발표한 논문을 [[중국학보]]에 게재한 것임. 중국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난 후, 주최측과 [[孔子研究 (Confucius Studies)]] 잡지사에 의해 외국학자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臺灣大學 철학과의 李賢中 교수와 본인) [충천생도인성]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저명한 학술지인 [[孔子研究]](2014. 1월호, 총 141期, 38~45쪽)에 게재되었음.
8	점에서 철학으로 : 점서역의 해체와 주역의 철학적 해석의 길	201406	정병석	제1	이 저서는 200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책은 점을 치는데 사용된 [[주역]]이 어떻게 철학적인 책으로 변화 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다.
9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정체성의 문제	201412	노상래	교신	조르조 아감벤의 ‘정체성 없는 특이성’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의 동아시아론을 비평한 글이다. 기존의 동아시아론에

9	한국의 동아시아 론과 정체성의 문 제	201412	노상래	교신	는 정체성의 의도 적 확립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 하고, 새로운 동 아시아론에는 사 람들의 ‘특이성 '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등재 지 [[동아인문학 ]] 제29집에 등재 )
10	日韓企業内にお ける敬語使用の比 較－話題人物に對 する敬語使用を中 心に－	201407	김양선	교신	한국연구재단 중 견연구자지원사업 (NRF-2012-S1A5A2 A01014994)에 선 정된 연구비 수혜 논문이다. 이 논 문은 한일 양국의 기업 내에서 사용 하고 있는 경어 사용법의 특성을 구체적인 앙케이 트 조사를 근거로 분석한 논문이다. 막연하게 절대경 어에 기반을 둔 한국과, 상대경어 에 기반을 둔 일 본은 당연히 경어 사용방법이 확연 히 다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 만, 실상은 상당 히 오히려 반대되 는 경우도 있고, 매우 유사한 경우 도 있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하 였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양국의 기 업인들에게 선입 견 없는 상호이해 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 기 때문에, 외국

10	日韓企業内における敬語使用の比較－話題人物に対する敬語使用を中心に－	201407	김양선	교신	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대방과의 소통과 이해라고 본다면, 본 연구는 이에 가장 걸맞은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	文房四友詩研究	201502	우재호	제1	文房四友를 읊은唐代 詩歌를 개괄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唐詩에서는 譬喩 등의 수사기교가 산문과 대비하여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시만의 특징적인 수사 기교가 사용되었는지 등등을 탐색해 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없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라 할만하다.

### ③ 참여교수의 해당분야 역량제고 계획의 우수성

참여교수의 해당분야 역량 제고를 위해서 사업단의 공동계획(연구와 지원)과 개인 연구계획으로 구분해 추진하고자 한다.

#### 1. 사업단의 공동계획

1)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현재 사업단 참여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구·경북과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역사] 프로젝트(1년차)를 더욱 확대·심화하여 만주(2년차), 일본(3년차),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4년차)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 ① 1년차(2016)

주제: 대구·경북과 동아시아문화교류의 역사

주체: 사업단 교수와 대학원생

비고: 현재 경제·사회연구소 및 경상북도에 지원 신청

##### ② 2년차(2017)

주제: 대구·경북과 만주

주체: 사업단 교수와 대학원생

비고: 해외 네트워크 형성

##### ③ 3년차(2018)

주제: 대구·경북과 일본  
주체: 사업단 교수와 대학원생  
비고: 공동연구

④ 4년차(2019)

주제: 대구·경북과 중앙아시아  
주체: 사업단 교수와 대학원생  
비고: 현지조사와 구술사

2) 우리 대학의 중점 지원 연구소이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학술지 발행연구소인 인문과학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 독도문제연구소, 사이버감성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사업단 교수 및 대학원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위 연구소 가운데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사이버감성연구소 소장, 인문과학연구소 부소장 등 3명은 우리 사업단 참여교수이기 때문에 공동 활동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상호 원-원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nbsp;

① 1년차(2016)

주제: 글로컬리즘: 지역과 동아시아  
주체: 사업단·인문과학연구소  
비고: 동아시아 5개국 대학원생 참가 확정(8월 중순)

② 2년차(2017)

주제: 빅데이터와 인문학  
주체: 사업단·사이버감성연구소  
비고: 중국 문화콘텐츠 관련연구자와의 공동연구

③ 3년차(2018)

주제: 동아시아의 전통과 근대  
주체: 사업단·민족문화연구소  
비고: 산동대 역사연구소, 대만 국립 운림과기대 민족문화연구 공동연구

④ 4년차(2019)

주제: 글로컬동아시아문화학의 대중적 확산  
주체: 사업단·연구소  
비고: 인문도시, 인문강좌, 인문학국책사업 신청과 연계

2. 사업단의 지원

1) 연구실적이 우수한 참여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급. 이 부분은 이미 2013년부터 세부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는 바 그 차등의 폭을 확대하여 사업단 교수 내부의 생산적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연구력 증진을 유도한다.

2) 대학원생과 공동연구·공동발표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교수와 학생 양측의 학문적 교류와 자극을 유도한다.

3) 다양한 국제학술 행사를 유치하여 해외교수와의 학문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의 확산 및 심화를 촉진시킨다.

3. 개인 연구계획

A.

1) 1년차

-해외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연구년을 활용하여 대만 국립대학 문학연구소 소장 黃美娥 교수와 공동으로 [근대 동아시아문화 교류 및 여행]이란 연구 진행

-한국연구재단 학술저서지원 사업(총 3년, 기선정) [문화대혁명과 극좌파]를 순차적으로 진행

2) 2년차

-<<동아시아 속의 문화대혁명>>(가제)라는 제목으로 矢吹晋, <<文化大革命>>, 講談社現代新書, 2010을 번역(현재 판권 계약 완료)

3) 3년차

-[중국과 문혁, 문혁과 세계-문혁 서사의 비판적 검토와 세계사적 맥락 고찰-](총 2년)이란 공동연구 사업 참여

4) 4년차

-[동행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의 인문도시, 인문강좌, 인문학국책 지원 프로젝트(총 3년)에 신청·추진

B.

1) 1년차

-사이버스페이스 상에 나타난 동아시아지역 한류지형 연구. 웹보메트릭스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 진행

2) 2년차

-중국 주요 데이터 연구기관(예: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중국 내 빅데이터 연구 인력과 지속적 교류 추구. 외국인에 제한된 중국 인터넷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3) 3년차

-동아시아지역에서 통용되는 중국어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연구 진행. 이를 통해 동아시아 인터넷 문화연구의 범위를 확장함.

4) 4년차

-대구경북 지역에서 중국 빅데이터기관들과 학회 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 교류 진행

C.

1) 1년차

-한국학 자료센터 [영남권역 센터] 구축 사업 진행(책임연구원)

2) 2년차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신청 9개 [한국서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지원

3) 3년차

-민족문화연구소·한국서원학회 국제학술대회 추진 [세계문화 유산 등재와 동아시아 내 조선 서원의 위상](가제)

4) 4년차

-서원과 인문학: 현대적 활용방안 책자 발간, 인문학 강좌, 체험 등

-문화재청 지원 사업 공모 신청

D.

1) 1년차

-University of Hawai' i 출판사의 Consortium series인 "Confucian Cultures" 의 <<Li Zehou and Confucian Philosophy>>라는 책의 공동 집필에 참여하기로 계약하였음.

-한국연구재단 학술저서지원 사업(총 3년, 기선정) <<易傳과 聖人>> 집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사업 사업(총 5년, 기선정) <<性理大全>> 번역 공동연구원으로 참가하여 완성함.



- 해외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연구년을 활용하여 대만 국립 운림과기대 한학응용연구소에서 1~2개월 강의 예정
- 중국 청화대 陳來의 <<古代宗教與倫理>>를 공동 번역 완성 예정
- <<佛敎與易學>>(현재 판권 계약 완료, 초역 완료) 번역 완료

2) 2년차

- 미국 하와이 대학 Roger Ames 교수의 <<The Art of Rulership>> 번역 완성(현재 판권 계약 완료, 초역 완료)
- 한국연구재단 학술저서지원 사업(총 3년, 기선정) <<易傳과 聖人>> 집필 완료
- 베이징대학 王博 교수의 <<易傳通論>> 번역 완성 예정

3) 3년차

- [朱子文集] 공동 연구사업 참여 예정
- 한국연구재단 토대지원 사업(총 3년, 기선정) <<한국경학집성 易經 편>> 번역 공동 연구원으로 참가

4) 4년차

- 중국 안양시 정부와 河南대가 주관하는 [世界周易書集成]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석하여 완성함. 2015년 현재 한국 측 편집위원임.

E.

1) 1년차

- 발전적인 ‘대동아공영권론’ 을 위한 이론의 재정립과 실천의 확산 1: 일제시대 대동아공영권론의 재음미

2) 2년차

- 발전적인 ‘대동아공영권론’ 을 위한 이론의 재정립과 실천의 확산 2: 21세기 일본의 문화 양상과 의식 분석(소설, 만화,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3) 3년차

- 발전적인 ‘대동아공영권론’ 을 위한 이론의 재정립과 실천의 확산 3: 한국의 한류문화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 고찰

4) 4년차

- 발전적인 ‘대동아공영권론’ 을 위한 이론의 재정립과 실천의 확산 4: 동아시아 문화의 조화와 확산을 위한 모형 개발(동아시아 문화 축제사례를 중심으로)

F.

1) 1년차

-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의 번역 분석1: 소설(문장체)를 중심으로 일본 관서대학교 대학원 문화교섭학과 석사과정 교환유학생 쓰지오카 사키코 씨와 공동 작업. 시기, 장르 등을 고려한 작품 선정 및 수집/분석항목 설정/분석방법 설정/논문 발표

2) 2년차

-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의 번역 분석2: 만화(문장체 U 회화체)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석사과정 중국인유학생 왕충성, 손혜남 군과 공동 작업. 작품 선정 및 수집/분석항목 설정/분석방법 설정/논문 발표

3) 3년차

-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의 번역 분석3: 영화(회화체)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외국인교수 기쿠치 세이지 교수 및 중국언어문학과 G 교수 등과 공동 작업. 영남대학교 외국어교육원의 외국인교수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작품 선정 및 수집/분석항목 설정/분석방법 설정/논문 발표

4) 4년차

- 동아시아 3국의 번역 특성 비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박사과정 김태환과 공동 작업. 일본 관서대학교와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과의 협력체계 활용. 매체·장르적 비교/언어·문체적 비교/문화·시대적 비교/논문 발표 및 도서 출판

G.

1) 1년차

-[송대 서예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작업으로 <황산곡 서예시 연구> 집필

-<<중국 당대 서예시 역주>>(제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번역서 출간: 영남대학교출판부와 계약 완료된 상태임

2) 2년차

-[송대 서예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작업으로 <소동파 서예시 연구> 집필

-<<중국 송대 서예시 역주>>(1차 초벌번역은 마무리 된 상태이며, 제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번역서 출간: 영남대학교출판부와 계약 완료된 상태임

3) 3년차

-[송대 서예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세 번째 작업으로 <미불 서예시 연구> 집필

-<<중국 역대 서예시 역주>>(3)원명청대(1차 초벌번역은 마무리 된 상태이며, 제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와 <<중국 역대 매화시>>(1차 초벌번역은 마무리 된 상태이며, 제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번역서 출간. 아울러 본 번역을 토대로 하여 <한중일 매화시 비교 연구> 집필

4) 4년차

-[송대 서예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네 번째 작업으로 <송초 사대 서예가의 서예시 연구> 집필: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서예시 비교 연구> 및 <한중일 서예시 비교 연구>로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함.

-<<원시개설>>(1차 번역은 마무리 된 상태임) 번역서 출간

3.2 대학원생 국내외 활동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① 참여교수 지도학생 1인당 연구실적 및 창작물 실적(최근 2년)(인사 및 예술분야만 해당)

<표 14> 최근 2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 연구실적 및 창작물(전시회/공모전/영화제) 실적 (단위: 편)

항목		최근 2년간 실적(편)			전체기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	1	-	1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	-	-	-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	-	-	-
학술저서 환산편수	국어	-	-	-	-
	외국어	-	-	0.75	0.75
전시회 창작 환산편수	국제	-	-	-	-
	국내	-	-	-	-
공모전(입상) 창작 환산편수	국제	-	-	-	-
	국내	-	-	-	-
영화제 창작 환산편수	국제	-	-	-	-
	국내	-	-	-	-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0	1	0.75	1.75
총 창작물 실적 환산편수		0	0	0	0
1인당 연구실적 및 창작물 실적 환산편수		X			0.14
지도학생 수					12.5

② 참여교수 지도학생의 1인당 학술대회 발표 실적

<표 15> 참여교수 지도학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단위: 편)

구분	최근 2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총 건 수	0	0	0	10	0	10	8	0	8	18	0	18
총 환	0	0	0	16.999	0	16.999	16	0	16	32.999	0	32.999

산편수	0	0	0	9	0	9	16	0	16	9	0	9
1인당 환산편수											2.6399	
지도학생 수											12.5명	

③ 참여교수 지도학생의 대표실적(최근 2년)

<표 16> 참여교수 지도학생 대표실적 목록

연번	실적정보		대학원생 성명	주저자 여부	객관적 우수성
	실적명	연월(YYYYMM)			
1	이석훈(李石薰)의 이중어 소설 연구-1929~1932년도 작품을 중심으로-	201312	신미삼	제1	-1~4차에 걸쳐 개최된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으로 인정되어 한·중·일 대학원생 학술대회 우수 논문집 [[東亞與世界]](제1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수록 논문. -한국 국문학에서 주로 일제 말기 친일적인 내용의 일본어 소설만을 위주로 연구되던 이석훈의 작품 세계를 그가 초창기에 발표한 일본어 작품 세계로 확장했다는데 우선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석훈이라는 문인은 일제 말기 가장 많은 일본어 소설을 발표한 친일 문인이라는 고정된 인식틀을 넘어 일제 말기 이전부터 일본어로 소설을 발표했으며 초창기 일본어 소설에서는 친일적인 색채가 거의 없고 도리어 일본어를 전

1	이석훈(李石薰)의 이중어 소설 연구-1929~1932년도 작품을 중심으로-	201312	신미삼	제1	유한 저항의 색채마저 띠는 소설을 발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滿洲を背景にした李石薰の二重言語の小説と滿洲での行跡	201408	신미삼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발표 논문.-본 논문은 1943년 8월 이후 만주로 이주한 이석훈의 만주에서의 행적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석훈이 일제말기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이중어 소설 또한 살펴본다. 해방을 만주 장춘에서 맞이한 이석훈은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1945년 3월 이후부터는 절필한 상태였다. 그 이유를 만주에서의 행적과 관련지어 실증적으로 규명한 점에서 논문의 우수성을 찾을 수 있다.
3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과 만주에서의 행적	201408	신미삼	제1	-등재학술지 [[韓民族語文學]] 게재. 본 논문은 상기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그 성과가 인정되어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다.
4	일제강점기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 연구	201410	신미삼	제1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 국제심포지엄에서 발

4	일제강점기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 연구	201410	신미삼	제1	표 논문.-이석훈이 일제강점기 발표한 일본어 소설을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다. 이를 통해 시국에 따라 변해가는 그의 일본어 소설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	'사형'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법문화	201411	신미삼	제1	이 글은 중국고대사의 대가인 도미야 이타루(富谷至)의 [[東アジアの死刑]](京都大學出版會, 2008)을 완역한 참여교수 A 역, [[동아시아의 사형]](영남대학교출판부, 2014)에 관한 서평이다.([[시선과 시각]], 한국외국어대학교지식출판원 내, 2014) 이 책은 사형이라는 궁극의 형벌을 통해서 동아시아 세계 죄와 벌의 법의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지극히 학문적인 이 책을 서평에서는 왜 옛날 사람들은 참수 등의 방법으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것인지, 오늘날 일반적 사형방법인 교수형은 언제부터 등장한 것인지 등 대중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점에 주목하

5	‘사형’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법문화	201411	신미삼	제1	여 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그 해답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解放期, 李石薰의文學의研究	201503	신미삼	제1	-中日韓意研究生論壇 2015 全球化時代東亞知識的遷移(제8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발표 논문.-본 논문은 아직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 있는 이석훈의 해방기(194508~1950) 소설을 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친일의 행적이 있는 이석훈이었기에 이 시기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했음에 주목하여 그의 가명을 확정하고 가명으로서의 글쓰기를 학계 최초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7	[서평] 백영서 저,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201404	정남희	제1	-등재지 [[인문연구]] 제70호 게재.-본 글은 한국의 대안적 동아시아론을 이끌고 있는 창비의 동아시아론을 분석하고, 대표론자 중 하나인 백영서의 신작을 비평한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심현장’, ‘복합국가론’ 등의 개념을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8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삶의 형태	201408	정남희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

8	,	201408	정남희	제1	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발표 논문.-본 글은 기존 동아시아론을 개관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로 인해 동아시아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9	한·중·일 동아시아론과 한국 동아시아론의 과제	201410	정남희	제1	-제15회 동아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한·중·일 삼국의 동아시아론의 특성을 비교하고 한국 동아시아론의 과제를 제안한 글이다. 동북아 중심적 동아시아론에서 탈피하여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단위가 필요함을 역설한 글이다
10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정체성의 문제	201412	정남희	제1	-등재학술지 [[동아인문학]] 제29집 게재.-조르조 아감벤의 ‘정체성 없는 특이성’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의 동아시아론을 비평한 글이다. 기존의 동아시아론에는 정체성의 의도적 확립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동아시아론에는 사람들의 ‘특이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11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정체성의 문제	201503	정남희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



11	제	201503	정남희	제1	제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으로 인정되어 한·중·일 대학원생 학술대회 우수 논문집 [[東亞與世界]](제2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수록.-기존의 발표문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조르조 아감벤의 ‘특이성’ 개념을 차용하였다. 기존의 동아시아론이 ‘정체성’의 수립에 목적이 있었다면, 새로운 동아시아론은 ‘특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담론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12	이효석의 문학과 만주(국)-경쟁하고 규합하는 헤테로토피아	201503	정남희	제1	-中日韓意研究生論壇 2015 全球化時代東亞知識的遷移(제8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발표 논문.-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론을 이효석의 문학을 분석하는 틀로 삼아 이효석의 문학적 헤테로토피아와 만주국이라는 정치적 헤테로토피아가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규합하기도 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3	A social network framework to analyze the cultural contents of Kpop across countries	201406	박지영	제1	-EUSN(European Social Networks Conference) 국제 학술대회 발표 논문.-국가들 사이에 나타난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13	A social network framework to analyze the cultural contents of Kpop across countries	201406	박지영	제1	Kpop의 특징을 다룬 연구 논문이다. Kpop 콘텐츠의 특징을 유튜브(Youtube)를 통해 세계에 이름을 알린 싸이(PSY)의 강남스타일 비디오를 중심으로 연구한 의의 있는 논문이다
14	A Scientometric Analysis of East Asian Research in Korea, 2004-2013	201408	박지영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발표 논문. -동아시아학의 역사적 배경에는 동아시아지역의 역사적 변동성이 함께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학문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논의해왔다. 본 연구는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2천 년대 이후 동아시아학의 변화와 다학제적인 연구 활동의 특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5	An Exploratory Semantic Analysis in the Dynamics of PublicOpinion on Facebook : A Case of the Superintendent of SeoulOffice of Education in South Korea	201412	박지영	제1	-DISC(Daegu Kyungboo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당해 학기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문화 연구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도 서울교육감 선거를

15	An Exploratory Semantic Analysis in the Dynamics of PublicOpinion on Facebook : A Case of the Superintendent of SeoulOffice of Education in South Korea	201412	박지영	제1	둘러싸고 페이스북에 나타난 메시지를 분석하였으며, 선거 기간에 따라 메시지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6	International networks in Eastern Asia Studies as reflected in multinational papers indexed in SSCI and A&HCI	201503	박지영	제1	-中日韓意研究生論壇 2015 全球化時代東亞知識的遷移(제8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발표 논문.-동아시아학을 다루는 국제 저널(A&HCI, SSCI)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대표적인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연구 협력 특성과 연구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17	동아시아학 지적 구조의 계량적 분석	201503	박지영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으로 인정되어 한·중·일 대학원생 학술대회 우수 논문집 [[東亞與世界]](제2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수록.-본 연구는 동아시아학 연구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학문의 동향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정성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이

17	동아시아학 지적 구조의 계량적 분석	201503	박지영	제1	<p>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한국에서 출판된 동아시아학 관련 논문들의 연구 동향과 인용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학문이 동아시아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최근 생활과학과 관련된 분야가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학의 세분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달라진 사회 환경 속에서 앞으로 동아시아학의 방향을 살피는데 기여하였다.</p>
18	Network Analysis of East Asian Research in South Korea for the 2004-2013 Period	201503	박지영	제1	<p>- 등재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제11집 게재.- 여러 학문의 학제성을 띄는 동아시아학의 국내 협력 연구 행태를 분석하였다. 약 10년간의 논문 출판 정보를 계량정보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관련 연구 및 연구기관은 늘어났지만 주요 참여 기관은 소수였으며 협력 연구보다는 단독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학문적으로는 역사와 한국어 분야가 해당 학문을 이끌고 있었다.</p>

19	<p>의미망 분석을 통한 페이스북 대중여론의 역동성 분석: 서울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p>	201506	박지영	제1	<p>-등재학술지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1집 게재.-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을 둘러싼 페이스북 여론을 분석하였다. 페이스북을 통한 여론형성의 특성과 함께 선거기간에 따라 주요 후보자들을 둘러싼 이슈 네트워크의 형태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언어적 의사소통과 표현행위를 계량적으로 측정된 연구로서 웹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실시간 선거캠페인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p>
20	<p>Examining Triple Helix Structure in East Asian Literature: Publications Indexed in 2013 SSCI and A&amp;HCI</p>	201508	박지영	제1	<p>-[XIII Triple Helix International Conference 2015]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 개최)-학계-산업계-정부 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트리플 헬릭스 이론을 도입하여 SSCI와 A&amp;HCI에 나타난 동아시아학의 국제적인 공저관계를 살펴보았다. 학계-산업계, 산업계-기관 등 2자 관계에서 나아가 3자 관계 사이에</p>

20	Examining Triple Helix Structure in East Asian Literature: Publications Indexed in 2013 SSCI and A&HCI	201508	박지영	제1	서 나타난 상호성을 분석한 결과 세 기관 사이에는 상호적인 관계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도적인 연구 기관은 미국, 영국에 위치하였으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논문 출판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들 국가 사이의 공저 관계 및 상호적인 연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글로벌 영역에서 동아시아학의 위치와 국가간 논지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21	近代東亞女性意識變化：以朝鮮和中國的斷發女性爲中心	201408	장아름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발표 논문.-근대 조선과 중국의 신문이나 잡지,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여성의 단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비교하였다. 두발이라는 의형적인 요소를 통해 양국의 여성을 비교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둘 수 있겠다
22	Twitter network analysis of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F) 2014: Is the BIFF really	201412	장아름	제1	-DISC(Daegu Kyungboo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우리나라를

22	getting global?	201412	장아름	제1	대표하는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관심도를 트위터를 통해 살핀 연구로, 주제 선정이 신선하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의 활용 사례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3	第19屆釜山國際電影節話題分析	201503	장아름	제1	-中日韓意研究生論壇 2015 全球化時代東亞知識的遷移(제8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발표 논문.-한국의 가장 큰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뉴스, 블로그, 카페에서 언급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의 시각화를 시도함으로써, 성향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24	조선과 중국의 단발(斷髮)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201503	장아름	제1	-한·중·일 대학원생 학술대회 우수 논문집 [[東亞與世界]](제2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수록.-근대 조선과 중국의 신문이나 잡지,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여성의 단발에 대한 인식변화를 비교하였다. 두발이라는 외형적인 요소를 통해 양국의

24	조선과 중국의 단발(斷髮)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201503	장아름	제1	여성을 비교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5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한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분석	201504	장아름	제1	-등재학술지 [[한국자료분석학회지]] 게재.-트위터의 부산국제영화제(BIFF)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로 주제선정이 신선하다. SNS의 기술적 발전과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연구로서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6	韓國華僑的定居和移民	201408	정혜윤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발표 논문.-한국 화교의 정착과 그들이 이민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의의를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는 논문이다
27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事件—志賀直哉震災見舞いを中心に—	201408	최선아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발표 논문.-이 연구는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대지진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일본의 다이쇼시기 문학을 통해 당시 조선인의 삶을 살펴봐왔다. 특히 일본의 유명 작가인 시가 나오야의 [[震災見舞い]]를 통해 인간의 이중



27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事件—志賀直哉震災見舞いを中心に—	201408	최선아	제1	적 심리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도 쉽게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문학을 통해 당시 일본지식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8	韓國の高校日本語教科書にみられる日本「文化」とその變遷-第7次、2007、2009改正教育課程を中心に-	201503	최선아	제1	-中日韓意研究生論壇 2015 全球化時代東亞知識的遷移(제8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일본어 교육에서 문화영역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특히 제7차에서 최근 2007, 2009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문화교육을 통해 좀 더 현지 일본인이 사용하는 일본어에 가까운 교육을 호소하며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9	中日戰爭期 汪精衛의 和平運動에 대한 식민지 朝鮮의 認識	201408	정호윤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발표 논문.-이 연구는 중일전쟁기 왕정위의 화평운동에 대한 당시 식민지 조선의 언론, 문학에서 나타난 인식과 변화과정을 살펴본 논문이다. 왕정위의 화평운동에 대한 식민지 조선의 인식에 대한 기존연구가 없

29	中日戰爭期 汪精衛의 和平運動에 대한 식민지 朝鮮의 認識	201408	정호윤	제1	있던 점과 당시 조선에서의 반응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들 수 있다.
30	대동아공영권 속 滿洲國과 汪精衛 남경정부-왕정위, 주불해의 만주국 방문, 1942~1943-	201503	정호윤	제1	-中日韓意研究生論壇 2015 全球化時代東亞知識的遷移(제8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 연구는 1942~1943에 순차적으로 만주국을 방문한 왕정위와 주불해에 대한 만주국의 언론인 성경시보에 나타난 반응을 통해 당시 만주국이 왕정위의 남경정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본 논문이다. 이를 통해 만주국이 왕정위와 주불해를 통해 대동아공영권에서의 위치를 우위에 두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들 수 있다
31	中日戰爭期 汪精衛와 식민지 朝鮮(人)	201503	정호윤	제1	-한·중·일 대학원생 학술대회 우수 논문집 [[東亞與世界]](제2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수록.-중일전쟁기 왕정위의 화평운동에 대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언론, 문학에 나타난 인식과 변화과정을 살펴본 논문이다. 왕정위의 화평운동에 대한 당시 조선에서의 반응을 알 수 있다는 점

31	中日戰爭期 汪精衛와 식민지 朝鮮 (人)	201503	정호윤	제1	에서 의미를 들 수 있다
32	11世紀における 東女眞海賊の動向	201408	이종협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발표 논문.-본 연구는 11세기 동해에서 활동했던 동여진 해적의 활동을 소개하고 그 정황을 살펴본 논문이다. 이를 통해 당대 동해에서의 해상 활동을 조금이나마 규명할 수 있었다
33	경산, 동아시아를 만나다	201408	강병순	제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발표 논문.-본 연구는 2014년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 출범한 새로운 도시문화교류인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필두로 지금까지 있었던 한·중·일의 주요 도시문화교류를 살펴본 논문이다. 더불어 소도시 경산의 국제교류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되는, 특히 수도가 아니라 지방이 직접 국제화의 중심이 되는 (glocal) 도시문화교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34	A study on the exchange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East Asia.	201412	강병순	제1	-DISC(Daegu Kyungboo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국제 학술대회 발표 논문.-본 연구는 미래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의 관계에 큰 역할을 담당할 대학생 교류에 대해 제안한 논문이다. 다양한 계층이 중심역할을 하는 국제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35	ネットワーク分析による日中韓の國際交流に關する考察	201503	강병순	제1	-中日韓意研究生論壇 2015 全球化時代東亞知識的遷移(제8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발표 논문.-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가 동아시아 국제교류에 대해 가진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빅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인문학 연구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36	東亞西亞文化之大數據時代前的覺醒	201503	왕충성	제1	-中日韓意研究生論壇 2015 全球化時代東亞知識的遷移(제8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

36	東亞西亞文化之 大數據時代前的覺 醒	201503	왕충성	제1	대회) 발표 논문.-빅데이터는 미래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문화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의학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심지어 정치문제도 분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빅데이터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과 필요한 인재 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빅데이터의 지식은 지금 우리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여러 가지 의미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37	Social network analysis of South Korea national basketball team: Spain basketball World Cup in 2014	201412	손혜남, 왕충성	제1	-DISC(Daegu Kyungboo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국가대표 농구경기를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통해 분석한 논문이다. 사회네트워크분석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농구, 축

37	Social network analysis of South Korea national basketball team: Spain basketball World Cup in 2014	201412	손혜남, 왕충성	제1	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국가대표 농구경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논문이다.
38	中韓文化比較	201503	손혜남	제1	-中日韓意研究生論壇 2015 全球化時代東亞知識的遷移(제8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발표 논문.-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한자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나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국 문화 속의 예의 문화를 주요 연구 내용으로 삼아 양국 예절 문화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④ 참여교수 지도학생의 해당분야 역량제고 계획의 우수성

1. 학사운영의 내실화

1) 엄격한 학점관리 제도 시행

학사관리의 엄격성을 위해 학점 상대평가 실시 고려 및 내규 마련 추진

2) 철저한 출결관리, 발표 확인, 과제물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화된 성적 평가

① 2014년 6월 말 대학원 리포트 발표회(장소: 인문관 302호)

② 2015년 6월 23일 대학원 리포트 발표회(장소: 인문관 302호)

3) 대학원 강의평가제도를 시행하여 피드백함으로써 강의의 질제고

예시) 2015년 1학기부터 시작된 대학원 강의 평가 ([참고 13] 참여교수 A의 강의 평가)

4) 특강 추천제의 도입

교과목 이외에 학생들이 원하는 실무 과목이나 특정 주제의 강의 실시

① 지역문화의 콘텐츠화 개발을 위한 외부강사의 초빙 강의  
윤애숙, [동아시아문화콘텐츠이론](2014년도 2학기)  
서성희, [동아시아대중문화](2015년도 1학기)

② 외부 전문 프로그램을 수업에 도입  
참여교수 B, [동아시아사회 관계망 세미나]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전략센터의 빅데이터 교육실습 과정 도입  
(2015년도 2학기)

③ 교육내용과 콘텐츠개발의 결합을 위해 전문가 초빙 특강  
김경달, [융합시대, 문화콘텐츠와 플랫폼의 변화-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20140331)  
윤애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학의 융합을 위한 과제-인문콘텐츠의 이해와 개발론을 중심으로](20140425)  
김남일,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20140530)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보는 의미](20140926)  
세리카와 테즈요(芹川哲世), [어느 일본 작가들의 문학적 반란](20150427)  
송혜영, [나폴레옹의 프로파간다 미술](20150528)  
이지선, [베트남 남부 화인 사회의 형성](20150605)

④ 문화콘텐츠개발을 위한 전문가 초빙 특강(2014년도 2학기 교과목 [스토리텔링제작실습] 관련 특강)  
백승운,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20141031)  
류은영, [방송과 스토리텔링](20141107)  
김준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사업](20141114)  
김혁, [테마파크 스토리텔링](20141128)

2. 학위수여제도의 체계화와 간략화-복수학위제와 관련된 규정 적용

- 1) 대학원 의무적 규정에 대한 엄격한 시행
- 2) 학과의 자율성 확대함으로써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학위수여기준 마련에 기여
- 3) 특히 간사이대학과의 복수학위제를 위해 관련된 제 규정을 마련하여 실제적으로 적용

예시) <간사이(關西)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외국어교육학연구과, 동아시아문화연구과와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간의 학위취득에 관한 협정서>

- ① (명 칭)  
간사이(關西)대학 · 영남대학교 복수학위(Dual Degree) 프로그램
- ② (유학처)  
갑: 관서대학교 센리야마 캠퍼스                      을: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 ③ (정 원)  
매년 약간 명
- ④ (유학 기간)  
유학기간은 2학기(1년간)으로 한다.
- ⑤ (수료 학점 수)  
갑의 수료 소요학점 32학점(그 중 을의 학점은 10학점까지 인정)  
을의 수료 소요학점 31학점(그 중 갑의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  
또한 취득해야 하는 과목과 그 학점수의 내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 취급요령에 의거한다.
- ⑥ (학위의 수여)

⑤에서 정한 각 연구과의 학점을 취득하고, 석사논문심사 등 각각의 연구과가 정한 시험에 합격하면, 갑은 석사(문학), 석사(외국어교육학), 또는 석사(문화교섭학)을, 을은 동아시아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⑦ (응모자격 및 선발)

응모자격 및 선발은 갑, 을 각각의 연구과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각각 유학생의 성과 이름을 보고한다.

⑧ (학비)

본 프로그램 참가자는, 각각의 대학의 대학규정 등에 따라서 학비는 소속한 대학에 납입하고, 과건대학 쪽의 학비는 면제한다.

⑨ (연락담당자)

양 대학은 당 협정을 추진할 연락담당자를 각각 정한다.

⑩ (협정의 폐지, 수정)

본 협정의 폐지에 관해서는 폐지 2년 전까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정에 관해서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시로 가능하다. 다만 간사이(關西)대학과 영남대학교 간의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협정이 폐지되면 본 협정도 폐지한다. 그 경우 폐지하기까지의 기간 중 유학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협정폐지와 관계없이 ④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유학을 보증한다.

⑪ (시작 시기)

갑과 을 모두 2014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⑫ (본 협정서)

본 협정서는 일본어 및 한국어로 2부씩 작성하며, 갑과 을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를 갑을 쌍방이 보관한다.

4) 학위수여제도 절차 ([참고 14] 학위수여제도 간소화를 위한 학과자율 사항 확대 계획)

① 지도교수 선정

② 외국어 시험 → 박사과정은 제2외국어 시험(학과 자율 사항)

③ 종합시험 → 연구계획서 제출(학위청구논문 제출 최소 석사 6개월, 박사 1년 전)

④ 학위 청구 논문 제출

⑤ 논문 심사위원 구성

⑥ 논문 공개 발표

⑦ 최종 학위논문 제출

⑧ 박사학위 논문의 공포

3. 대학원논문표절검사시스템도입

1) 활용 목적

대학원생 학위논문에 대하여 표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의식강화, 논문의 표절 사전 예방기능 강화, 학생 및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문화 함양을 목적으로 함

2)대상 논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전체, BK21플러스 사업 관련 논문 전체

3)운영효율화를 위한 교육 실시

[표절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용교육 적극 실시

4) 표절 검사 시스템의 예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www.kci.go.kr](http://www.kci.go.kr)

논문표절예방 Turnitin: <http://www.turnitin.com/ko/home>

4. 정기적인 대학원생논문 발표 유도를 통한 연구력 향상



1) 1단계(2015~2016)

석사: 국내외 학술 대회 1편 이상 논문 발표 혹은 등재학술지 게재

박사: 국내외 학술대회 2편 이상 논문 발표와 등재학술지 게재(국제저널 포함)

2) 2단계(2017~2018)

석사: 국내외 학술 대회 1편 이상 논문 발표 혹은 등재학술지 게재

박사: 국내외 학술대회 2편 이상 논문 발표와 등재학술지 게재(국제저널 포함)

3) 3단계(2019~2020)

석사: 국내외 학술 대회 1편 이상 논문 발표 혹은 등재학술지 게재

박사: 국내외 학술대회 2편 이상 논문 발표와 등재학술지 게재(국제저널 포함)

- 대학원 수업, 리포트 발표, 연구,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학술지 게재 및 출판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

- 구체적으로 기존 진행해오고 있는 동아시아 대학원학술대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문화학과 대학원생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교와 간사이대학교와 공동으로 간행하는 대학원 논문집(<<東亞與世界>>)에 게재 출판함

- 매 학기마다 학기말 리포트에 대한 공동 발표를 실시하고 리포트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학점 관리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예정된 학술대회 발표를 사전에 준비함

- 학술대회에서 발표뿐만 아니라 사회자, 토론자로 참여시킴으로써 회의 주관 및 토론 능력을 함양시키고 논문 작성에 피드백시킴

5. 논문 발표 및 게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1) 논문 인센티브제

- 등재학술지(후보) 이상 잡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자에게 장학금을 우선 배정하고 인센티브를 누진적으로 적용해 제공

- 국내외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할 경우 필요 경비를 제공

예시) 장학금 인센티브 제공 예:

- ① 박사과정 신미삼(201408 논문 게재)
- ② 박사과정 정남희(201412 논문 게재)
- ③ 박사과정 박지영(201502, 201503, 201504, 201506 논문 게재)
- ④ 석사과정 장아름(201504 논문 게재)

2)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 추진

대학원생과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개별연구학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 또는 등재학술지(후보)에 게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

예시) 공동연구 발표 예

① 신미삼, 참여교수 E, < ‘만주’ 를 배경으로 한 이석훈의 이중어소설과 만주에서의 행적>,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2014. 8.

② 정남희, 참여교수 E,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정체성의 문제>, <<동아인문학>> 제29집, 동아인문학회, 2014. 12.

③ Weiai Wayne Xu, 박지영, 참여교수 B, <The networked cultural diffusion of Korean wave>, <<Online Information Review>>, Vol. 39 Iss 1, 2015. 2.

④ 박지영, 참여교수 B, <Network Analysis of East Asian Research in South Korea for the 2004-2013 Period>,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2015. 3.

⑤ 장아름, 박지영, 참여교수 B,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한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한국자료분석학회, 2015. 4.

⑥ 박지영, 참여교수 B, <의미망 분석을 통한 페이스북 대중여론의 역동성 분석: 서울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자료분석학회, 2015. 6.

### 3) 관련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참여와 활동 장려

인문과학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 사이버감성연구소 등 우리 사업단 공동연구원이 소장, 부소장을 맡고 있는 관련 연구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각종 학술행사에 참여 및 발표, 토론, 사회 등의 역할 수행

예시) 인문과학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제국과 경계’ (20150226)에 박사과정 신미삼, 정남희 토론자 참여

① 신미삼, <「제국의 프로파간다: 취미·감각·무의식」에 대한 토론문>

② 정남희, <「경계를 넘는 아이덴티티: 연결의 디아스포라에서 단절의 디아스포라로」 토론문>

## 6. 해외연수의 활성화

1) 방학을 이용한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실무적 능력을 고양시킴

2) 2016년 2월 겨울 방학을 이용해 베트남 연수 계획 추진.

① 사전 교육: 영남대 교양학부 이지선 교수의 강연 실시.([베트남 남부 화인 사회의 형성], 201506)

② 장소: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 홍방대학 등 검토 중

③ 일정: 3박 4일

④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베트남문화 단기연수 프로그램(예정)

1일차: 베트남 도착, 숙소 이동

2일차: 1. 특강 1 <베트남 역사>(10:00~12:00)

2. 특강 2 <베트남 신앙-종교: 전통과 현대>(14:00~16:00)

3일차: 3. 특강 3 <베트남의 시장 문화: 전통과 현대>(10:00~12:00)

4. 특강 4 <베트남의 전통 복장- ‘아오자이’의 역사>(14:00~16:00)

4일차: 역사 유적지 및 문화 탐방. 귀국

## 7.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1)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 게재를 연동시켜 게재를 의무화시킴

2) 참가경비 및 연수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규정 제정

3) 연수 지원 경비와 관련된 동아시아문화학과 내규(20150414)

① 대학원생(수료생 포함)은 개인적으로 해외 학회에서 발표할 경우 졸업 전 석사과정은 1회, 박사과정은 2회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지원 경비는 최대 250만 원으로 하며 인솔지도교수도 동일 수준의 지원을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진 등재지 이상 잡지에 해당 발표 논문을 실는 것으로 한다.

4) 국제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예:

① 박지영, 20140701~20140704 발표

학회명: EUSN(European Social Networks Conference) 국제학술대회

개최 장소: 스페인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② 박지영, 20150821~20150823 발표

학회명: XIII TRIPLE HELIX CONFERENCE 국제학술대회  
개최 장소: 중국 칭화대학교(beijing tsinghua university)

8. 동아시아문화학 관련 각종 프로그램 및 경진대회, 공모전 참가 유도 권장 지원

- 1) [제10회 디지털스토리텔링 컨퍼런스](20141031) 참가 권유
- 2) [2015 한·중·일 대학생 동아리 외교캠프](20150804~20150807) 참가 권유
- 3)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접수마감: 20150814) 참가 권유
- 4) [2015년 문화콘텐츠전문가양성 아카데미-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아카데미](20150803~20150910) 수강생 모집 참가 권유
- 5) [제2기 경북 스토리 클럽, 스토리기자단 모집](1차: 현~20150724, 2차: 201509~상시) 참가 권유

9. 인턴사원제 실시

- 1)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기간: 20150223~20150417 박사과정 정남희, 석사과정 정호윤)  
([참고 15] 정남희, 정호윤 인턴사원 수료증)
- 2)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기간: 2015. 7월. 석사과정 정혜윤, 장아름, 서보현)  
([참고 16] 정혜윤, 장아름, 서보현 인턴사원 수료증)

우리 사업단은 이상과 같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및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에 인턴사원을 파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꾸준히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처와 MOU를 체결하고 대학원생들을 인턴사원으로 파견할 것이다.

10.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2015년 경북 스토리텔링 아카데미](20150720~0824) 동아시아문화학과 대학원생(박사과정 정남희, 김태환, 석사과정 정호윤) 참여. ([참고 17] [2015년 경북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정남희, 김태환, 정호윤 수료증)

11. 국내외 유명 학자 및 현장 실무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실습

학과의 교과목이나 참여교수의 연구 분야 등이 포괄할 수 없는 이론적 혹은 실무적 부분에 대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실연, 공동 작업 등을 실시

예시)

- 국내외 유명 학자의 강연의 예

- 1) 魏崇新(北京外大), [外國留學生在中國的文化適應性調研](201408027)
- 2) 李雪濤(北京外大), [利瑪竇世界地圖及其思想史意義](201408027)
- 3) 中谷伸生(關西大), [マンガ・アニメーションと菅楯彦－東アジアの文化的傳統と現代－](20140827)
- 4) 沈國威(關西大), [近代の新語譯語と中國語の二字語化－日本語の影響作用を中心として－](20140827)
- 5) 内田慶市(關西大), [イソップ東漸－中國語イソップ翻譯史－](20140827)
- 6) 藤田高夫(關西大), [東アジアの木簡と書記文化](20140827)
- 7) 奥村佳代子(關西大), [漢譯忠臣藏[[海外奇談]]の關係者に關する一考察](20140827)
- 8) 篠原啓方(關西大), [東アジアの龜趺の受容と變容－中國・韓國・ベトナム・日本の例を手がかりに－](20140827)
- 9) 미야지마 히로시,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보는 의미](20140926)
- 10) 세리카와 테즈요, [어느 일본 작가들의 문학적 반란](20150427)
- 11) 송혜영, [나폴레옹의 프로파간다 미술](20150528)
- 12) 이지선, [베트남 남부 화인 사회의 형성](20150605)

- 현장 실무 전문가 초청 강연의 예

- 1) 김경달, [융합시대, 문화콘텐츠와 플랫폼의 변화-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20140331)
- 2) 윤애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학의 융합을 위한 과제-인문콘텐츠의 이해와 개발론을 중심으로](20140425)
- 3) 김남일,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20140530)
- 4) 백승운,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20141031)
- 5) 류은영, [방송과 스토리텔링](20141107)
- 6) 김준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사업](20141114)
- 7) 김혁, [테마파크 스토리텔링](20141128)

- 2015년 11월에는 중화민국 타이완국립대학의 황미아(黃美娥, 타이완문학연구소장) 교수 초청 예정

## 12. 밀착형 학생지도방식강화

- 1) 학생 경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학생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해 입학부터 취업까지 지도를 확대하며 개별 학생과의 멘토링 강화
- 2)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충과목 이수제의 실시
- 3) 대학원생의 고충을 듣고 해소하기 위한 지도교수와의 상시적인 상담 진행, 신규 학과의 정제적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진행

3.3 사업단의 공동 연구 및 창작물 실적(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표 17> 최근 2년간 공동 연구 및 창작물 실적 목록

연번	공동연구 및 창작물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및 창작물 내용	(창작물)연구기간 (YYYYMM-YYYYMM)	연구(창작)결과물(논문게재, 특허등록 등)
	사업단 참여교수	공동 참여자				
1	김양선	沈國威, 李雪濤	중국, 일본/대학	[[東亞與世界]](제1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1201	출판
2	손승희	沈國威, 李雪濤	중국, 일본/대학	[[東亞與世界]](제2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0301	출판
3	손승희	동아시아문화학과 대학원생	경산시청	동행의 인문학 : 청년인문도시경산 만들기 프로젝트(경산시립박물관, 영남대박물관, 경산시와 함께 인문학 관련 강의, 전시, 체험 프로그램 진행)	20150901-20180831	연구과제 추진
4	사업단 참여교수	동아시아문화학과 대학원생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경상북도 국제비즈니스과 중국어권 전유진 담당자	글로벌리즘: 대구·경북과 동아시아(대구·경북과 동아시아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소통, 변형의 장을 역사적으로 검토)	20150901-	연구과제 추진
5	박한우	박지영(제1저자)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Network Analysis of East Asian Research in South Korea for the 2004-2013 Period	201503	등재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제 11집 게재 논문
6	손승희	박지영(주저자)	중국, 일본/대학	동아시아학 지적구조의 계량적 분석	201503	[[東亞與世界]](제2집, 상동) 수록 논문

7	박한우	박지영(제1저자)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의미망 분석을 통한 페이스북 대중여론의 역동성 분석: 서울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201506	등재학술지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1집 게재 논문
8	손승희	장아름(주저자)	중국, 일본/대학	조선과 중국의 단발(斷髮)여성 에 대한 인식 변화	201503	[[東亞與世界]](제2집, 상동) 수록 논문
9	박한우	장아름(제1저자), 박지영(제2저자)	한국자료분석학회지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국제영화제(BIFF)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분석	201504	등재학술지 [[한국자료분석학회지]] 게재 논문
10	손승희	정호윤(주저자)	중국, 일본/대학	中日戰爭期 汪精衛와 식민지 朝鮮(人)	201503	[[東亞與世界]](제2집, 상동) 수록 논문
11	김양선	신미삼(주저자)	중국, 일본/대학	이석훈(李石薰)의 이중어 소설 연구 -1929~1932년도 작품을 중심으로-	201312	[[東亞與世界]](제1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수록 논문
12	노상래	신미삼(제1저자)	韓民族語文學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과 만주에서의 행적	201408	등재학술지 [[韓民族語文學]]에 게재 논문
13	손승희	신미삼(주저자)	중국, 일본/대학	일제강점기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 연구	201503	[[東亞與世界]](제2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수록 논문
14	노상래	정남희(제1저자)	동아인문학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정체성의 문제	201412	등재학술지 [[동아인문학]] 제29집 게재 논문
15	손승희	정남희(제1저자)	중국, 일본/대학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정체성의 문제	201503	[[東亞與世界]](제2집, 상동) 수록 논문
16	손승희	정호윤(주저자)	중국, 일본/대학	中日戰爭期 汪精衛와 식민지 朝鮮(人)	201503	[[東亞與世界]](제2집, 상동) 수록 논문

공동 연구 및 창작물 실적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자유롭게 기술

글로벌리즘을 이론적 바탕으로 두고 있는 우리 사업단은 경상북도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국가 중심의 시각을 벗어나 ‘지역의 시각’, ‘주변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사업단은 동아시아 지역 간의 중층적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진정한 세계화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 사업단은 다양한 공동 연구 및 창작물을 출판하였다. 우선, 한·중·일 우수 대학과 국제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동아시아 학술대회 우수 논문집 <<東亞與世界>>(제1집)(2013)를 출판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우리 사업단 소속 학생의 논문 한 편도 포함되어 있다.(신미삼, <이석훈(李石薰)의 이중어 소설 연구-1929~1932년도 작품을 중심으로->) 그리고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에서 발표한 논문들 중 우수한 논문으로 인정된 논문은 <<東亞與世界>>(제2집)에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우리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의 논문이 모두 5편 수록되었다.

- ① 신미삼, <일제강점기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 연구>
- ② 정남희,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정체성의 문제>
- ③ 박지영, <동아시아학 지적구조의 계량적 분석>
- ④ 장아름, <조선과 중국의 단발(斷髮)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 ⑤ 정호윤, <中日戰爭期 汪精衛와 식민지 朝鮮(人)>

<<東亞與世界>>는 우리 사업단 소속 교수가 2명이나 참가하여 중국과 일본 대학의 교수와 공동으로 편집 및 출판한 논문집이다. 구체적으로 제1편은 참여교수 F가, 제2편은 A 교수가 담당하였는데, 특히 제2편은 우리 사업단이 주도적으로 편집 및 출판에 참여하였다.

사업단 차원의 공동연구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우리 사업단의 교수와 대학원생은 2014년 5월 [동행의 인문학: 청년인문도시 경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경산시청, 경산시립박물관, 영남대박물관, 삼성현역사박물관 및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협력하여 경북 경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 전시, 체험 공간을 활용한 인문학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더불어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참고 18] 동행의 인문학: 청년인문도시 경산 만들기 프로젝트 제안서)

또한 현재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은 경상북도와 더불어 [글로벌리즘: 대구·경북과 동아시아]란 연구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연구 과제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하되 동아시아를 단위로 사고하여, 대구·경북과 동아시아 지역 간의 문화의 상호 교류, 소통, 변형의 장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확립에는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사고 단위가 요구되기에, 이는 우리 사업단의 궁극적 사업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19] 글로벌리즘: 대구·경북과 동아시아 제안서)

앞으로도 우리 사업단은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를 지속적인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발표된 연구 성과물은 <<東亞與世界>>에 수록할 것이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 연구 논문의 발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 연구는 자칫 개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원생의 논문 연구를 미연에 방지하고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이라는 우리 사업단의 공동 연구 테마를 향해 질 높은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 공동 연구를 위해서 지도교수는 1:1 교육 방법을 적용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공동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4 창의적 교육과정 구성 운영

### 4.1 교육 목표 및 비전의 실현 가능성

우리 사업단은 우리 대학의 ‘YU the Future, 미래를 만드는 대학’이라는 비전과 ‘세계 수준의 지역거점 사립대학’이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또한 이러한 비전과 목표 아래서 수립된 우리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전략인 ‘지역거점화’, ‘융복합화’, ‘세계화’도 공유한다. 현재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공생 발전을 추구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밀착형, 현장밀착형 연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창의적·통섭적 지식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업단과 관련된 대학원 차원의 계획은 CVC(Culture Value Creation) Plan으로 문화 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사업단은 이러한 대학의 방향성과 21세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2014년 3월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동아시아 문화학과를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신설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것은 융복합화라는 시대정신과 학교의 교육전략에 따른 것으로 전통적인 학문체계가 가진 분과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리 사업단에는 언어·역사·문학·문화·철학·언론 등 다양한 학과의 우수한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분과학문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 단위로서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의 사업목표는 새로운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구축하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동아시아상을 인문학적으로 구상하며 그것을 현실에 적용, 대중화할 수 있는 전문인재(‘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로 유기적 관련성을 지닌 일차적 과제를 설정한다. 첫째,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정의와 내용 및 특성과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정립된 이론적 틀과 성과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고, 창조성을 고무시키는 현장체험교육을 강화함을 통해 진취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셋째,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대중적 소통능력, 역사문화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능력을 갖춘 실용적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우리 사업단은 이론과 실무의 두 트랙 교육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기존의 분과학문의 틀을 깬 새로운 교과목을 설계하여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이라는 비전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와 스토리텔링이론], [동아시아사회관계망세미나], [동아시아와 영남의 교류사] 등과 같은 교과목은 이전의 분과학문 체계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학과에서만 실현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교과목의 창의적 구상·설계와 더불어 우리 사업단은 현장밀착형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진행되는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 특강 활동을 발전시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등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다. 또한 [윤글로보문화콘텐츠연구소], [영화와 소통하기] 등의 대표에게 실습형 강의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기존 교수진이 할 수 없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원생들을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과 같은 기관에 인턴사원으로 파견하여 현장성을 최대한으로 교육과정에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업단은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원)과 일본 간사이대학(원)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국제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학(원)이 지향하는 세계화 전략과 이어져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3개교가 국제학술대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간사이대학의 경우 우리 사업단과 공동학위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현재 3명의 석사과정생이 상호 파견되어 있다. 베이징외국어대학과도 이러한 공동학위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최종적으로는 1+1+1의 3개교 공동학위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과에는 외국인 유학생 6명(파견학생 1명 포함)이 재학 중으로 학과 구성원 자체도 국제성을 띠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교육은 현재 우리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국제화 작업의 하나이며, 우리 학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이들과 내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학과의 국제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사업단은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이란 이론에 실무성, 국제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동아시아 대학 네트워크와 산업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상호이해와 호혜적 교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 4.2 특성화된 융·복합 교육과정 구성 운영 실적 및 계획

### 1. 특성화된 융·복합 교육과정

동아시아문화학과의 교과과정은 (1) ‘이론능력’ 과 (2) ‘응용’ 의 융·복합적 구성으로 운영된다. 특히 우리 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역사문화의 상품화라는 실무역량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만큼 ‘이론능력’ 함양 단계에서는 이론과 언어 능력 강화 등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켜 구체적인 산업현장과 실무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론능력함양 단계에서의 ‘기초공통’ 과목은 ‘글로벌 인재’가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으로서 글로벌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 어·문학, 철학적 이해와 시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공’ 과목은 전공분야와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 ‘응용’ 과목에서는 실용 과목과 실습 및 특강 과목을 개설하여 이론능력함양 단계를 통해 함양된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 적 소양을 역사문화의 상품화로 가공시키고 이로써 지식 기반의 미래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1) 이론능력 함양 단계

역사문화의 상품화라는 실무역량의 바탕에 두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켜 산업현장과 실무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론과 언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론능력 함양 단계에서의 교육목적이다.

##### ① 기초공통 과목

기초 공통과목은 우리 사업단의 목표인 ‘글로벌 인재’가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으로서의 글로벌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 어·문학, 철학적 이해와 시각을 명확하기 위한 목표에서 만들어졌다.

[동아시아 문학 자료 연구(Study of document in East Asian Literature)]

: 한·중·일 삼국의 문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텍스트를 연구하고 분석한다. 특히 삼국의 문학적 갈래와 교섭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동아시아와 중국문화(East Asia and Chinese Culture)]

: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문화적으로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문화의 특성과 본질을 분석해 보고,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특성 및 상호교류 현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해본다.

[동아시아와 일본문화(East Asia and Japanese Culture)]

: 동아시아 중 특히 일본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특성 및 상호교류 현상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동아시아 역사 자료 연구(Study of document in East Asian History)]

: 한·중·일 삼국의 역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텍스트를 연구하고 분석한다. 특히 삼국에 얽혀 있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 대해 살핍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의 지렛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동아시아담론의 계보(Colony Literature in East Asia)]

: 근대 서양에서 제기된 오리엔탈리즘에서부터 현재 동아시아 각국에서 제기된 동아시아론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특징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동아시아상을 이론적으로 구상한다.

[동아시아학을 위한 계량적 조사·방법론(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 East Asian Studies)]

: 본 강좌의 목적은 동아시아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전문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현상을 계량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다.

##### ② 전공 과목

전공분야와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졌다.

[동아시아 식민지문학(Colony Literature in East Asia)]

: 근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조선, 만주국, 중국, 대만 등의 국가에서 식민지 체험을 하게 되며, 그 체험이 다양하게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식민지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시선의 차이를 읽어내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이다.

[동아시아근대문학사(History of Modern Literature in East Asia)]

: 동아시아 근대문학의 친연성과 이질성을 살펴 동아시아 근대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문학텍스트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의 근대화 과정의 공통분모와 격차들을 동시에 확인한다.

[동아시아문화특강(Special Lecture on Cultures in East Asia)]

: 동아시아 삼국, 한중일의 문화에 대하여 동아시아적 시각에 근거하여 상호의 동질성과 이질성 및 상호 교류 상황을 규명하여 그 시대적 의미를 고찰해 본다.

[동아시아문학교류(Exchang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 한국 고전문학, 특히 한문학은 중국문학과 교류, 영향과 수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문학과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한중양국의 문학교류 상황을 다루어보고, 더 나아가 한일과 중일의 문학 교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동아시아고전의 이해(Understanding Classical texts of East Asia)]

: 한문은 동아시아의 기본적 세계관과 그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월남 등에서 한문으로 쓰인 동아시아의 고전을 선별 강독하여 동아시아 고대의 사상세계를 이해하면서, 한문 원전의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동아시아와 번역학(East Asia and Translation Studies)]

: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번역을 매개로 하여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번역학의 이론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 텍스트 번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양상을 다각적으로 파악한다. 전문 번역자로서의 이론적 기틀을 확립한다.

[일본의 문화교섭(Cultural Interaction of Japan)]

: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화를 도입한 일본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력은 상당하다. 따라서 근대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시작된 문화수용 및 전파과정을 분야별(언어/교육, 문학/예술, 사회/생활 등)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해소에 대한 창의적 시각을 확립한다.

[동아시아사료론(History Materials for East Asia)]

: 동아시아 역사와 관련된 1차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역사적 실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며 한문·중국어·일본어·영어에 대한 독해 능력을 증진시킨다.

[동아시아비교사(Historic Approaches to the Comparative Studies in East Asia)]

: 동아시아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비교를 통한 각국의 인식 심화와 함께 바람직한 지향으로서의 동아시아를 구상한다.

[동아시아 속의 만주(Manchuria in East Asia)]

: 만주의 성립과 변천의 역사를 일국사와 민족주의 관점을 뛰어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살펴본다. 만주로의 이주와 정착 과정이 발생하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갈등과 융합을 다각적인 시각 속에서 이해한다.

[글로벌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개(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Eastern Asia History)]

: 지역 중심의 동아시아론을 검토한 뒤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그 역사적 실체를 실질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을 극복하고 글로벌 동아시아상을 주체적으로 모색한다.

[동아시아 사회관계망 세미나(A Seminar on Social Networks in East Asia)]

: 이 강좌는 동아시아 사회에 내재된 사회적 연결망의 특징과 의미에 대한 세미나이다. 이 수업에서 수강생들은 동양과 서양의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부에서 나타난 인간교류의 다양성에 대해 토론한다.

[동아시아 비교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론(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ory in East Asian Studies)]

: 이 수업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현상을 여러 이론적 시각에서 조망한다. 특히 이 강좌는 비교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토대로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지형도를 고찰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in East Asia)]

: 한국과 동아시아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문화적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대안적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동아시아대중문화(Pop-culture in East Asia)]

: 현대 동아시아 각국의 대중문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추적해 보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서로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해 본다.

[동아시아한자비교연구(Studies on Sinography in East Asia)]

: 동아시아 삼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국의 한자는 한자의 기본 구성요소인 形·音·義에서 동질적인 부

분과 이질적인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동아시아 삼국의 한자 자료들을 고찰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동아시아 애니메이션 특강(Special Lectures on Animation in East Asia)]

: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분석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동아시아 지역문화 통번역(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n Local Culture in East Asia)]

: 통번역 작업을 통해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문화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며 공유한다. 국제회의,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능력을 배양한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The Conflict and the Reconciliation of the East Asia)]

: 갈등과 대립의 동아시아 역사를 영토분쟁, 전쟁 등을 통해 확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분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각국의 역사인식 및 역사교과서 분석은 이 경우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이로써 21세기 비판적 대안적 동아시아인의 역사 인식을 새롭게 모색하며 그 자질을 높인다.

[동아시아 디지털정보학 세미나(Information Science Seminar on East Asian Region)]

: 이 세미나의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교환, 유통,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토론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디지털화된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과 사회문화적 쟁점에 대해서 학습한다.

## (2) 응용 과목

### ① 실용 과목

[동아시아와 스토리텔링 이론(Storytelling Theory and East Asian)]

: 스토리텔링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는데,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만화·게임·광고 등의 원천적인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은 현대 조직 사회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양상들에 대해 알아본다.

[동아시아문화콘텐츠 분석과 제작(The Analysis and the Production of the East Asian Cultural Contents in East Asia)]

: 동아시아 지역의 고전적인 문화콘텐츠와 현재 가공 유통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문화콘텐츠의 내용과 구조를 전망한다. 아울러 글로벌 동아시아학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망되는 문화콘텐츠의 내용을 확보한다.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이론(Cultural Contents Theory in East Asia)]

: 이 강좌는 문화콘텐츠의 기초적 개념부터 심화된 이론까지 다룬다.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여러 유형의 콘텐츠별 활용 사례를 토론한다.

### ② 실습 및 특강 과목

[스토리텔링 제작 실습(Storytelling Planning)]

: '스토리(story)+텔링(telling)'의 합성어가 스토리텔링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 걸쳐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즉 이야기 만들기와 이야기하기를 실습한다.

[동아시아역사문화해설(History and Culture Interpretation in East Asia)]

: 동아시아 역사문화 유적지에 얽힌 역사적, 문화적 기록들을 수집, 재정리하여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식으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제작하고 실습한다.

[동아시아 다문화사회 현장 실습(Research and Practice on East Asian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 한국 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경험하게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함양하며, 나아가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문화를 모색케 한다.

## 2. 특성화된 융·복합 교육과정 구성 운영 실적

## 1) 동아시아문화학과 개설 교과목

2014. 1학기: 동아시아담론의계보(기초공통)  
2014. 1학기: 동아시아식민지문학(전공)  
2014. 1학기: 동아시아고전의이해(전공)
2014. 2학기: 동아시아속의만주(전공)  
2014. 2학기: 동아시아와번역학(전공)  
2014. 2학기: 동아시아학을위한계량적조사·방법론(기초공통)  
2014. 2학기: 동아시아문화콘텐츠이론(전공)  
2014. 2학기: 동아시아문학교류(전공)  
2014. 2학기: 스토리텔링제작실습(전공)
2015. 1학기: 빅데이터와문화콘텐츠(전공)  
2015. 1학기: 동아시아와영남의교류사(전공)  
2015. 1학기: 동아시아대중문화(전공)  
2015. 1학기: 일본의문화교섭(전공)  
2015. 1학기: 동아시아문화특강(전공)

## 2) 융·복합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실적의 전략 및 방법

우리 사업단에서는 동아시아문화학과와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질적 노력과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선 우리 학과의 교육목표를 실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우수한 실력의 대학원생을 확보한다. 국내 학생의 경우, 언어적 측면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적어도 한 언어가 능수능란한 학생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인 학생 중 토익 5-6급 이상의 한국어가 능란한 학생도 선발한다. 외국 학생의 경우에는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를 위해 중국의 우수한 대학에 우리 학과를 알리도록 적극 애쓰고 있으며, 그 결과 2015년 2학기에는 중국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인 화중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이 우리 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다. 앞으로 외국 우수 대학에 우리 학과를 알리며 더불어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사업은 베트남 호치민국립대, 중화민국 타이완국립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 학과의 학위 과정은 일반학위제와 해외공동/복수학위제(2교 공동학위과정과 3교 공동학위과정)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선 2015년 2월 일본 간사이 지방의 최고 사립 명문인 간사이대학과 공동/복수학위제 협정을 맺어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2015년 3월에는 우리 학과 석사과정생 두 명을 1년간 파견하였고, 2015년 2학기에는 간사이대학에서 석사과정생이 1년 과정으로 유학한다. 다음, 중국 최고의 외국어 대학인 베이징외국어대학과도 현재 공동/복수학위제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문화학과 주도의 해외 대학과의 공동/복수 학위제는 현재 우리 대학에서도 이어 받아 중국 쓰촨외국어대학과 '학부3+1'(쓰촨외국어대학 학부 3년 수학 후 영남대 유학 1년) 과정, '대학원1+1'(쓰촨외국어대 대학원 1년, 영남대 대학원 1년 수학 후 다시 모교로 돌아가 졸업) 과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쓰촨외국어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에 동아시아문화학과생 또한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공동/복수학위제 협정을 통한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교원으로부터의 직접 지도 및 언어 능력 향상, 글로벌 동아시아를 향한 시야의 확장, 외국유학 비용 절감 등 큰 이점이 있기에 대학원생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1·2학기에 개설된 기초 공통 교과목 [동아시아담론의계보]와 [동아시아학을위한계량적조사·방법론]의 담당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의 연구 결과물이 각각 영남대학교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주최의 제7차 동아시아 4개국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20140825~20140828)와 DISC국제학술대회(20141211~20141213) 아시아트리플헬릭스학회와 공동 주최)에서의 논문 발표로 이어지도록 지도하여 동아시아문화학과 학생들이 국제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더불어 2014년 2학기 개설 교과목인 [스토리텔링제작실습]의 담당 교수는 스토리텔링 제작을 위한 이론적 강의는 물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다양한 분들을 섭외하여 특강을 개최하는 등(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팀장, MMN크리에이티브 대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테마파크 파라다이스 대표) 동아시아

문화학과의 교과과정이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산업현장과 실무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한편, 우리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동아시아 속의 만주>>, <<동아시아문화특강>>, <<동아시아식민지문학>>, <<일본의 문화 교섭>>,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속 한국 서원의 특징>>, <<문화콘텐츠와 네트워크분석 개발안>> 등 동아시아 문화학과에서 사용할 교재를 2014년도에 개발하였다. 교재 개발 목적 및 교육편성표, 참여교원, 교과목 소개, 목차 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재 개발 목적

동아시아문화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개설 과목은 모두 신규 교과목으로 이루어지며 연합전공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글로컬 동아시아학을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 목적에 부합한 신규 교과목을 새롭게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글로벌 인재’ 양상을 위해 신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각 교과분야의 전공자와 공동으로 교과목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자료와 지식을 망라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과적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 ② 교육편성표

- [동아시아 속의 만주(Machuria in East Asia)]: 2학기 3학점 전공개설과목, 2016년 2학기 개설 예정
- [일본의 문화교섭(Cultural Interaction of Japan)]: 1학기 3학점 전공개설과목, 2016년 1학기 개설 예정
- [동아시아식민지문학(Colony Literature in East Asia)]: 1학기 3학점 전공개설과목, 2016년 1학기 개설 예정
- [동아시아문화특강(Special Lecture on Cultures in East Asia)]: 1학기 3학점 전공개설과목, 2015년 1학기 개설
- [동아시아비교사(Historic Approaches to the Comparative Studies in East Asia)]: 1학기 3학점 전공개설과목, 2016년 1학기 개설 예정
-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이론(Cultural Contents Theory in East Asia)]: 2학기 3학점 전공개설과목, 2016년 2학기 개설 예정

#### ③ 참여 교원

- <<동아시아 속의 만주>>: 구소영(경북대학교 사학과), A(영남대학교 사학과)
- <<일본의 문화교섭>>: 천호재(계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F(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 <<동아시아식민지문학>>: 손민달(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E(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동아시아문화특강>>: 강종임(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G(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 <<동아시아비교사>>: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C(영남대학교 국사학과)
-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이론>>: 남인용(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B(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④ 교과목 소개 및 목차

##### <<동아시아 속의 만주>>

- ‘동아시아와 만주’는 동아시아담론과 만주사 연구를 연속적으로 이해한다. 이는 만주사를 독립적인 공간의 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각 지역과의 교류와 소통의 역사임을 좀 더 명확하기 부각시킬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 만주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과거 갈등과 대립, 식민과 독립,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항 대립의 관계를 넘어선 반제국주의, 비민족주의적 신시각을 확립한다.
- 일국사의 관점을 넘어선 새로운 만주사의 이해. 만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새로운 시각 속에 기존에 은폐된 과거사를 복원하고 과거의 역사적 평가를 새로이 한다.
- 만주 관련 연구를 개괄적으로 이해. 근현대 만주지역에서 명멸했던 공동체, 정치집단, 식민지, 독립정권, 군벌 등의 존재양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
- 만주 관련 기초 자료를 독해. 만주를 설명하는 기초 자료에 관한 서진 사항은 물론 그 해독을 위한 기초적 소양을 확충한다.
- 만주 관련 새로운 경향의 연구를 이해. 반제국주의, 비민족주의의 시각을 바탕으로 새롭게 역사를 해석하고 그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역사적 소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 전체적인 방식은 분담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수가 지목한 저서를 사전에 분담 숙지하고 발표문을 작성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수업에 참가한다. 수업 참가 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저서를 치밀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발표해야 한다.

- 수업 중간, 기말 리포트 제목과 문제의식, 참고도서, 가목차 등을 정리하여 수업 중간에 제출토록 한다.

- 기말 리포트는 전학생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분량은 최소 A4 10매 이상으로 한다.

- 기말 리포트 발표 이후 다시 정리 보충하여 학술대회에 구두로 재발표하고 향후 학술지에 게재토록 노력한다.

수업은 총 15주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
2. 국경(사)에서 변경(사)로
3. 만주(국)과 헤테로토피아
4. 야마시로신이치(山室信一)와 헤테로토피아
5. 만주국 건국구상과 헤테로토피아
6. ‘大高麗國’ 구상과 헤테로토피아
7. 다치바나 시라키(橘樸: 1881-1945)의 ‘轉向’ 과 파시즘
8. 다치바나 시라키의 건국 구상
9. 滿洲事變 前夜 滿洲韓人の 國籍問題
10. 국적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모색
11. 청말 지식인의 영토인식: 吳祿貞의 서북변경 인식
12. 吳祿貞과 間島問題
13. 만주(국)를 둘러싼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사

#### <<동아시아문화특강>>

‘어문학과 글로컬 동아시아문화학(Language/Literature and Glocal East Asian Culture Studies)’ 이란 교과목의 큰 범주 속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포괄적인 명칭으로 [동아시아문화특강(The History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3학점)이라 제목할 수 있다. 동아시아문화에는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 즉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에 대하여 동아시아적 시각에 근거하여 상호의 동질성과 이질성 및 상호 교류 상황을 규명하여 그 시대적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문화, 특히 한국 전통문화는 중국문화와의 교류, 영향과 수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한국 문화와 한국 전통문화에 나타난 양국 문화의 교류 상황을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문화교류’ 를 주내용으로 하는 본 과목은 주로 이를 통해 한중, 한일, 중일 문화교류 또는 문화교섭을 역사적으로 조명해보고, 보다 포괄적으로 한중, 한일, 중일 양국 및 한중일 삼국 문화교류의 공시적 통시적 상황을 개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한중일 삼국의 문화에 대하여 동아시아적 시각에 근거하여 상호의 동질성과 이질성, 및 상호 교류 상황을 규명하여 그 시대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해보고, 한중일의 문화적 특징을 먼저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중, 한일, 중일, 한중일 등의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지만, 한 학기에 이 모든 분야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한중간의 문화교류/교섭을 통시적으로 다루어본다. 이를 바탕으로 범위를 더 확대하여 한일과 중일간의 그리고 한중일 삼국간의 문화교류/교섭을 통시적으로 다루어본다. 한국 문화, 특히 한국 전통문화는 중국문화와의 교류, 영향과 수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한국 문화와 한국 전통문화에 나타난 양국 문화의 교류 상황을 역사적으로 규명해 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중간의 문화교류 또는 문화교섭의 역사를 파악해보고, 발전적인 미래 동아시아학의 실체를 가늠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최소한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교섭사에 대한 지식을 지니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한중 양국 문화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1주차 ... 동아시아와 문화의 범주
- 2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문자와 언어
- 3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공통문자, 한자
- 4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문학

- 5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전통 문화: 명절과 세시풍속, 민속놀이
- 6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전통 문화: 관혼상제
- 7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생활 문화: 음식
- 8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생활 문화: 복식
- 9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생활 문화: 주거
- 10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공연 문화
- 11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예술: 음악
- 12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예술: 미술
- 13주차 ... 동아시아 삼국의 대중문화
- 14주차 ... 동아시아 삼국 문화의 특징
- 15주차 ... 총정리 및 동아시아 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과 반성

<<동아시아식민지문학>>

본 교재는 20세기 전반기 ‘제국일본’의 출현과 더불어 등장한 동아시아 식민지문학의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식민지문학의 제반문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이중언어문학(친일문학)과 일제강점기 일본어문학 연구자, 일본의 ‘외지’ 일본어문학 연구자, 중국의 일본점령지문학 및 구만주지역 일본어문학 연구자, 대만의 식민지문학 연구자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제국일본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본 교재는 일본의 ‘외지’ 일본어문학, 한국의 이중언어문학(친일문학) 및 식민지 ‘일본어문학’, 중국의 친일문학을 뜻하는 한간(漢奸)문학 및 구만주국 문학, 대만의 식민지문학(황민문학)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이 식민지문학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들 용어가 개별국가 내에서도 그 개념 정의나 의미의 범주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 용어는 주로 개별국가 내에서는 통용되고 있지만 아직 동아시아의 식민지문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상호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각국의 식민지문학을 논함에 있어 국가나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의 동일한 단상에서 그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는데, 이 교재의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최근 동아시아 각국에서 자국의 식민지문학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 이후 특정한 시기나 널리 알려진 자국의 대작가를 연구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는 등 여전히 연구영역에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 산재하는 식민지문학의 전모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측면도 있으며 이 지역 일본어문학의 경우는 그것이 어느 개별국가의 문학으로 기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전히 반복되곤 한다.

이러한 연구 동향에서,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연구자들 사이에 국문학의 전통과 일국중심주의를 뛰어넘으려는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여전히 자국문학을 연구하는 한 방편으로, 아니면 자국의 주류문학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경향으로 인해 자국의 문학을 구성할 때 정전(正典)들의 편제를 통해 연구대상을 위계화하는 기존 주류문학사의 폐쇄성을 답습할 우려도 있다.

이 교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제국일본의 출현과 그 이동에 의해 동아시아 각 지역에 등장한 식민지문학을 개별국가라는 경계를 뛰어넘은 하나의 동일한 무대 위에 올려놓고 동아시아 식민지문학을 상호 횡단하여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 이것이 이 교재의 출발점이자 중착점이다.

- 제1강 한반도 식민지 ‘일본어문학’의 연구와 과제
- 제2강 식민지적 틀에서 동아시아적 시각으로-대만 문학 연구에 대한 회고
- 제3강 식민 콘텍스트에서 본 문학의 민족국가 입장 문제-항전 시기 일본 점령구 문학 중의 친일 문학에 관하여-
- 제4강 만주 시대에 있어新京(新京)의 일본인 작가
- 제5강 재경 일본인의 글쓰기와 ‘재경’의식- ‘한일합방’의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 제6강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 제7강 일본어잡지 <<조선공론(朝鮮公論)>>(1913-1920)의 에세이를 통해 본 한국인식
- 제8강 죽음의 미적 근대성에 대한 일 고찰-이광수의 <만영감의 죽음>을 중심으로-
- 제9강 이광수의 이중어문학 고찰-일본어소설 <만영감의 죽음>, <파리>를 중심으로
- 제10강 1930년대 조선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와 잡지 <<문예수도>>
- 제11강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文藝>>, 194212) 읽기

제12강 의제(議題)-문학으로 민족 및 국가 간의 사상문화의 융합을 도모하는 방법(<<文藝>>, 194212)

제13강 <<만주일일신문>> 고정(古丁)의 연재문

제14강 대동아문학자대회로(寺田瑛, <大東亞文學者大會へ>, <<新時代>> 제2권 제12호, 194212)

제15강 대동아문학자 대표 교환좌담회(<<綠旗>> 제7권 제12호, 19421128~19421201)

제16강 문인이 본 새로운 반도 문화(<<綠旗>>, 興亞文化出版株式會社, 194301)

제17강 대동아의식의 자각-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로부터 돌아와서-

제18강 ‘대동아문학자대회 보고’

#### <<일본의 문화 교섭>>

근대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시작된 문화수용 및 전파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 수업내용이 될 것이다. 문화라 하더라도 그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언어/교육’, ‘문학/예술’, ‘사회/생활’의 3분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특히 일본의 ‘사회/생활’ 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문화라 하면 그 공동체의 사회나 생활을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회/생활’ 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특히 현재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일본을 무시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일본 사회가 어떠한 문화적 수용과 교섭을 거쳐 이루어졌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생활은 어떤 수용과 교섭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학습 항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일본 토착문화와 외래문화
- ② 일본의 도시화
- ③ 일본의 근대화
- ④ 일본의 집단1(연령집단)
- ⑤ 일본의 집단2(직업집단)
- ⑥ 일본의 집단3(이에모토家元)
- ⑦ 일본의 사회1(군주제)
- ⑧ 일본의 사회2(봉건제)
- ⑨ 일본의 사회3(관료제)
- ⑩ 일본의 사회4(회사)
- ⑪ 일본의 가족1(가족, 가문)
- ⑫ 일본의 가족2(우리 vs 남)
- ⑬ 일본의 예법
- ⑭ 일본의 종교

#### 1. 들어가기

- 1-1 교과목 위치
- 1-2 교재의 특성
- 1-3 기초 개념 정리

#### 2. 일본 토착문화와 외래문화

- 2-1 외래문화 수용의 특성: 최소화 복합
- 2-2 외래문화 유지의 특성: 토착문화와의 병행
- 2-3 토론 및 과제
- 2-4 참고문헌

#### 3. 일본의 도시화

- 3-1 일본의 촌락
- 3-2 일본의 도시
- 3-3 토론 및 과제
- 3-4 참고문헌

#### 4. 일본의 근대화



- 4-1 일본 근대화의 시작
- 4-2 일본 근대화의 특징
- 4-3 토론 및 과제
- 4-4 참고문헌
- 5. 일본의 집단
  - 5-1 연령집단
  - 5-2 직업집단
  - 5-3 토론 및 과제
  - 5-4 참고문헌
- 6. 일본의 관계1(혈연적 관계)
  - 6-1 가족
  - 6-2 가문
  - 6-3 토론 및 과제
  - 6-4 참고문헌
- 7. 일본의 관계2(사회적 관계)
  - 7-1 봉건시대
  - 7-2 근현대
  - 7-3 토론 및 과제
  - 7-4 참고문헌
- 8. 일본의 사회1(기본 틀)
  - 8-1 이에모토(家元)
  - 8-2 은혜
  - 8-3 토론 및 과제
  - 8-4 참고문헌
- 9. 일본의 사회2(제도)
  - 9-1 군주제
  - 9-2 봉건제
  - 9-3 토론 및 과제
  - 9-4 참고문헌
- 10. 일본의 교육
  - 10-1 근대이전
  - 10-2 근대이후
  - 10-3 2차 세계대전 이후
  - 10-4 토론 및 과제
  - 10-5 참고문헌
- 11. 일본의 종교
  - 11-1 토속 신앙과 유토피아
  - 11-2 불교
  - 11-3 토론 및 과제
  - 11-4 참고문헌
- 12. 일본의 연회문화
  - 12-1 연회의 기원
  - 12-2 연회의 특성
  - 12-3 토론 및 과제
  - 12-4 참고문헌
- 13. 일본의 예법
  - 13-1 근대이전
  - 13-2 근대이후

13-3 토론 및 과제

13-4 참고문헌

14. 마치기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속 한국 서원의 특징>>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정수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은 유교 교육기관으로서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2011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2015년 등재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된 서원은 경북 영주 紹修書院(1543년 창건, 안향, 사적 제55호), 경남 함양 藍溪書院(1552년 창건, 정여창, 사적 제499호), 경북 경주 玉山書院(1573년 창건, 이언적, 사적 제154호), 경북 안동 陶山書院(1574년 창건, 이황, 사적 제170호), 전남 장성 筆巖書院(1590년 창건, 김인후, 사적 제242호), 대구 달성 道東書院(1605년 창건, 김굉필, 사적 제488호), 경북 안동 屏山書院(1613년 창건, 류성룡, 사적 제260호), 충남 논산 遯巖書院(1634년 창건, 김장생, 사적 제383호), 전북 정읍 武城書院(1696년 창건, 최치원, 사적 제166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이다.

유교문화의 전통과 원류가 가장 잘 남아 있는 한국의 서원은 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유지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중국·일본과 대비되는 제향 기능의 전승, ③ 天人合一의 유교사상을 실현하는 소우주로서의 경관 특징, ④ 향촌 지성사 네트워크의 구축 등등 중국·일본의 서원과 구별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 관학인 향교에 대신하는 사학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지만, 16세기 후반 사림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는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 재지사림의 정치,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나아가 지방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이 점이 중국의 서원과 다른 점이다.

본 강의 교재는 한국의 유교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의 서원이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속에서 어떠한 독자성을 갖고 위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중국 서원과 일본 근세 유교교육에 대해 검토한다.

- 1주 - 유교와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교육
- 2주 - 중국 서원의 역사 -당, 송-
- 3주 - 중국 서원의 역사 -원, 명, 청 -
- 4주 - 일본의 근세교육
- 5주 - 한국 서원의 역사(1) -서원의 설립배경과 퇴계의 서원보급운동-
- 6주 - 한국 서원의 역사(2) -서원의 발전과 변천-
- 7주 - 한국 서원의 운영
- 8주 - 한국 서원의 경제적 기반
- 9주 - 한국 서원의 교육활동
- 10주 -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 11주 - 한국 서원의 지성사적 전통과 지역 네트워크
- 12주 - 한국 서원의 사회적 기능 -장서와 출판문화-
- 13주 - 한국 서원의 기록문화
- 14주 -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 15주 - 한국 서원문화 활성화 방안

<<문화콘텐츠와 네트워크분석 개발안>>

- 문화콘텐츠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전문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융복합적 방법론의 기초지식과 분석기법을 검토하고 설명함.
- 여러 융복합 방법론 가운데 특히,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데이터와 정보’ 교환과 유통의 구조분석에 강점을 지닌 네트워크분석(Network Analysis)과 관련된 여러 개념과 이슈를 정리함.
- 이 교재 개발을 통해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방법론적 결핍현상을 극복하고, 독자들은 네트워크분석이 어떻게 문화콘텐츠 분야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틀과 절차를 학습 가능함.

- 1주 문화콘텐츠라는 학문분야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개괄
- 2주 문화콘텐츠학 분야 기존 방법론의 현황과 그 장점과 단점
- 3주 디지털 인문학의 시대와 문화콘텐츠학에서 융복합 방법론의 역사와 목적 -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쓸 수 있는가?
- 4주 인터넷이 문화콘텐츠 연구방법에 끼친 영향
- 5주 네트워크 분석과 콘텐츠의 계량화 기법, 그리고 정보 분석
- 6주 콘텐츠/ 정보 흐름구조와 유통과정에 미치는 행위자 - Macro 지표들과 문화콘텐츠 분야에 적용 1
- 7주 콘텐츠/ 정보 흐름구조와 유통과정에 미치는 행위자 - Macro 지표들과 문화콘텐츠 분야에 적용 2
- 8주 NodeXL 툴을 이용한 실제 콘텐츠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과 정제 - 입문과정
- 9주 NodeXL을 이용한 콘텐츠 관련지표의 분석절차와 지도를 통한 시각화 과정 - 중급과정
- 10주 NodeXL을 이용한 문화콘텐츠 계량분석의 특징과 이슈 - 고급과정
- 11주 네트워크 분석에 문화콘텐츠학의 방법론이 적합한가?
- 12주 사이버공간에서 웹 콘텐츠 분석을 통한 문화콘텐츠 Reverse Engineering 개발
- 13주 블로그와 SNS 콘텐츠의 관리 개발 도구로서 네트워크분석
- 14주 모바일 SNS 사회와 문화콘텐츠 설계, UX 연구,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이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 15주 기말고사

끝으로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는 동아시아문화학의 확산 및 우리 학과 대학원 졸업생들의 진로 개발, 학부생들에게의 학과 홍보 등을 위해 2014년 [동아시아의 인문적 이해]라는 신규 교양 교과목도 개발하여 학교에 신청한 바 있다.([참고 9] 참고) 교과목 개요 및 수업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신규교양 교과목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발할 예정이다.

① 교과목 개요

- 최근 동아시아 각국이 공히 애국주의-민족주의적 경향의 대두와 함께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지역 내의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노력이 위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하지만 동아시아 각국은 정치적으로는 멀지라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하며 문화적으로는 그 근원의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간단히 규정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닌 관계이다.
- 본 강의는 이처럼 여럿이면서 하나이기도 한 동아시아세계의 유기성, 상호연관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부터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는 가치관, 제도, 관습 등을 단지 일국사의 틀 안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적 시야로부터 재인식하고 재구성해 보는 관점을 강의수강자에게 제시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래 우리의 전통, 관습, 제도, 가치관과 같은 것들은 국가가 법으로 규정해주면서 생겨나기 보다는, 상호 연관된 인간, 집단 간의 소통과 교류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국민국가의 가치가 강조된 20세기 이후로는 동아시아 공통의 지적 재산이자 자원으로 간주되어 오던 문학, 철학, 사상 등에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그것들이 지닌 본연의 가치마저 국가적 관점에서부터 재단되거나 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학생들에게 편협하지 않은 개인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으로부터 자신의 연원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 본 강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적-문화적 전통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서적, 사건 등을 선정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의 ‘나’, ‘우리’를 구성하는 것들이 보다 다양한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져 온 것임을 확인케 한다.
- 이를 위해서 본 강의는 동아시아의 고전이 지닌 국경을 넘어서는 인문적 가치들의 재확인, 중세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에 있어서 상호간에 끼친 영향 고찰, 근세 이후 국가형태들의 유사성과 이질성, 근대 이후 서구지식을 수용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양상 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부터 비교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② 수업 계획

- 1주 - 동아시아론의 전개 (1): 일본 동아시아론의 제기와 변화 그 의미 등을 계보적학으로 파악하여 그 한계와 의도를 파악한다.
- 2주 - 동아시아론의 전개 (2): 중국 동아시아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과거 제국으로서의 중국을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최근의 제국론을 경계한다.

3주 - 동아시아론의 전개 (3): 한국 동아시아론이 지니는 세계사적 의미를 밝히고 그 현실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4주 - 전통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1):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공질서의 실상과 한계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그 안에서의 이루어진 상호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5주 -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2): 동아시아 각 국가들이 확립한 독자적 질서에 대한 상호비교를 통해 각자가 추구하는 근대성의 실체에 접근해 본다.

6주 -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1): 서구의 접촉 과정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것들이 지닌 전통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근대사의 전개과정을 검토한다.

7주 -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2): 동아시아의 혁명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비교 검토한다.

8주 - 중간고사

9주 - 동아시아인의 서구체험과 서구 인식 (1): 근대 동아시아의 서구체험기 등을 선별하여 읽고 분석해 본다.

10주 - 동아시아인의 서구체험과 서구 인식 (2): 근대 동아시아의 서구체험기 등을 선별하여 읽고 분석해 본다.

11주 - ‘계몽주의’와 동아시아: ‘계몽’이라는 슬로건의 유입과 동아시아사회의 반응을 살펴본다.

12주 - 근대국가의 성립과 동아시아세계: ‘입헌주의’의 수용과 관련한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체계와 그 대응 및 변용양상들을 살펴본다.

13주 - ‘진화론’과 동아시아 (1)-일본의 경우: ‘진화론’의 유입과 동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현재적 의미를 인문학의 시점에서 고찰한다.

14주 - ‘진화론’과 동아시아 (2)-중국의 경우: ‘진화론’의 유입과 동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현재적 의미를 인문학의 시점에서 고찰한다.

15주 - 기말고사

### 3. 향후 4년간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문화학과의 교과과정은 ‘이론능력’과 ‘응용’의 융·복합적 구성으로 운영된다.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글로벌 인재’ 양성이 목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이론으로만 치중되지 않고, 이론과 응용이 조화될 수 있는 교과목이 더욱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 우선, ‘글로벌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어학 능력이 필수인 만큼 학과 학생들의 어학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는 2014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과 학생들의 제2외국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학 공부 매진을 위한 권유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방학을 이용한 어학 능력 향상 권유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더불어 동아시아문화학과 참여 교수들은 원어로 진행되는 외국어 강좌도 개설하여 대학원생들의 어학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외국어 강좌는 동아시아문화학과생들의 외국어 능력 함양 및 국제화의 대비,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서 개설된다.

언론정보학과 B 교수: 영어 강좌 [동아시아디지털정보학세미나]

일어일문학과 F 교수: 일어 강좌 [동아시아와일본문화]

철학과 D 교수: 중국어 강좌 [동아시아와중국문화]

한편, 2015년 2학기에는 [동아시아지역문화통번역] 및 [동아시아한자비교연구]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한민국 학생 및 중국 유학생, 그리고 일본 교환학생들이 모두 수강하도록 할 것이다. 3개국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교과목을 수강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한다면 매우 질 높은 결과물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어학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외 취·창업과 관련된 교과목도 개설할 예정이다. 가령, 2015년 2학기에는 [동아시아 문화콘텐츠분석과제작] 교과목을 개설하여 2014년 2학기에 개설된 [동아시아문화콘텐츠이론]과 연계시키고, 한층 더 실무적인 교육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교과목 개설과 더불어 대학원 강의 평가제도 또한 시행하여 교수자와 수업자의 원활한 환류체계구축 및 피드백을 통해교육의질을향상시킬 것이다.

4) 그밖에 간사이대학과의 해외공동/복수학위제에 의거하여 매년 두 명의 석사과정생을 교환학생으로 파견할 예정이며 우리 학과 또한 간사이대학 학생을 맞이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베이징외국어대학과도 해외공동/복수학위제 협정을 맺어 학생을 파견하거나 맞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끝으로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 및 소모임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연도별로 종합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20] 향후 4년간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 1) 1년차: 이론 교육 확충
- 2) 2년차: 연구 심화 발표
- 3) 3년차: 실무 응용 융·복합
- 4) 4년차: 취·창업 ‘글로벌 인재’ 양성

#### 4.3 전문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및 계획

##### 1. 전문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과정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는 전문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을 위하여 융·복합적인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목명은 다음과 같다.

<2014년 2학기>

- ① 동아시아와번역학
- ② 동아시아학을위한계량적조사·방법론
- ③ 동아시아문화콘텐츠이론
- ④ 스토리텔링제작실습

<2015년 1학기>

- ① 빅데이터와문화콘텐츠
- ② 동아시아대중문화
- ③ 일본의문화교섭
- ④ 동아시아문화특강

##### 2. 전문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실적

###### 1) 정기 세미나 개최

우리 사업단에서는 이와 같은 교과과정의 운영과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을 초빙하여 매달 정기 세미나 및 특강을 개최함으로써 취·창업 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기 세미나 및 특강은 다음과 같다.

- ① 김정달(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사업정책실장), [융합시대, 문화콘텐츠와 플랫폼의 변화-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20140331)
- ② 윤애숙(윤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인문학과 문화콘텐츠학의 융합을 위한 과제-인문콘텐츠의 이해와 개발론을 중심으로](20140425)
- ③ 이수준(주요코하마 총영사관 총영사), [외교관 생활과 문화체험](201404)
- ④ 김남일(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20140530)
- ⑤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특임교수),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보는 의미](20140926)
- ⑥ 백승운(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팀장),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20141031)
- ⑦ 류은영(MMN크리에이티브 대표/전주세계소리축제 영상크리에이터), [방송과 스토리텔링](20141107)
- ⑧ 김준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스토리텔링과 문화사업](20141114)
- ⑨ 김혁(테마파크 파라다이스 대표), [테마파크 스토리텔링](20141128)
- ⑩ 세리카와 테츠요(芹川哲世, 니소가쿠샤(二松學舎)대학), [어느 일본 작가들의 문학적 반란(ある日本作家たちの文學的な反亂)](20150427)
- ⑪ 송혜영(영남대 미술학부 교수), [나폴레옹의 프로파간다 미술](20150528)
- ⑫ 이지선(영남대 교양학부 교수), [베트남 남부 화인 사회의 형성](20150605)

###### 2) MOU 협약 체결 및 인턴사원 파견

동아시아문화학과는 2014년 12월 15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MOU 협약을 체결하였고 두 명의 대학원생을 인턴사원으로서 파견시킨 바 있다.(박사과정 정남희, 석사과정 정호윤. 20150223~20150417) 협약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참고 21] 참고)

[영남대학교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

영남대학교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경북의 문화콘텐츠자산 발굴과 문화융합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융합·문화콘텐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서는 영남대학교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의 상호 교류를 통해 경북의 문화융합 및 문화콘텐츠, 교육, 연구 및 관련 사업의 성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참여 범위)

본 협약에는 영남대학교의 문화융합디자인생태계조성사업단, 동아시아문화학과(글로벌동아시아 문화콘텐츠전문인재양성사업단), 융합미디어디자인센터 등 산하 기관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한다.

제 3 조 (협력 범위)

양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1. 문화융합디자인생태계조성사업단, 동아시아문화학과(글로벌동아시아 문화콘텐츠전문인재양성사업단), 융합미디어 디자인센터 등 산하 기관과의 재정 사업 및 프로젝트 상호협력
2.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소재 발굴 및 개발
3.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정보 교류 및 교육·기술자문 지원
4. 문화융합 및 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협력 사항

제 4 조 (협력 원칙)

1.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2. 양 기관은 상호 교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5 조 (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상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사안은 양 기관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6 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장이 모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폐기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15일

영남대학교  
총장 노석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준한

더불어 우리 학과에서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MOU 협약 체결에 의거하여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단체 견학 및 체험 현장 실습을 가진 바 있고, 근처 소수서원 및 봉정사 등을 답사하며 역사 문화를 익히기도 했다.(20150410~20150411)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외에도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과 2015년 3월 MOU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는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에도 우리 학과 대학원생 두 명을 인턴사원으로 파견한 바 있다.(석사과정생 정혜윤, 장아름, 서보현) ([참고 22] 참고)

[영남대학교와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

영남대학교와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은 대구·경북의 문화콘텐츠자산 발굴과 문화융합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융합·문화콘텐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서는 영남대학교와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의 상호 교류를 통해 대구·경북의 문화융합 및 문화콘텐츠, 교육, 연구 및 관련 사업의 성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참여 범위)

본 협약에는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글로벌동아시아 문화콘텐츠전문인재양성사업단)와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이 참여한다.

제 3 조 (협력 범위)

양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1. 동아시아문화학과(글로벌동아시아 문화콘텐츠전문인재양성사업단)와의 재정 사업 및 프로젝트 상호협력
2. 대구·경북의 문화콘텐츠 소재 발굴 및 개발
3.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정보 교류 및 교육·기술자문 지원
4. 문화융합 및 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협력 사항

제 4 조 (협력 원칙)

1.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2. 양 기관은 상호 교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5 조 (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상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사안은 양 기관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6 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장이 모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폐기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3월 2일

영남대학교  
총장 노석균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최종철

3. 전문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 계획



앞으로도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는 취·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학과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1) 우선, ‘글로벌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어학 능력이 필수인 만큼 학과 학생들의 어학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미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는 2014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과 학생들의 제2외국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학 공부 매진을 위한 권유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방학을 이용한 어학 능력 향상 권유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더불어 어학 능력 제고를 위해 2015년 2학기에는 [동아시아지역문화통번역] 및 [동아시아한자비교연구]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한민국 학생 및 중국 유학생, 일본 교환학생들이 모두 수강함으로써 상호 어학능력 증진 및 의견 교환 활성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2) 방학을 이용한 국외 단기 연수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는 이미 2014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학과 학생들을 일본 간사이대학과 중화민국 타이완국립대학으로 파견하여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단기 연수 국가를 동아시아로 더욱 확장하여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으로 파견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우리 대학과 MOU를 체결한 중국 중경대학(충칭대)으로의 단기 연수 및 학술교류도 계획하고 있다. 이상의 대학들은 모두 해외의 우수한 대학들이다. 해외 유명 대학으로의 단기 파견은 어학 능력 향상은 물론 해외 학자 및 대학원생과의 네트워크 형성, 상호 간 문화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고 이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3) 그 외 취·창업과 관련된 노력 및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선 우리 학과와 MOU를 체결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및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에 인턴사원을 파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꾸준히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처와 MOU를 체결하고 인턴사원을 파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학과에서 강의를 하신 바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처([윤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사업자등록번호: 502-28-83971), [영화와 소통하기](사업자등록번호: 850-07-00044))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의실을 넘어 현장에서의 더욱 수준 높은 실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더불어 MOU 체결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초빙한 특강도 작년에 이어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이들 사업처와의 협력 속에 국내 단기 연수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5) 또한 MOU 체결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도 우리 학과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7~8월에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15년 경북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에 우리 학과 학생 3명을 파견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등 스토리텔링 작가 양성을 위한 실무 교육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6) 이 외에도 2015년 2학기에는 [동아시아문화콘텐츠분석과제작] 교과목을 개설하여 2014년 2학기에 개설된 [동아시아문화콘텐츠이론]과 연계시키고, 더욱 실무적인 교육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4.4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및 계획

##### 1. 공동/복수학위제 협정

동아시아문화학과는 2015년 2월 일본 간사이 지방의 최고사립명문인 간사이대학과 공동/복수학위제 협정을 맺어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결과 맺어질 수 있었다.

- 1) 2011년 6월 ‘CAMPUS Asia 시범사업’ 신청을 위해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3교 총장 합의서 작성
- 2) 2012년 2월, 7월 1, 2차 학술대회(일본 간사이대학)에서 실무 협의
- 3) 2012년 11월 3차 학술대회(영남대학교)에서 실무 협의
- 4) 2013년 2월 4차 학술대회(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3교의 실무자 합의서 작성
- 5) 2013년 3월 3교 총장의 협조 재확인 서안 교환
- 6) 2013년 9월 간사이대학 후지타(藤田) 교수의 공동/복수학위제 운영 방침 결정 차 영남대학교 내교
- 7) 2015년 2월 <간사이대학(關西) 대학원 문학연구과, 외국어교육학연구과, 동아시아문화연구과와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간의 학위취득에 관한 협정> 체결

협정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간사이(關西)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외국어교육학연구과, 동아시아문화연구과와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간의 학위취득에 관한 협정> ([참고 23] 참고)

간사이(關西)대학 및 영남대학교 간의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협정에 기초하여, 간사이(關西)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외국어교육학연구과, 동아시아문화연구과(이하, 3 연구과를 통칭하여 ‘갑’ 이라고 한다)와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이하 ‘을’ 이라고 한다)는, 갑과 을 쌍방간에 학생을 유학시킴으로써,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 1. (명 칭)

간사이(關西)대학 · 영남대학교 복수학위(Dual Degree) 프로그램

##### 2. (유학처)

갑: 관서대학교 센리야마 캠퍼스                      을: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 3. (정 원)

매년 약간 명

##### 4. (유학 기간)

유학기간은 2학기(1년간)으로 한다.

##### 5. (수료 학점 수)

갑의 수료 소요학점 32학점(그 중 을의 학점은 10학점까지 인정)

을의 수료 소요학점 31학점(그 중 갑의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

또한 취득해야 하는 과목과 그 학점수의 내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 취급요령에 의거한다.

##### 6. (학위의 수여)

5에서 정한 각 연구과의 학점을 취득하고, 석사논문심사 등 각각의 연구과가 정한 시험에 합격하면, 갑은 석사(문학), 석사(외국어교육학), 또는 석사(문화교섭학)을, 을은 동아시아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7. (응모자격 및 선발)

응모자격 및 선발은 갑, 을 각각의 연구과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각각 유학생의 성과 이름을 보고한다.

##### 8. (학비)

본 프로그램 참가자는, 각각의 대학의 대학규정 등에 따라서 학비는 소속한 대학에 납입하고, 파견대학 쪽의 학비는 면제한다.

9. (연락담당자)

양 대학은 당 협정을 추진할 연락담당자를 각각 정한다.

10. (협정의 폐지, 수정)

본 협정의 폐지에 관해서는 폐지 2년 전까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정에 관해서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시로 가능하다. 다만 간사이(關西)대학과 영남대학교 간의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협정이 폐지되면 본 협정도 폐지한다. 그 경우 폐지하기까지의 기간 중 유학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협정폐지와 관계없이 4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유학을 보증한다.

11. (시작 시기)

갑과 을 모두 2014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12. (본 협정서)

본 협정서는 일본어 및 한국어로 2부씩 작성하며, 갑과 을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를 갑을 쌍방이 보관한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 및 협정서에 의거하여 2015년 3월에는 동아시아문화학과 석사과정생 두 명이 1년간 간사이대학으로 파견되었고(강병순, 최선아), 2015년 2학기에는 간사이대학에서 석사과정생이 1명이 우리 학과에 1년 과정으로 파견 올 예정이다.(쓰지오카 사키코) 동아시아문화학과는 앞으로 매년 간사이대학에 석사과정생 약간 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공동/복수학위제 협정을 통한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교원으로부터의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언어 능력 향상, 글로벌 동아시아를 향한 시야의 확장, 외국유학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이 있기에 우수한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문화학과는 현재 이와 같은 공동/복수학위제 협정이 중국 최고의 외국어 대학인 베이징외국어대학과도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2.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우리 사업단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 및 일본 간사이대학과 번갈아 가며 꾸준히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학술대회는 2011년도 ‘CAMPUS Asia 시범사업’ 을 바탕으로, 베이징외국어대학과 간사이대학과의 지속적인 학술적 교류의 필요성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다. 이 국제학술대회는 일 년에 세 번씩 한·중·일 3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고 있고, 3교의 각 10명씩 총 30여명의 대학원생과 교수들이 참가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개최된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및 이를 위한 우리 사업단의 동아시아문화학 관련 여러 공동프로젝트의 토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2011년 7월

공동프로젝트: ‘CAMPUS Asia 시범사업’ 에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 일본 간사이대학과 함께 ‘차세대 아시아 마인드를 갖춘 인터로컬 인재 육성’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일어일문학과 F 교수

2) 2012년 2월 24~28일

국제학술대회: 간사이대학 ‘日中韓次世代フォーラム(제1차 동아시아 대학원 학술대회, The Japan-China-Korea Conference on the Next Generation Scholarship in Humanities)’ 발족 및 1차 포럼 ‘還流하는 동아시아’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 ① 사학과 A 교수(지도학생: 이정희)
- ② 중국언어문화학과 G 교수(지도학생: 김현주, 이현지)
- ③ 일어일문학과 F 교수(지도학생: 이노우에 사치코, 박해경)
- ④ 언론정보학과 B 교수(지도학생: 김지영, 박지영)
- ⑤ 국어국문학과 E 교수(지도학생: 이승아, 정남희, 홍설화)

3) 2012년 3월 21일

공동프로젝트: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협력 사무국’ 주최의 ‘캠퍼스 캐러밴(Campus Caravan)’ 사업단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일어일문학과 F 교수, 중국언어문화학과 G 교수

4) 2012년 7월 19~23일

공동프로젝트: 간사이대학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 대학원 학술대회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 ① 사학과 A 교수(지도학생: 최은형, 채규철)
- ② 중국언어문화학과 G 교수(지도학생: 서경민, 최정순)
- ③ 일어일문학과 F 교수(지도학생: 김리나, 이노우에 사치코, 박해경)
- ④ 국어국문학과 E 교수(지도학생: 신미삼, 공주은)

5) 2012년 11월 2일

공동프로젝트: 영남대학교 주최 제3차 동아시아 대학원 학술대회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 ① 사학과 A 교수(지도학생: 손혜진, 채규철)
- ② 중국언어문화학과 G 교수(지도학생: 윤해경, 한가준)
- ③ 일어일문학과 F 교수(지도학생: 이노우에 사치코, 박해경, 기동현)
- ④ 국어국문학과 E 교수(지도학생: 신미삼, 정남희)

6) 2013년 2월

공동프로젝트: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제4차 동아시아 대학원 학술대회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 ① 사학과 A 교수(지도학생: 최은형, 구찬휴, 노준수)
- ② 중국언어문화학과 G 교수(지도학생: 서경민, 구인화, 전순남)
- ③ 일어일문학과 F 교수(지도학생: 김리나, 이노우에 사치코)
- ④ 국어국문학과 E 교수(지도학생: 공주은)

7) 2013년 12월 17~18일

공동프로젝트: 간사이대학에서 개최된 제5차 동아시아 대학원 학술대회(日中韓伊院生フォーラム)

참여대학원생:

- ① 국문과 이승아(박사과정)
- ② 사학과 박한나(박사과정)
- ③ 사회학과 육담성(박사과정)
- ④ 중국언어문화학과 윤해경(박사과정)

8) 2014년 2월 25~26일

공동프로젝트: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제6차 동아시아 대학원 학술대회(中日韓意研究生論壇2014全球視野下的東亞文化價值)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 ① 사학과 A 교수(지도학생: 구찬휴, 노준수)
- ② 국사학과 C 교수(지도학생: 백지국, 김순한, 이동향)
- ③ 중국언어문화학과 G 교수(지도학생: 김명월, 최정순)
- ④ 일어일문학과 F 교수(지도학생: 김리나)
- ⑤ 국어국문학과 E 교수(지도학생: 이승아, 이대훈)

9) 2014년 8월 25~28일

공동프로젝트: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제7차 동아시아 대학원 학술대회(=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 ① 사학과 A 교수(지도학생: 정호윤, 이종협, 구찬휴, 노준수)
- ② 중국언어문화학과 G 교수(지도학생: 김명월, 최정순, 장아름, 정혜윤)
- ③ 일어일문학과 F 교수(지도학생: 이노우에 사치코, 최선아)
- ④ 국어국문학과 E 교수(지도학생: 신미삼, 정남희, 강병순)
- ⑤ 언론정보학과 B 교수(지도학생: 박지영)

10) 2015년 3월 12~15일

공동프로젝트: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제8차 동아시아 대학원 학술대회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 ① 사학과 A 교수(지도학생: 최은형, 정호윤)
- ② 일어일문학과 F 교수(지도학생: 최선아, 쑨후이난, 왕쥙청)
- ③ 국어국문학과 E 교수(지도학생: 신미삼, 정남희, 강병순)
- ④ 언론정보학과 B 교수(지도학생: 박지영, 장아름)

동아시아 대학원 국제학술대회는 올해 12월에는 간사이대학에서, 내년 3월에는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그리고 8월에는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는 학생 전원을 참가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대학원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동아시아문화학과의 대학원생들은 3국을 초월한 정보망을 구축함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 또한 확보하여 인문학 분야에서 동아시아문화학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동아시아 대학원 국제학술대회 외에도 동아시아문화학과생들의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7월 박사과정생 박지영이 스페인에서 개최된 [European Social Networks Conference]에 참여했을 때 해당 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 2014년 12월 DISC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도 아시아트리플헬릭스 학회와 우리 사업단이 공동 주최하였고, 동아시아문화학과생 5명이 발표를 하였다.(박사과정생 박지영, 석사과정생 강병순, 장아름, 왕충성, 손혜남) 박지영은 올해 8월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에서 개최되는 [XIII Triple Helix International Conference 2015] 학회에도 참여하였으며 그 경비 또한 지원하였다.

### 3. 국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우리 사업단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동아시아문화학과생들의 해외 단기 연수 또한 지원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업단에서는 2014년 7월과 2015년 2월 각각 일본 간사이대학과 중화민국 국립타이완대학 문학연구소로 단기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두 번의 국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각국의 역사·문학·문화 등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었으며, 이를 통한 동아시아문화학과생들의 시야 및 교류의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단기 연수 국가를 동아시아로 더욱 확장하여 학생들을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해외 유명 대학으로의 단기 파견은 학생 각자의 어학 능력 향상은 물론 해외 학자 및 대학원생과의 네트워크 형성, 상호 간 문화 교류를 통한 점진적 이해가 가능한 만큼 동아시아문화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이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4. 해외학자 초빙

우리 사업단에서는 매달 정기 세미나 및 특강의 형식으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하여 대학원생 취·창업 교육을 위한 노력 및 해외 우수 학자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정기 세미나에 초청한 해외 학자는 두 명으로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이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특임교수로 역임하고 있는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교수와,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니쇼가쿠샤(二松學舎)대학에서 한·일 비교문학을 가르치시고 정년퇴임하신 세리카와 테츠요(芹川哲世) 교수이다. 두 교수는 2014년 9월과 2015년 4월 각각 내교하여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보는 의미], [어느 일본 작가들의 문학적 반란]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의 역사 및 문학을 사고하는데 신선한 영감과 자극을 주었다. 해외 학자 초빙 강연은 앞으로도 사업단에서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1월에는 중화민국 타이완국립대학 교수이자 문학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메이어(黃美娥)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그리고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때에도 더불어 해외 학자를 초빙하여 강연을 경청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8월 영남대학교에서 한·중·일 대학원생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을 때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 교수와, 일

본 간사이대학 교수의 강연 또한 들은 바 있다. 각 대학 교수들의 성함과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다.

- 1) 魏崇新(北京外大), [外國留學生在中國的文化適應性調研](201408027)
- 2) 李雪濤(北京外大), [利瑪竇世界地圖及其思想史意義](201408027)
- 3) 中谷伸生(關西大), [マンガ・アニメーションと菅楯彦－東アジアの文化的傳統と現代－](20140827)
- 4) 沈國威(關西大), [近代の新語譯語と中國語の二字語化－日本語の影響作用を中心として－](20140827)
- 5) 内田慶市(關西大), [イソップ東漸－中國語イソップ翻譯史－](20140827)
- 6) 藤田高夫(關西大), [東アジアの木簡と書記文化](20140827)
- 7) 奥村佳代子(關西大), [漢譯忠臣藏[[海外奇談]]の關係者に關する一考察](20140827)
- 8) 篠原啓方(關西大), [東アジアの龜趺の受容と變容－中國・韓國・ベトナム・日本の例を手がかりに－](20140827)

## 5 산학협력 실적 및 계획

### 5.1 참여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 실적 및 계획(최근 2년)

<표 18> 최근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단위: 천원)

항목	수주액(천원)		
	'13.9.1~'14.8.31	'14.9.1~'15.8.31	전체기간 실적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491,312	318,689	810,001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0	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0	0	0
참여교수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81,885	53,114	135,000
참여교수 수			6

<표 18>의 실적을 참고하여 향후 4~8차년도 개선 계획을 제시

A.

#### 1. 4년차

1) 학술저서 지원사업 1년차 진행: 문화대혁명과 극좌파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506-201605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 선정

2) 공동연구 지원사업 1년차 추진: 중국과 문혁, 문혁과 세계

지원금액(원): 100,000,000 / 지원기간: 201509-201608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3) 인문도시 1년차 추진: 동행의 인문학

지원금액(원): 100,000,000 / 지원기간: 201509-2016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2. 5년차

1) 학술저서 지원사업 2년차 진행: 문화대혁명과 극좌파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606-201705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 선정

2) 공동연구 지원사업 2년차 추진: 중국과 문혁, 문혁과 세계

지원금액(원): 100,000,000 / 지원기간: 201609-201708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3) 인문도시 2년차 추진: 동행의 인문학

지원금액(원): 100,000,000 / 지원기간: 201609-2017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3. 6년차

1) 학술저서 지원사업 3년차 진행: 문화대혁명과 극좌파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706-201805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

선정

2) 인문도시 3년차 추진: 동행의 인문학

지원금액(원): 100,000,000 / 지원기간: 201709-2018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7년차

1) 인문학국책사업, 인문강좌 지원 사업 추진

지원금액(원): 50,000,000 / 지원기간: 201809-2019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총서 추진

지원금액(원): 30,000,000 / 지원기간: 201809-2019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B.

1. 4년차

1) 2016년도 저술출판 지원사업 신청(2월)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5-2017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공영방송의 이해 강좌 지원

지원금액(원): 5,000,000 / 지원기간: 20150901-20160301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방송공사

2. 5년차

1) 인문사회분야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지원금액(원): 20,000,000 / 지원기간: 20160901-201904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대구지역 공공빅데이터 산업 발굴

지원금액(원): 30,000,000 / 지원기간: 20160301-20161231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대구시청

3. 6년차

1) 중견연구자지원

지원금액(원): 20,000,000 / 지원기간: 20170501-201804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7년차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총서 추진 <<중국어 텍스트 빅데이터 연구 : ‘한류’ 관련 중국 보도를 중심으로>>

지원금액(원): 3,000,000 / 지원기간: 201804-202003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C.

1. 4년차

1) 한국학 자료센터 영남권역 센터 구축 사업

지원금액(원): 112,120,000 / 지원기간: 20150701-201606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정여부: 기선정

2) 디지털달성문화대전 기초조사연구 및 원고 집필 사업

지원금액(원): 142,000,000 / 지원기간: 20150701-20160331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정여부: 기선정

2. 5년차

1)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한국 書院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

지원금액(원): 400,000,000 / 지원기간: 20160901-20100831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국학 자료센터 영남권역 센터 구축 사업

지원금액(원): 112,120,000 / 지원기간: 20160701-201706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



정여부: 기선정

3. 6년차

1) 한국학 자료센터 영남권역 센터 구축 사업

지원금액(원): 112,120,000 / 지원기간: 20170701-201806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정여부: 기선정

4. 7년차

1)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추진

지원금액(원): 300,000,000 / 지원기간: 20180701-202106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D.

1. 4년차

1) 학술저서 지원사업 3년차 진행: 역전과 성인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306-201605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선정

2)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성리대전 번역 연구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009-201508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선정

3) 토대연구지원: 주자 전집 번역 및 해제

지원금액(원): 199,900,000 / 지원기간: 20150901-20200831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한국주역대전편찬, 표점, 주해, 번역, 해제의 DB구축

지원금액(원): 519,000,000 / 지원기간: 20120901-20150831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정여부: 기선정

2. 5년차

1) 학술저서 지원사업 3년차 진행: 역전과 성인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306-201605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선정

3. 6년차

1) 명저번역지원사업: 佛性與般若

지원금액(원): 45,000,000 / 지원기간: 201704-201903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7년차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총서 추진

지원금액(원): 3,000,000 / 지원기간: 201804-202003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

1. 4년차

1) 2016년도 저술출판 지원사업 신청(2월)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5-2017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5년차

1) 인문사회분야 저술출판지원사업

지원금액(원): 30,000,000 / 지원기간: 20160501-201904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3. 6년차

1) 중견연구자지원

지원금액(원): 20,000,000 / 지원기간: 20170501-201804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7년차

1) 토대연구지원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80901-20210831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F.

4년차

1) 2016년도 저술출판 지원사업 신청(2월)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5-2017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5년차

1) 2017년도 한중일 교류 협력 신청(6월)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7-2019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3. 6년차

1) 2018년도 연구교류 지원사업 신청(9월)

지원금액(원): 300,000,000 / 지원기간: 2년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7년차

1) 2019년도 우수논문 지원사업 신청(7월)

지원금액(원): 500,000,000 / 지원기간: 1년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G.

1. 4년차

1)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 신청: 한국어와 중국어 공간 개념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 대조 연구

지원금액(원): 20,000,000 / 지원기간: 201511-201610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5년차

1)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신청: 미불의 서예시 연구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605-201704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 2년차 추진: 한국어와 중국어 공간 개념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 대조 연구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611-201710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3) 대만장조금 지원사업: 20C초 대만 지식인의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

지원금액(원): 25,000,000 / 지원기간: 201601-2016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대만 외교부

3. 6년차

1)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신청: 송초 사대가의 서예시 연구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705-201804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명저번역 지원사업: 원시개설

지원금액(원): 30,000,000 / 지원기간: 201705-201804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7년차

1)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신청: 송대 서예시 연구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805-201904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명저번역 지원사업: 원시개설

지원금액(원): 30,000,000 / 지원기간: 201805-201904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5.2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 실적(최근 2년)

<표 19> 최근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환산 건수

(단위: 건)

구 분		최근 2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국내 특허	등록건수	0	0	0	0
	등록 환산건수	0	0	0	0
국제 특허	등록건수	0	0	0	0
	등록 환산건수	0	0	0	0
의장등록 건수 합계		0	0	0	0
의장등록 환산 건수 합계		0	0	0	0
특허 총 등록건수 합계		0	0	0	0
특허 총 등록환산건수 합계		0	0	0	0
참여교수 1인당 등록환산건수		X			0
참여교수 수					6

5.3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및 계획(최근 2년)

<표 20> 최근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단위 : 천원)

항목		최근 2년간 실적(천원)			전체기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특허 관련	기술료 수입액	-	-	-	-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X			
특허 이외 산업 재산권 관련	기술료 수입액	-	-	-	-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X			
지적재산권 관련	기술료 수입액	-	-	-	-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X			
Know-how 관련	기술료 수입액	-	-	-	-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X			
기술이전 전체실 적	기술료 수입액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X			
참여교수 수					6

<표 20>의 실적을 참고하여 향후 4~8차년도 개선 계획을 제시

## 5.4 참여교수 사업화 실적 및 계획(최근 2년)

### 가. 참여교수 사업화 실적

#### A.

##### 1. 4년차

1) 학술저서 지원사업 1년차 진행: 문화대혁명과 극좌파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506-201605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 선정

2) 공동연구 지원사업 1년차 추진: 중국과 문혁, 문혁과 세계

지원금액(원): 100,000,000 / 지원기간: 201509-201608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3) 인문도시 1년차 추진: 동행의 인문학

지원금액(원): 100,000,000 / 지원기간: 201509-2016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2. 5년차

1) 학술저서 지원사업 2년차 진행: 문화대혁명과 극좌파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606-201705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 선정

2) 공동연구 지원사업 2년차 추진: 중국과 문혁, 문혁과 세계

지원금액(원): 100,000,000 / 지원기간: 201609-201708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3) 인문도시 2년차 추진: 동행의 인문학

지원금액(원): 100,000,000 / 지원기간: 201609-2017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3. 6년차

1) 학술저서 지원사업 3년차 진행: 문화대혁명과 극좌파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706-201805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 선정

2) 인문도시 3년차 추진: 동행의 인문학

지원금액(원): 100,000,000 / 지원기간: 201709-2018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4. 7년차

1) 인문학국책사업, 인문강좌 지원 사업 추진

지원금액(원): 50,000,000 / 지원기간: 201809-2019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총서 추진

지원금액(원): 30,000,000 / 지원기간: 201809-2019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B.

##### 1. 4년차

1) 2016년도 저술출판 지원사업 신청(2월)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5-2017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공영방송의 이해 강좌 지원

지원금액(원): 5,000,000 / 지원기간: 20150901-20160301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방송공사

##### 2. 5년차

1) 인문사회분야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지원금액(원): 20,000,000 / 지원기간: 20160901-201904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대구지역 공공빅데이터 산업 발굴

지원금액(원): 30,000,000 / 지원기간: 20160301-20161231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대구시청

### 3. 6년차

1) 중견연구자지원

지원금액(원): 20,000,000 / 지원기간: 20170501-201804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4. 7년차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총서 추진 <<중국어 텍스트 빅데이터 연구 : ‘한류’ 관련 중국 보도를 중심으로>>

지원금액(원): 3,000,000 / 지원기간: 201804-202003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C.

### 1. 4년차

1) 한국학 자료센터 영남권역 센터 구축 사업

지원금액(원): 112,120,000 / 지원기간: 20150701-201606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정여부: 기선정

2) 디지털달성문화대전 기초조사연구 및 원고 집필 사업

지원금액(원): 142,000,000 / 지원기간: 20150701-20160331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정여부: 기선정

### 2. 5년차

1)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한국 書院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

지원금액(원): 400,000,000 / 지원기간: 20160901-20100831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국학 자료센터 영남권역 센터 구축 사업

지원금액(원): 112,120,000 / 지원기간: 20160701-201706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정여부: 기선정

### 3. 6년차

1) 한국학 자료센터 영남권역 센터 구축 사업

지원금액(원): 112,120,000 / 지원기간: 20170701-201806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정여부: 기선정

### 4. 7년차

1)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추진

지원금액(원): 300,000,000 / 지원기간: 20180701-202106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D.

### 1. 4년차

1) 학술저서 지원사업 3년차 진행: 역전과 성인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306-201605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선정

2)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성리대전 반역 연구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009-201508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선정

3) 토대연구지원: 주자 전집 번역 및 해제

지원금액(원): 199,900,000 / 지원기간: 20150901-20200831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한국주역대전편찬, 표점, 주해, 번역, 해제의 DB구축

지원금액(원): 519,000,000 / 지원기간: 20120901-20150831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정여부: 기선정

2. 5년차

1) 학술저서 지원사업 3년차 진행: 역진과 성인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306-201605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여부: 기선정

3. 6년차

1) 명저번역지원사업: 佛性與般若

지원금액(원): 45,000,000 / 지원기간: 201704-201903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7년차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총서 추진

지원금액(원): 3,000,000 / 지원기간: 201804-202003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

1. 4년차

1) 2016년도 저술출판 지원사업 신청(2월)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5-2017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5년차

1) 인문사회분야 저술출판지원사업

지원금액(원): 30,000,000 / 지원기간: 20160501-201904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3. 6년차

1) 중견연구자지원

지원금액(원): 20,000,000 / 지원기간: 20170501-20180430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7년차

1) 토대연구지원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80901-20210831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F.

4년차

1) 2016년도 저술출판 지원사업 신청(2월)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5-2017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5년차

1) 2017년도 한중일 교류 협력 신청(6월)

지원금액(원): 200,000,000 / 지원기간: 2017-2019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3. 6년차



1) 2018년도 연구교류 지원사업 신청(9월)

지원금액(원): 300,000,000 / 지원기간: 2년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7년차

1) 2019년도 우수논문 지원사업 신청(7월)

지원금액(원): 500,000,000 / 지원기간: 1년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G.

1. 4년차

1)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 신청: 한국어와 중국어 공간 개념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 대조 연구

지원금액(원): 20,000,000 / 지원기간: 201511-201610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5년차

1)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신청: 미불의 서예시 연구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605-201704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 2년차 추진: 한국어와 중국어 공간 개념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 대조 연구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611-201710 / 자격: 공동연구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3) 대만장조금 지원사업: 20C초 대만 지식인의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

지원금액(원): 25,000,000 / 지원기간: 201601-201608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대만 외교부

3. 6년차

1)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신청: 송초 사대가의 서예시 연구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705-201804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명저번역 지원사업: 원시개설

지원금액(원): 30,000,000 / 지원기간: 201705-201804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4. 7년차

1)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신청: 송대 서예시 연구

지원금액(원): 10,000,000 / 지원기간: 201805-201904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명저번역 지원사업: 원시개설

지원금액(원): 30,000,000 / 지원기간: 201805-201904 / 자격: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나. 참여교수 1인당 사업화 개선 계획

<표 21> 참여교수 1인당 사업화 목표

(단위 : 건, 천원)

구분		연도별 목표				
		4차년도( '16.3~' 17.2)	5차년도( '17.3~' 18.2)	6차년도( '18.3~' 19.2)	7차년도( '19.3~' 20.2)	8차년도( '20.3~' 20.8)
전체 사업화	건수	15	13	9	9	9
	액수(천원)	2,026,020	1,057,120	647,120	676,000	676,000
참여교수 1인당 사업화	건수	2.5	2.17	1.5	1.5	1.5
	액수(천원)	337,670	176,186	107,853	112,666	112,666

## 5.5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적교류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산학친화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론 중심의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문제해결능력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며, 산업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인간과 환경중심의 초연결 산업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통합전공 성격 과목을 개발하며, 교수 간 융합 공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분야창출 및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산업현장과의 활발한 소통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현장 적응력을 키우고 능동적인 작업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현장실습 전략을 개발하며,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과 연구에 반영하여, 산학협력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산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협업에서부터 마케팅까지 통합형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지향하며, 문화사업 기관이나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 연계형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 혹은 관련 업체 등과의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원 졸업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사업의 구조 개편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연구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산업단지인 경북테크노파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산학 공동 연구와 정보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사업단은 이와 같은 지원방침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우리 사업단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인적교류 및 실무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쌓아 온 실적은 다음과 같다.

### 1. 특강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확보

우리 사업단은 정기 세미나를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초청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1) 김경달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사업정책실장(2014년 3월, 주제: [융합시대, 문화콘텐츠와 플랫폼의 변화-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 2) 윤애숙 윤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장(2014년 4월, 주제: [인문학과 문화콘텐츠학의 융합을 위한 과제-인문콘텐츠의 이해와 개발론을 중심으로])
- 3) 이수준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총영사(2014년 4월, 주제: [외교관 생활과 문화체험])
- 4) 김남일 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현 경주 부시장, 2014년 5월, 주제: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 5) 백승운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팀장(2014년 10월, 주제: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 6) 류은영 MMN크리에이티브 대표/전주세계소리축제 영상크리에이터(2014년 11월, 주제: [방송과 스토리텔링])
- 7) 김준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2014년 11월, 주제: [스토리텔링과 문화산업])
- 8) 김혁 테마파크 파라다이스 대표(2014년 11월, 주제: [테마파크 스토리텔링])

### 2. 강의 개설을 통한 네트워크 확보

우리 사업단의 참여교수진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강의를 개설하여 강의의 폭을 넓히는 한편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처와도 다양한 사업을 모색 중에 있다.

- 1) 2014년도 2학기 강의(강의명: 동아시아문화콘텐츠이론) / 담당교수: 윤애숙  
- 윤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윤애숙(사업자등록번호: 502-28-83971)
- 2) 2015년도 1학기 강의(강의명: 동아시아대중문화) / 담당교수: 서성희  
- 영화와 소통하기, 대표: 서성희(사업자등록번호: 850-07-00044)

### 3. 국내외 연수를 통한 네트워크 확보

우리 사업단은 국내외 연수를 통해 동아시아문화학과와 관련된 기관 및 지역 문화를 직접 견학,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적 감각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해외 연수의 경우, 한국과 근거리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아가 베트남으

로까지 이어질 예정(2016년 2월,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에서 연수 프로그램 진행 예정)으로, 주변 국가의 우수 대학 학생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문화학과생들의 시야를 확장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우리 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결국 동아시아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적 근거 확보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1) 국내 연수

- ① 2015년 4월 10~11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견학(안동)
- ② 2015년 8월 14~15일, 경북 유교문화 견학(울진)

2) 해외 연수

- ① 2014년 8월 일본 간사이 대학
- ② 2015년 2월 중화민국 타이완국립대학

4. 국제활동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 확보

우리 사업단은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 및 일본 간사이대학과 2012년부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 국제학술대회는 일 년에 세 번씩 한·중·일 3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3국의 학자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하면서,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교류하고 학문 네트워크를 해외로 확장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1) 2012년 2월 24~28일

간사이대학 ‘日中韓次世代フォーラム(제1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The Japan-China-Korea Conference on the Next Generation Scholarship in Humanities)’ 발족 및 1차 포럼 ‘還流하는 동아시아’

2) 2012년 7월 19~23일

간사이대학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3) 2012년 11월 2일

영남대학교 주최 제3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4) 2013년 2월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5) 2013년 12월

간사이대학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日中韓伊院生フォーラム)

6) 2014년 2월 25~26일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中日韓意研究生論壇2014全球視野下的東亞文化價值)

7) 2014년 8월 25~28일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 개최된 제7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2014년 4개국 차세대연기자 국제학술대회)

8) 2015년 2월 25~29일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대학원 학술대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인적교류 및 실무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업단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적 교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시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도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시 동구 골목투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경상북도와 더불어 ‘글로벌리즘: 대구·경북과 동아시아’란 연구 과제를 추진, 울진 등 지자체와의 공동협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사업 참여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 대학과 계약학과 협력을 맺고 있는 구미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추진하여, 삼성전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과의 비전 및 우리가 개발한 문화콘텐츠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셋째, 타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문화학과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융합 학문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단의 참여 교수인 A를 중심으로 학계에서 바라본 빅데이터와 인문학의 관계를 논의하는 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호남 4개 대학(영남대, 동아대, 조선대, 원광대)이 참여하여 인문학 연구에서 빅데이터의 적용 및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교수 B는 B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2014년 Daegu gyu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DISC)에서는, 참여 대학원생들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소셜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 분석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인문학과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및 ICT 기술 등과의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2015년 DISC는 국제 컨퍼런스 기간 동안 중국 빅데이터센터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중국어 어학 능력과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학과 참여 대학원들이 국제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넷째, 새로운 강의개설 및 특강을 통해 지적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외부 실무전문가들의 강의 개설을 통해 개설된 학과 강의의 폭을 넓히고 산학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구할 것이다. 앞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개설한 새로운 강의명은 다음과 같다.

- 1) 2015-2, 윤애숙 윤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장, 강의명: [동아시아문화콘텐츠분석과 제작]
- 2) 2016-1, 백승운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팀장, 강의명: [지역문화와 스토리텔링의 이해]
- 3) 2016-1, 김준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강의명: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 4) 2016-2, 김태욱 (주)스토리엔 대표, 강의명: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사례-브랜드 스토리텔링 마케팅]
- 5) 2016-2, 주인석 이경기획 대표, 강의명: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관광스토리]
- 6) 2016-2, 정창권 고려대학교양교직부교수, 강의명: [스토리텔링 기획 및 구성(기획창작 및 발굴, 리텔링)]

그밖에도 우리 사업단은 대구시 산하 국제 행사 유치 및 컨벤션 기관인 대구컨벤션뷰로의 지원을 통해 2016년 8월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할 계획에 있다. 대구 지역의 관광, 홍보, 국제 교류에 힘쓰고 있는 대구컨벤션뷰로와의 협력을 통해 학제적 기반의 국제학술대회와 더불어 문화·관광 홍보 영역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

## 5.6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우리 사업단은 아래와 같은 연구 과제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 실적

#### 1) 경상북도 도청과의 협력관계

우리 사업단은 경상북도 도청 전유진 담당과 협력하여 [경북 속의 중국, 중국 속의 경북]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의 ‘제1단계(2013년): 만주와 대구·경북 지역에서 본 동아시아 인문학의 모색’ 계획과 부합하는 것으로 산학협력의 사례로도 간주될 수 있다. 그 사업계획서의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24] [경북 속의 중국, 중국 속의 경북] 사업계획(안)([慶中之交 中慶知音] 事業計劃(案))

[경북 속의 중국, 중국 속의 경북] 사업계획(안)([慶中之交 中慶知音] 事業計劃(案))

#### << 목 차 >>

1. 사업의 배경 및 문제제기 / 1
2. 현황 SWOT 분석 / 2
3. 향후 전망과 과제 / 3
4.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4
5. 사업단 소개 및 사업 적합성 / 5-6
6. 사업 참여 인원 및 교외·해외 협력 네트워크 / 7-8
7. 단계별 추진전략 / 9-12
8. 사업의 성과물과 기대효과 / 13
9. 단계별 사업 내용 예시 / 14-26
- 첨부 1. 국제학술대회 계획서 / 27
- 첨부 2. 사업 홍보 전략 / 28
- 첨부 3. 사업계획안 관련 사이트 목록 / 29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특화전문 인재양성사업단

#### 2) 경산 시청과의 협력관계

우리 사업단은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한국연구재단 지원의 [2015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과제명은 [동행의 인문학: 청년인문도시 경산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참고 18] [동행의 인문학: 청년인문도시 경산 만들기 프로젝트 제안서] 참고)

[2015 인문도시지원사업 추진계획서]

과제명 : [동행의 인문학 : 청년인문도시 경산 만들기 프로젝트]

책임자 : A / 영남대 문과대 사학과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 조현숙 / 경산시청 인재양성과장

신청기간 : 3년, 신청기관 유형 : 단독

신청기관 : 영남대학교 / 대표자 : 노석균

참여기관 :

경산시(기관장: 최영조, 역할: 대응부담금 제공, 각종 업무 협조)

경산시립박물관(기관장: 조찬호, 역할: 강의 장소 전시 체험 공간 제공)

영남대박물관(박성용, 역할: 강의 장소, 전시, 체험 공간 제공)

예산:

1차년도 (국가신청액 : 100,000천 원 / 지자체(경산시) 대응부담금: 10,000천 원)

2차년도 (국가신청액 : 100,000천 원 / 지자체(경산시) 대응부담금: 10,000천 원)

3차년도 (국가신청액 : 100,000천 원 / 지자체(경산시) 대응부담금: 10,000천 원)

I. 인문도시 내용

1. 추진목적

1) ‘동행의 인문학’ 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동행의 인문학, 공생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은 분리·배제와 소외의 인문학을 넘어 동행과 통합의 인문학을 추구한다는 목적 하에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인문 공동체로서의 청년인문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 공생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추구하는 ‘공생사회’에 대해 간단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폐쇄적 동질성이나 고독한 개인주의를 타파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한 바탕에서 그 차이의 연결이 실현된 상태를 지칭한다. 이는 곧, 공동성 안에 있으면서도 그 공동성을 넘어서는 공생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둘째, 공생, 즉 더불어 사는 삶은 공동의 고통(共苦)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셋째, 공생사회는 차이를 배제시키거나 동화시키는 닫힌 공동체를 지양하는 동시에 배제된 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결사와 유대의 원리’를 다층적·횡단적으로 실현한다.

2) 왜 ‘동행의 인문학’ 인가?

타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행의 인문학’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인문학의 본질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본질 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인문학이 직면하고 있었던 심각한 분리 현상을 극복하면서 실천적 에너지를 획득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심각한 분리 현상이란 ‘① 인문학의 비현실적 아카데미즘과 맹목적 현실추구주의의 양 편향, ② 과거와 현재, ③ 성찰과 실용, ④ 대학과 지역, ⑤ 지역주의와 세계주의, ⑥ 대학과 기업, ⑦ 인문학과 공학, ⑧ 인문학과 지역(민), ⑨ 민족과 세계’에 걸쳐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러 층위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분리 현상을 극복하고자 ‘동행’을 새로운 가치로 내세우고자 한다.

‘동행’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통해 본 사업이 제안하고자 하는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구·진망의 분리에 따른 인문학 연구·교육의 비현실적 아카데미즘과 맹목적 현실추구주의의 양 편향 극복

② 과거와 현재의 동행·대화를 통한 인문학의 본령 회복

③ 성찰과 실용의 동행·대화를 통한 인문학의 가치 회복

④ 대학과 지역(민)의 동행을 통한 연구·교육의 대중화와 현실화 추구

⑤ 지역의 고유 역사 문화에 대한 이론화와 비교 검토를 통해 글로컬(Glocal) 인문학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세계화, 세계의 지역화에 기여

⑥ 기업을 상대로 한 인문학 특강, 대구·경북 지역 CEO 대상 인문학 특강, 기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⑦ 인문학과 공학의 연계 프로젝트 개발, 공학자와의 공동 저술 출판, 공동 강연, 공동 강의 개발

⑧ 박물관대학(영남대학교 박물관 문화강좌 현재까지 50회 진행)을 통한 역사학의 대중화 진행, 대중강연, 전시를 통한 인문학의 확산

⑨ ‘민족과 세계의 동행’을 추구하는 ‘세계시민 양성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시대에 맞는 윤리 교육을 위한 특강프로그램 운영, 국제기구 탐방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주의 봉사 프로그램 운영

3) 산학협력기관과의 MOU체결

동아시아문화학과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하여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과 MOU 협약을 체결하여 참여 대학원생들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참고 21], [참고 22] 참고)

[영남대학교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

영남대학교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경북의 문화콘텐츠자산 발굴과 문화융합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융합 · 문화콘텐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서는 영남대학교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의 상호 교류를 통해 경북의 문화융합 및 문화콘텐츠, 교육, 연구 및 관련 사업의 성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참여 범위)

본 협약에는 영남대학교의 문화융합디자인생태계조성사업단, 동아시아문화학과(글로벌동아시아 문화콘텐츠전문인재양성사업단), 융합미디어디자인센터 등 산하 기관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한다.

제 3 조 (협력 범위)

양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1. 문화융합디자인생태계조성사업단, 동아시아문화학과(글로벌동아시아 문화콘텐츠전문인재양성사업단), 융합미디어 디자인센터 등 산하 기관과의 재정 사업 및 프로젝트 상호협력
2.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소재 발굴 및 개발
3.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정보 교류 및 교육 · 기술자문 지원
4. 문화융합 및 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협력 사항

제 4 조 (협력 원칙)

1.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2. 양 기관은 상호 교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5 조 (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상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사안은 양 기관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6 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장이 모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폐기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15일

영남대학교  
총장 노석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준한

[영남대학교와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

영남대학교와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은 대구 · 경북의 문화콘텐츠자산 발굴과 문화융합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융합 · 문화콘텐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서는 영남대학교와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의 상호 교류를 통해 대구·경북의 문화융합 및 문화콘텐츠, 교육, 연구 및 관련 사업의 성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참여 범위)

본 협약에는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글로벌동아시아 문화콘텐츠전문인재양성사업단)와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이 참여한다.

제 3 조 (협력 범위)

양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1. 동아시아문화학과(글로벌동아시아 문화콘텐츠전문인재양성사업단)와의 재정 사업 및 프로젝트 상호협력
2. 대구·경북의 문화콘텐츠 소재 발굴 및 개발
3.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정보 교류 및 교육·기술자문 지원
4. 문화융합 및 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협력 사항

제 4 조 (협력 원칙)

1.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2. 양 기관은 상호 교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5 조 (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상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사안은 양 기관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6 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장이 모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폐기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3월 2일

영남대학교  
총장 노석균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최종철

4) 산학협력을 위한 인턴실무교육

우리 학과와 MOU를 체결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동 기관에 대학원생을 파견하여 인턴사원으로 실무교육을 받은바 있으며, 이러한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활동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기간: 20150223~20150417 박사과정 정남희, 석사과정 정호운)
- ②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기간: 2015. 7월. 석사과정 정혜운, 장아름, 서보현)



한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15년 경북 스토리텔링 아카데미](20150720~20150824(월, 수) 14:00~18:00)에도 학과 대학원생들을 참여시켜 스토리텔링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실무 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학과 차원에서 경비도 지원하였다(참여 학생: 박사과정 정남희, 박사과정 김태환, 석사과정 정호윤).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5) 공동 세미나

### ① 외부 전문가 강의 개설

- 2014년도 2학기 강의(강의명: 동아시아문화콘텐츠이론)  
담당교수: 윤애숙(‘윤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 2015년도 1학기 강의(강의명: 동아시아대중문화)  
담당교수: 서성희(‘영화와 소통하기’ 대표)

### ② 기획 특강

2014년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특강 개설

- 백승운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팀장(2014년 10월, 주제: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 류은영 MMN크리에이티브 대표/전주세계소리축제 영상크리에이터(2014년 11월, 주제: [방송과 스토리텔링])
- 김준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2014년 11월, 주제: [스토리텔링과 문화산업])
- 김혁 테마파크 파라다이스 대표(2014년 11월, 주제: [테마파크 스토리텔링])

### ③ 외부 초청 세미나

- 김경달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사업정책실장(2014년 3월, 주제: [융합시대, 문화콘텐츠와 플랫폼의 변화-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 윤애숙 윤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장(2014년 4월, 주제: [인문학과 문화콘텐츠학의 융합을 위한 과제-인문콘텐츠의 이해와 개발론을 중심으로])
- 이수준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총영사(2014년 4월, 주제: [외교관 생활과 문화체험])
- 김남일 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현 경주 부시장, 2014년 5월, 주제: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 2. 계획

### 1) 학술대회

#### ① [Daegu kyu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DISC) 2015](20151029~20151031)

참여교수인 B가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학술대회로 2014년의 경우 학과 참여 대학원생 5명이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10월에도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본 학술대회는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열리고 있는 국제학술대회로서, 2015년의 경우 중국빅데이터센터와 공동으로 빅데이터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문학, 사회과학을 비롯하여 IT 분야의 연구진들이 참가하여 융합학문의 다양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② [빅데이터와 인문학](20151030-20151031)

영호남 4개 대학(영남대, 동아대, 조선대, 원광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으로 ‘빅데이터와 인문학’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는 최근 세계는 물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준거틀로 자리 잡혀 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사회적 경향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올바른 시대적 흐름인가 방법론적으로 보완될 여지는 없는가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인문학의 발목 잡기가 아니며 사회과학 등 기타 학문에 대한 폐쇄적 담쌓기가 아니다. 보다 바람직한 학제간 연구 및 이론과 현실의 동행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 할 것이다.

### 2) MOU 체결 확대

우선 영남대와 중국 중경대학(충칭대)은 2015년 8월 MOU를 체결했다. 이에 앞으로 학술교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경대학은 재학생 5만 명 규모의 국립 종합대학으로 28개 단과대학과 90개 학부과정, 256개 석사과정, 133개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이다. 특히, 환경건축, 공학, 기술,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중국내 10 위권에 속하는 교육부 직속의 국가 중점대학으로, 산학협력의 분야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다음 영남대와 쓰촨외국어대학은 ‘학부 3+1’ (쓰촨외국어대학 학부 3년 수학 후 영남대 유학 1년) 과정, ‘대학원 1+1’ (쓰촨외국어대 대학원 1년간, 영남대 대학원 1년 수학 후 다시 모교로 돌아가 졸업) 과정, 동시통역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학술교류에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학원 1+1’ 과정의 경우, 동아시아문화학과와 일본 간사이대학 사이에 체결된 대학원 교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해외 우수 대학과의 MOU 체결을 위한 바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업단은 이러한 MOU 체결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문화학과의 연수 프로그램 및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유관 기관과의 MOU를 통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또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MOU를 체결할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북 테크노파크 (<http://www.gbtp.or.kr/>)

1998년 8월 설립되어 경북지역 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우리 사업단과 경북에 산재한 문화산업 기업들과의 연계를 원활히 해줄 창구가 될 것이다.

② 대구 테크노파크 (<http://www.ttp.org/dtp/DtpMain.dtp>)

1998년 설립된 이후 대구벤처센터, 벤처공장 신기술상업지원센터, 대구융합R&D센터 등 13개동 10만여m<sup>2</sup> 공간과 1천여대의 첨단장비와 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전략진흥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산업,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IT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우리 사업단과 함께 융복합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데 기대가 매우 크다.

③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ei.creativekorea.or.kr/daegu/main.do>)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프로그램을 연계·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삼성이 지원하며, 창의적인 아이템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위한 기반 시설들을 제공하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특허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 사업단의 참여 대학원생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인문학 기반의 아이디어를 IT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과 관련된 지식 또한 얻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창업으로 연계되어 인문사회 연구와 IT산업의 결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계획이다.

④ 삼성 스마트 시티 (<http://samsungsmartcity.com/>)

경북 구미에 위치한 삼성 스마트 시티는 삼성의 모바일 산업의 집약점이다. 제 1, 2 캠퍼스로 구성되어, 1 캠퍼스에서는 이동통신, LTE, 네트워크 생산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주로 다루며, 2 캠퍼스에서는 갤럭시 휴대폰을 비롯하여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 사업단과의 MOU 체결을 통해 삼성의 모바일 제품에 포함될 인문학적 콘텐츠, 앱들의 제작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사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등과의 협력 확대 및 참여

인문학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된 문화콘텐츠(동아시아 역사문화 해설 분야, 동아시아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분야, 다문화관련 분야, 국제행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소나 기획사 등을 설립하여 사회자본과의 결합을 시도하거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인턴을 파견하여 현장 실습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참가자 모집], [제2기 경북 스토리 클럽, 스토리기자단 모집(운영기간: 201507~상시)]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향후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장소성 콘텐츠 포지셔닝’, ‘융합문화관광 메카 실현’, ‘동아시아 콘텐츠

츠 허브 구축’, ‘한류 3.0 선도하는 세계적 관광명소 선점’ 등의 주제는 우리 사업단의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사업에 우리 사업단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동시에 교과부 등 정부 주도의 인문지능사업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국책사업(인문도시지원사업, 인문브릿지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외에 경상북도 지역의 우수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 활동을 확대하여 이후 산합협력 프로그램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산합협력이 기대되는 지역의 콘텐츠산업 기업들을 다음과 같다.

① (주)경주고택

경주고택은 문화재와 인접한 전통 고택을 기본으로 하여 단순 숙박 목적만이 아닌 신라 천년의 흥망성쇠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고택체험,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연결하여 고도 경주 방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설립연도 2013년, [www.gigotaek.kr](http://www.gigotaek.kr)

주요 콘텐츠 / 프로그램 - 다도체험, 전통예절, 서원예절, 각종 민속활동 등

② (사)경주전통문화다레연구원

경주전통문화다레연구원은 혼합형 사회적 기업으로서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립연도 2007년, [www.mundam.com](http://www.mundam.com)

주요 콘텐츠 / 프로그램 -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③ (주)니벤스컴퍼니

니벤스 컴퍼니는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3SCREEN (TV/MOBILE/PC)에 적합한 게임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설립연도 2010년, [www.nibens.co.kr](http://www.nibens.co.kr)

주요 콘텐츠 / 프로그램 - 모바일 게임 s/w개발

- 아이큐팡: 푸토엔터테인먼트(대표 홍계운)와 니벤스컴퍼니(대표 황성민)가 공동 개발한 퍼즐 게임 아이큐팡 for kakao

④ (주)풍류일가

풍류일가는 웹툰, 그래픽소설, 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스토리 형식으로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설립연도 2007년, [www.storee1.com](http://www.storee1.com)

주요 콘텐츠 / 주요사업 - 스토리텔링 기업연수교육, 만화(웹툰 개발), 공연기획(역사인물관련)

- 2013년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관련 웹툰 제작 - 황태자의 하루

- 2013년 퇴계이황과 단양관기의 지고지순한 사랑 - 한선비의 러브스토리

- 2013년 어느 부부의 영원한 사랑 -원이 엄마

⑤ 키사(KISA)

키사(KISA)는 온라인동영상 교육을 통하여 직업능력의 개발 및 자격증 취득으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사이버 교육기관이다.

설립연도 2004년, [www.kisa.co.kr](http://www.kisa.co.kr)

주요 콘텐츠 / 프로그램 -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온라인 교육 - 국가기술자격증, 기술계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공, 한국어 교육

⑥ (주)제로온

제로온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여진 오랜 노하우의 3D 기반 고급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사 촬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퀄리티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뛰어난 성능의 3D엔진과 메모리 리소스 관리 기술을 결합하여 실제와 유사한 수준의 3D VR 콘텐츠를 제공한다. 옛날 유물들과 고증된 여러 가지 문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조시대의 의

복과 사물, 건물 등을 3D로 복원 및 재현하여 보다 사실적인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옛 문헌에 기초하여 역사에 나오는 일화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보다 교육적이고 관광 문화 사업에 보탬이 되는 영상을 제공한다.

설립연도 2011년, [www.zeroon.com](http://www.zeroon.com)

주요 콘텐츠 / 주요사업- 문화유적지 복원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 향로표지 모델 3D DB 구축 사업

- 발굴 유물 3D 복원 및 DB구축 사업

⑦ 한국공룡월드(주)([www.koreadinosaur.com](http://www.koreadinosaur.com))

한국공룡월드는 중국 사천성에 본사를 두고 한국 외 전 세계를 상대로 조형물 제작, 판매, 임대를 하는 회사이다. 테마파크, 전시장, 지자체시설물에 홍보, 마케팅, 투자, 운영, 전문경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합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적과 계획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지역을 무대로 한 취업컨설팅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자원과 결부한 스토리텔러의 양산과 문화·관광 산업에의 진출, 산업체와 연계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 산업과 관련한 인터넷 기반의 빅데이터 지능형 서비스망 구축 등을 주요 활동 영역으로 고려해서 진행할 것이다.

## 5.7 취·창업을 포함한 산학협력 지원체계의 우수성

우리 사업단은 취·창업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취·창업 지원활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지원체계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학협력활동이 추진될 계획이다.

1. 한중일 삼국 대학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한 학기 한 번 이상 해외 산업현장 시찰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 주고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 동아시아 관광 관련 산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과 연계하여 국가간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상시 인력공급체계를 도입하여 필요한 때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인력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는 이미 2014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일본 간사이대학과 중화민국 타이완국립대학에 학과 대학원생들을 파견하여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2015년의 경우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에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동아시아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관련 산업을 익히고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3. 동아시아 제 국가에서 인문학에 기반한 유망한 산업을 발굴하여 산업체 단기 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융복합 산업의 창출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4. 동아시아대학 소재 대학원생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스마트네트워크 환경에 걸맞은 빅데이터DB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5. 우수한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과 현장 실무 학습에 기여할 계획이다.

본 사업단은 이미 국내 우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그 영역을 해외로 확장하여 국가의 영역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전문가 특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의 콘텐츠화개발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개설예정
  - 윤애숙(윤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장), [동아시아문화콘텐츠이론](2014년도 2학기), [동아시아문화콘텐츠분석과 제작](2015년 2학기 개설 예정)
  - 서성희(영화와 소통하기 대표), [동아시아대중문화](2015년도 1학기)
2. 외부 문화콘텐츠관련 연구소와 산학협력 추진(2015년도 1학기~)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인턴과건 프로그램] 참가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교육] 교육생 지원
3. 외부 전문 프로그램을 수업에 도입(2015년도 2학기)
  - 참여교수 B의 강좌 [동아시아사회관계망세미나]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전략센터의 빅데이터 교육실습 과정 도입

<사업단 지원 영역>

## 6 사업단 지원

### 6.1 대학차원의 특성화 계획과의 연계성

우리 사업단은 2015년 ‘영남대학교 대학원 발전계획’의 목표와 특성을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 문화학과 발전 및 특성화 계획’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수직적이며 일방적인 작업이 아니며, 우리 사업단 역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발전계획’에 영향을 주면서 대학원과 사업단의 공동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YU the Future 미래를 만드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수준의 지역거점 사립대학’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영남대학교 대학원은 이러한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두고 ‘미래창조 지식생산’을 대학원의 비전으로 삼아, ‘융복합 연구특성화’, ‘산학협력 역량강화’, ‘국제적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 구축’을 비전 성취를 위한 3대 목표로 구체화하였다. 이렇게 구체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원은 ‘연구’, ‘캠퍼스’, ‘교육’, ‘국제화’, ‘행정’ 이상 5개 분야에서 각각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영남대학교 대학원은 ‘미래창조 지식생산 거점’이 되고자 하며, 융복합적 연구와 산학협력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혁신(현장밀착형, 융복합형), 교육인프라 지원, 행정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대학원은 2014년 3월 동아시아문화학과가 신설되면서 필요로 하였던 여러 교육인프라(사무 및 행정 공간/제2인문관 407호·수업 전용공간/인문관 252호, 행정유급조교 파견, 사무기자재 등)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동아시아문화학과의 신설에 발맞추어 ‘융복합 연구특성화’ 목표의 하위에 ‘문화창출 특성화’ 항목을 만들어, 동아시아문화학과의 융복합성을 대학원의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였다. 대학원이 지향하는 여러 인재상 가운데 문화적 소양을 갖춘 문화예술전문가 양성도 포함되었다. 이것은 대학원과 사업단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으며, 상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참고 25] 영남대학교 대학원 발전계획 2면 발전계획도 참조)

우리 사업단의 기본적 방향인 ‘글로벌리즘’은 영남대학교의 ‘세계수준의 지역거점 사립대학’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세계화(글로벌화)’와 ‘지역거점화(로컬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특성화 비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우리 동아시아문화학과가 지향하는 ‘글로벌 동아시아문화학’은 대학원 협동과정으로써 개별전공의 벽을 허무는 융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사업단은 ‘특화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이는 대학원의 ‘산학협력 역량강화’ 목표와 방향이 동일하다. 우리 사업단은 이론과 실무의 두 트랙 교육과정을 통해서 현장밀착형 문화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대학원의 ‘국제화’에 있어서도 우리 사업단과 대학원은 협력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전국 최초로 2014년 8월 개소한 [경북글로벌교류센터]를 영남대학교 부지 내에 유치하는 등 외국인 연구자와 유학생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우리 동아시아문화학과는 간사이대학과의 대학원생 공동학위제도를 체결하여 현재 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있다.([참고 23] [간사이(關西)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외국어교육학연구과, 동아시아문화연구과와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간의 학위취득에 관한 협정] 참조) 이러한 학과의 활동은 대학의 국제화 노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인프라는 교환학생들의 국내 적응과 수월한 학업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4월에 진행된 [해외우수 대학원생 유치 활동]에 우리 사업단 단장이 영남대학교 대학원의 대표로 참여하여 2학기 동아시아문화학과 신입생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업단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과의 신설과 국제화에 이르기까지 학과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학의 특성화 계획이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업단이 가진 ‘글로벌리즘’이라는 철학이 비단 개별 학과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고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세계화 시대에 지역에 자리한 대학(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사업단은 고민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 대학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다.

## 6.2 대학의 해당 분야 대학원 재정투자 실적 및 계획

### 가. 대학의 해당분야 대학원 재정투자 실적

#### 1. 대학원 및 연구지원 관련 재정투자 실적

##### 1) 재정투자실적 총괄

###### 장학금 및 연구인력 지원

- 2013년 대학원 장학금 지원 : 교내 8,851,293,000원, 교외 472,164,000원  
총액 8,853,306,000원
- 2014년 대학원 장학금 지원 : 교내 10,061,505,000원, 교외 380,018,000원  
총액 10,063,519,000원
- 2015년 대학원 장학금 지원 : 교내 9,720,639,000원, 교외 503,480,000원  
총액 9,720,639,000원

##### 2) 재정투자실적 세부내역

###### ① 대학원생 장학금 총 수혜내역(교내·교외 장학금)

- 최근 2년간(20130901~20150831) 총 308억 원의 등록금 수입 중 총 20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65%의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원생 지원 확대에 의한 대학원생 확충은 교수 연구 실적의 동반 상승을 가져옴

###### ②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 (최근 2년간 평균 실적)

- 인문계 : 61.30%
- 최근 2년간(20130901~20150831) 인문계 대학원 총 등록금 13,053,516,000원에서 장학금이 8,001,571,000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인문계 대학원생 2,986명에게 61.30%의 비율로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다.

###### ③ 대학원 운영비 지원

- 대학원 운영비는 대학원생들의 실험실습비와 학술활동 및 학생지원 등을 위해 매년 5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임
- 순수 학생들을 위한 직접 투자 비용으로써 대규모 기계, 집기 및 시설 투자를 제외한 금액임
- 대학원 교과지원 운영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연구 활동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술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학술활동 경비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학회 참석 및 논문게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함
- 대학원 행정실에서 대학원 전체차원의 일괄적인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학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들을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④ 교비연구과제 지원

- 연간 평균 352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비공모, 신입교원지원, 연구년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원
- 등록금 인하와 여러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비를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있음

###### ⑤ 외부 사업단별 과제 실적(교비대응 포함)

- 평균 15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산업연계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관련 연간 10억 원, 지자체 3년 합계 100억 원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음

⑥ 외부연구과제 수탁 실적

- (2013년) 과제 수 : 697, 과제금액 : 49,477,922천 원
- (2014년) 과제 수 : 756, 과제금액 : 50,771,811천 원
- (2015년) 과제 수 : 433, 과제금액 : 29,799,550천 원

⑦ 외부 연구비

- 교비지원 연구 과제 결과물 추가를 통한 외부연구과제 수주 증대 유도
- 대형외부과제 수주 증대 방안마련
- 국제저명주저자 논문 1편의 일반업적점수와 필수업적점수 계열별 반영 비율대로 인문사회계열은 30만 원당 1점 필수업적점수로 반영

3) 우수학술지 장려금 지원

국내&#10625 국제 논문 평가 방안

- 논문게재료 및 우수학술지 게재논문 장려금 지원제도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까지 확대
- 우수학술지 논문 장려금 : 영향력 지수 상위순위 따라 차등지급(최대 10,000천 원)
- 교비지원제도 결과물 등급상향 조정(영향력지수 30% 및 80% 이내)
- ▶ 우수학술지 장려금 지급액(최근 2년 기준)
- 2013년 : 670,179천 원, 2014 : 2,096,181천 원, 2015년 : 1,680,298천 원

2. 향후 4년간 대학원 재정투자 계획

1) 대학원 및 연구지원 재정투자 세부 계획

① 기본방향

- 학생투자 : 장학금 투자, 대학원 교과 지원, 학술활동 지원
- 장학금 지급액(최근 2년 기준) : 인문계 : 76억 원
- 1인당 장학금 지급 비율 : 인문계 : 61.3%
- 연구지원 : 교비연구과제 지원, 연구소 지원, 산학협력단 연구 과제 수주 지원
- 교비연구과제 : 연평균 약 32억 원 지원
- 산학협력단 연구 과제 수주 지원(최근 3년) : 2,724,735천 원

② 장학금 투자 : 매년 100억 원 수준의 학생들에게 각종 다양한 장학혜택을 제공하여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학문분야별 장학금 지급 규모를 유연하게 운용할 예정

③ 대학원 운영비 투자

- 각 학문분야에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학원 운영비 매년 5억 원 규모 투자
- 선택과 집중, 단계적인 지원 증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예정
- 대학원 교과지원 운영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술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학술활동 경비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학회 참석 등의 학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즉 대학원 전체차원의 일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과별 예산을 구분 편성하여, 각 대학원 전공 및 학과가 가지는 독창성과 특수 분야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과별 브랜드화 및 운영의 독립성도 존중하여, 지역사회 연계 및 산학협력 등의 시대요구사항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④ 산단 연구 과제 수주 시 대학 대응자금 지원(사업단 과제 포함)

- 각종 대외 연구 과제 및 사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자금 확보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구 과제 수주를 독려하여 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산업과 연관되는 사업단, 과제 등에 대하여 우선적 지원

### 3. 대학에서의 동아시아문화학과의 재정투자 실적

#### 1) 장학금 및 연구인력 지원액

##### ① 천마장학금

- 2013년 2학기 석사과정 구찬휴 2,433,000원
  - 2013년 2학기 석사과정 노준수 2,433,000원, 교재비 1,200,000원
  - 2013년 2학기 석사과정 김리나 2,433,000원, 교재비 1,200,000원
  - 2013년 2학기 석사과정 권미영 2,433,000원
  - 2014년 1학기 석사과정 정호운 2,708,000원
  - 2014년 1학기 석사과정 이종엽 2,708,000원
  - 2014년 2학기 석사과정 정호운 1,912,000원
  - 2014년 2학기 석사과정 이종엽 1,912,000원
  - 2015년 1학기 석사과정 정호운 1,912,000원
  - 2015년 1학기 석사과정 장규은 2,708,000원
  - 2015년 2학기 석사과정 정호운 1,912,000원
- 총액: 27,904,000원(교재비 포함)

##### ② 강의조교

- 2013년 2학기 박사과정 이승아, 1,877,000원
  - 2013년 2학기 박사과정 박지원, 1,877,000원
  - 2013년 2학기 박사과정 최정순, 834,000원
  - 2013년 2학기 석사과정 김순환, 2,433,000원
  - 2013년 2학기 석사과정 최성철, 1,564,000원
  - 2013년 2학기 석사과정 이대훈, 695,000원
  - 2013년 2학기 석사과정 김명월, 695,000원
  - 2014년 1학기 3~5월, 박사과정 신미삼, 626,000원
  - 2014년 1학기 6~8월, 박사과정 정남희, 626,000원
  - 2014년 2학기, 석사과정 장아름, 1,912,000원
  - 2015년 1학기, 박사과정 박지영, 2,295,000원
  - 2015년 2학기, 박사과정 김태환, 1,252,000원
  - 2015년 2학기, 박사과정 정혜윤, 1,043,000원
- 총액: 17,729,000원

##### ③ 연구조교

- 2014년 1학기, 박사과정 박지영, 2,000,000원
  - 2014년 2학기, 박사과정 박지영, 2,000,000원
- 총액: 4,000,000원

##### ④ 외국인장학금

- 2013년 2학기, 박사과정 이노우에 사치꼬, 3,129,000원
- 2014년 2학기, 석사과정 손혜남, 3,476,000원
- 2014년 2학기, 석사과정 왕충성, 1,043,000원
- 2015년 1학기, 석사과정 손혜남, 3,476,000원

- 2015년 1학기, 석사과정 왕충성, 3,476,000원
  - 2015년 2학기, 석사과정 왕충성, 3,476,000원
  - 2015년 2학기, 석사과정 손혜남, 3,476,000원
  - 2015년 2학기, 박사과정 옥담성, 4,172,000원
  - 2015년 2학기, 석사과정 왕닝, 3,476,000원
  - 2015년 2학기, 석사과정 갈천, 3,476,000원
- 총액: 32,676,000원

- ⑤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금
- 2014년, 석사과정 구찬휴, 300,000원
  - 2014년, 석사과정 노준수, 300,000원
  - 2014년, 박사과정 이승아, 300,000원
  - 2014년, 석사과정 이동향, 300,000원
  - 2014년, 석사과정 김순환, 500,000원
  - 2014년, 석사과정 김명월, 300,000원
  - 2014년, 박사과정 최정순, 300,000원
  - 2014년, 박사과정 정남희, 500,000원
- 총액: 2,800,000원

- ⑥ 논문 게재 장려금
- 2014년, 박사과정 박지원, 400,000원
  - 2014년, 석사과정 최성철, 200,000원
  - 2014년, 박사과정 정남희, 200,000원
  - 2015년, 박사과정 박지영, 200,000원
- 총액: 1,000,000원

- ⑦ 학과사무실 담당조교
- 김병호, 근무기간: 201402~201502 월 급여: 1,140,000원  
201503~201505 월 급여: 1,250,000원
  - 김미나, 근무기간: 201506~현재. 월 급여: 1,180,000원
- 총액: 22,110,000원

2) 시설 투자

① 학과 사무실: 듀얼코어 컴퓨터 2대, 엘씨디 모니터 2대, 책상서랍 3개, 책상 2개, 화이트보드 1개, 회전의자 1개, 책장 1개, 화이트보드 1개

② 인문관 252호 연구실: 듀얼코어 컴퓨터 1대, 엘씨디 모니터 1대, 파일박스 1개

→ 총 403만 7천 원의 15점의 물품을 지원 받음.

3) 연구비 및 각종 지원

- ① 국제 학술대회 지원: 총 6,913,900원
- 사이버감성연구소: 290,900원
  - 인문과학연구소: 500,000원
  - 민족문화연구소: 500,600원
  - 중국언어문화학과: 1,627,000원

학교 지원금: 3,995,400원

- ② 선도연구자과제 사업: 1,200만 원 지원(201409~201508)
- ③ 대학원 운영 및 실습비(2014년~2015년): 120만 1천 원
- ④ 대학원 운영 및 지원 사업(2015년): 146만 4천 원
- ⑤ 각종 장비 관리사업(2015년): 194만 7천 원

이상 우리 사업단은 영남대학교로부터 총 135,781,900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나. 대학의 해당분야 대학원 재정투자 개선 계획

<표 22> 대학원 재정투자 목표

(단위: 천원)

구분	연도별 목표(천원)				
	4차년도( '16.3~ ' 17.2)	5차년도( '17.3~ ' 18.2)	6차년도( '18.3~ ' 19.2)	7차년도( '19.3~ ' 20.2)	8차년도( '20.3~ ' 20.8)
대학원 재정투자 목표	58,800	61,740	64,827	68,070	35,737

### 6.3 특성화 대학원 육성을 위한 대학차원의 제도개선 및 계획

#### 1. 대학위원회 개편

1) BK21 플러스 사업의 효과적 지원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대학원 위원회를 개편하여 대학원 운영위, 기존대학원 위원회, 특수대학원 운영위 개편

#### 2) 구성

- 현재의 대학원운영위원회, 대학원위원회와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단일 대학원 정책 결정기구로 함  
- 대학원 구성 각 학과와 각 특수대학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대학원 정책의 심의기구 역할로 대학원중심 학사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학원 정책 개발 및 실행

- 구성: 교학담당부총장과 대학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문과대학장, 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상경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을 포함하여 1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대학원부원장은 실무위원으로 참여

#### 3) 기능 및 효과

- 대학원의 정책 기획, 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
- 대학원의 교육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학원 정책의 신속 도입·시행
- 학생중심 교육·장학제도 수립 및 시행

#### 2. 대학원 체제의 선진화 추진

#### 1)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2개의 트랙으로 운영

- 일반대학원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창조적인 인력양성 중심으로 운영
- 특수대학원은 해당 분야 실무인력 양성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일반대학원의 연구중심체계를 강화함

#### 2) 새 융복합과정의 신설 문호 확대

-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폐지 기준 강화로 새 융복합과정의 신설·진입을 확대함
- 사회적 수요 충족 방식의 융복합과정 신설로 연구역량 극대화

#### 3. 연구인력 증대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제도 개편

#### 1) 학, 석사 연계과정생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2) 연구시기 등의 연구 환경 여건 특수성을 고려한 학점 이월제 및 학점 제도 개선
- 3) 우리대학교 학사 졸업생 유인을 위한 밀착 입시설명회 개최

#### 4. 연구지원제도 개선 계획

#### 1) 기본 방향

- ① 연구력 우수 교원에게 선택과 집중의 교비지원
- ②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 ③ 창의적 석·박사 인력 배출 유도
- ④ 대학교 연구경쟁력 강화
- ⑤ 국가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사업에 기여
- ⑥ BK21 플러스 사업단 연구기자재를 추가 지원

## 2) 교비지원 현황 및 개선계획

① BK21 플러스 사업단장 및 참여교원과 연구력 우수교원에게 우선적으로 교비를 지원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남대학교의 주요 연구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예정임

### ② 지원제도 실시현황

- (신임교원정착연구비) 과제시행일을 신규임용일(매년 3/1, 9/1)에 맞추어 임용과 동시에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수월성 제고

- 신임교수 연구기반 조기정착을 위한 [신임교수 연구과제] 신설

- 최대 3년간, 년 500만 원~1,000만 원 지원

- 신규임용 3년 미만 교원 소급적용 : 2013년, 2014년 임용교원 지원

- 2015학년도 신규 임용교원부터 적용

- (2016학년도 교원 연구년제 지원) 5년(의과대학 3년) 이상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

- 연구비 : 국제특급실적물(15,000천 원), 국제실적물(10,000천 원), 국내실적물(8,000천 원)

- 연구지원금 : 연구비 + 왕복항공료(해외연구년 교원)

- 학과별 허가가능인원 : 연구년 해당 학년도 단위로 학부(과)별 전임교원의 10%

- 선정인원 : 60명 이내

-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기자재 지원사업) 실험연구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연간 총 10억 원의 예산 추가편성 등 첨단분야연구 기반조성과 연구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확보

- 전임교원 1인당 지원 금액 : 4,000만 원 이내

- 1차년도 (20130901~20140831) : 지원 대상 인원(25명 이내), 10억 원 지원

- 2차년도 (20140301~20150228) : 지원 대상 인원(25명 이내), 10억 원 지원

- 3차년도 (20150301~20160228) : 지원 대상 인원(10명 이내), 4억 원 지원

- 4차년도 (20160301~20170228) : 지원 대상 인원(25명 이내), 10억 원 지원

- 총 합계 : 지원 대상 인원(85명 이내), 34억 원 지원

- (인문사회계열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지원과제) 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최근 교수업적평가 연구업적점수 70점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

- 해당 연구 분야의 IF가 상위 20%이내 논문 1편 : 15,000천 원 지원

- 결과물이 해당 연구 분야의 IF가 상위 10%이내 논문 1편 : 5,000천 원 추가 지원

- (연구조교 지원제도) 연구조교 연구비 지원금 및 배정교원 분담금

- SCI 논문 기준(영향력 지수 상위 80%) / 자연계열 : 연구 조교 지원금 2,400천 원

- Scopus / 자연계열 : 연구 조교 지원금 2,400천 원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기준 / 인문, 사회, 예능계열 : 연구 조교 지원금 2,000천 원

- 연구조교 신청 기간 및 배정인원 : 매년 7월 경, 200명 이내

- (교비지원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제도) 전임교원과 박사후과정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전임교원의 연구경쟁력 제고와 연구업적 향상에 기여

- 신규배정인원 : 매학기 11명 이내(총 22명 이내)

- 교비지원 박사후연구원 활용실적물 제출기준(상위 30% 이내)

- 자연,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 1년(국제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총 1편) / 주저자 기준

- 자연,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 2년(국제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총 2편) / 주저자 기준

- 자연,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 3년(국제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총 3편) / 주저자 기준
- 연간 연구수당 지급액 : 21,600,000원(월 1,800,000원)
- 교비지원금 : 18,000,000원(월 1,500,000원)
- 연수지도교수 분담금 : 3,600,000(월 300,000원)
  
- (국제학술회 참가경비) 전공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파악 및 우수 연구자와의 Human Network 구축을 위한
- 1급지 :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 / 1,800천 원 지원
- 2급지 : 인도,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 1,300천 원 지원
- 3급지 : 중국, 몽고, 동남아시아 등 / 800천 원 지원
- 4급지 : 일본, 대만 / 600천 원 지원
  
- (국제저명학술지 투고논문 관련 지원) 전임교원이 국제저명학술지에 외국어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를 촉진시켜 대학의 연구력 향상에 기여
- 지원내용 : 편수에 관계없이 1편당 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번역료의 50% 지원
- 지원대상 : SCI-E, SCI, SSCI, A&HCI, Scopus 등재학술지 투고논문에 한함
  
- (전문학술 출판저서 사후지원 연구비 지원제도) 인문사회 및 예체능분야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사후지원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의 질 향상
- 전문학술저서(단행본) 및 동 번역서(한국어역, 외국어역 단행본)로서 초판에 한함
- ISBN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전문학술저서(단행본) : 외국어 출판 / 500만 원 지원
- 전문학술저서(단행본) : 국내에서 국문으로 출판 / 300만 원~400만 원 지원
- 번역서 : 전문학술저서의 국역 또는 외국어 역 / 300만 원 지원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연구 신설) 인문, 사회 및 예체능계열 : SCI급 등재학술지 해당 연구 분야의 IF가 상위 20% 이내 논문 게재(1,500만 원/과제, 총 5개 과제 지원)

→ 상기 각종 교비 연구지원제도는 연구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 이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지역의 혁신 및 발전, 고급인력양성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우수연구자를 집중 육성하는 연구지원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5. 선정 사업단 지원 및 육성 계획의 우수성

### 1) 선정 사업단 지원 및 육성계획

① 영남대학교는 지역혁신 및 창조경제를 선도할 YU BK21플러스 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선정사업단을 집중 지원하고자 함

② 국내의 선도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비연구비 지원 등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 YU BK21플러스협의회 운영을 통한 성과창출형 사업단 운영,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가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단의 명품화를 추구하여 지역(산업체 등)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에서 사랑받는 사업단(학과)으로 도약하고자 함

### 2) 사업단 지원 및 육성 체계

#### ① 사업단 지원 체계 구축

- 선정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산하에 사업단 설립
-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선정 사업단장, 선정 사업팀장 등으로 구성된 YU BK21플러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단의 성공적인 운영 및 성과창출, 지역혁신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

- 산학협력단, 기획처, 교무처, 시설관리처, 일반대학원 등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YU BK21플러스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 대학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BK21플러스 사업의 선도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 대학원생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지원 : Graduate Research Room 확충
- 대학원생 복지 증진 프로그램 추진
  - 기숙사 우선 제공 지원
  - 문화행사(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공연 시) 무료 초청
  - 자체 평가에 따른 우수 대학원생 해외 우수기관 탐방 프로그램 제공 등

#### ② 사업단 육성 지원 체계

- 대학원생의 연구여건 등의 개선을 위하여 대학원생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개선을 지원함
  - 학교차원에서 지원하는 교비공모 과제, 기자재 지원, 연구조교 배정 등 선정사업단의 집중 지원체계 구축
    - 각종 교비공모 과제 지원
    - 기자재 지원비 당초 예산대비 5억 원 추가 투입
    - 대학원생 논문 교정, 번역 지원 및 투고비 지원
    - 사업단 참여교원에 연구조교 추가 또는 우선 배정 검토 지원 등
  - 선정사업단에 대한 업적평가 접수 반영
- 사업책임자, 연구일반업적, 봉사업적, 연구업적최소인정기준

#### ③ 성과창출 선도모델 지원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 기 구축된 산학연관 체계의 지원을 통하여 산업의 Needs를 반영한 교육 및 연구체계 구축
-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사업화센터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연구 성과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기획단계부터 산업이 원하는 연구체계 구축
- 논문의 질 제고, 상용화가 가능한 강한 특허 창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고리 창출
- 영남대학교 가족기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형 인력양성 및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연구 실적 창출
- 연구 실적의 상용화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원생을 기술마케터로 활용하는 기술이전 프로그램실시(성공 시 성공보상금 지급)
- 연구 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발명자 상담 서비스, Lab 컨설팅의 정례적 실시 및 대학원생 교육 프로그램 제공

#### ④ 사업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원

-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를 통한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지원
-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기획팀에 BK21플러스 사업 지원 전담직원 배치를 통한 사업단 통합 지원
- 사업단 전담직원 채용 및 교육 지원을 통한 사업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 안정화 단계까지 산학협력단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기구, 사업단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한 사업단 운영 및 성과창출의 효율성 제고

### 3) 사업 확산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 ① 예비사업단 운영 계획

- 최초 선정사업단의 운영 노하우, 성과 등을 바탕으로 2016년 추가 진입 가능한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예정
- 창조경제를 주도할 석박사급 최고급 창의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전체 차원에서 BK21플러스 사업의 체계적인 준비체계 구축
- BK21플러스 협의회, YU BK21플러스 실무운영위원회를 바탕으로 예비사업단이 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자문 및 지도 실시

- 지속적인 지역의 요구사항 수립, 산학협력엑스포 개최를 통한 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산업이 요구하는 교육 및 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추가 사업단 육성 전략 수립 및 운영
-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창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분위기 제고 및 독창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선정사업단과 예비사업단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BK21플러스 사업의 체계적인 준비추진

②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계획

- 영남대학교는 지역혁신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기 구축된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YU BK21플러스 사업단의 모든 연구 및 대학원생 육성 관련 교육 등에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 성과가 지역 및 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 관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산시 등과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 방안 마련,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
-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구현을 위해 산학협력단(사업단 포함)에서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에서 원하는 인력양성을 포함하여 예비창업, 창업보육, 강소기업, 스타기업, World Class 300으로 이어지는 성장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구축
- 지역의 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YU 가족기업 등과 협력하여 산업이 원하는 연구방향 설정, 산업이 원하는 고급인력 양성 지원, 대학원생 기반 산학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하여 산학의 상생발전 체계 구축
- 산과 학의 연계를 지원하는 대구특구, RTTC, 특허법인, 기술중개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기획단계부터 상용화까지의 전 단계에 있어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철저한 성과창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협의회를 구성,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예정
- 대경연구원-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활성화 연계 사업 추진(산학연 지역 연계형 창조산업생태계 조성)
- 대학 보유 장비의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기업 지원
- 지역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대학원생 연관 프로젝트 추진
- 산학협력 성과 확산을 위한 해외 우수기관 벤치마킹 프로그램 실시 등



## 6.4 학사 단위 관리제도 및 학위 수여제도의 선진화 계획

### 1.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 전환을 위한 학부 교육과정 개편

#### 1) 대학원 중심 학부교육과정 운영

- 대학원 학과 학부의 교과목을 100, 200, 300 및 400단위로 분류&#10625 편성
- 학부생의 400단위의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대학원 수료학점의 1/3 이내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
- 대학원생의 400단위 학부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대학원 수료 학점의 1/3 이내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
- ▶ 학부-대학원 학점 교차이수 실시

2) 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지침]을 개정하여 장기간 미 개설 교과목을 폐지하고 해당 과목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공유 과목 및 전공 심화 세미나를 실시, 협동/융합과정을 운영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과목 정비

#### 3) 지도교수의 강의 부담 경감 및 교과목 이수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대학원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지침 제정

- ① 협동/융합과정의 강의 부담 경감
- ② 대학원 교과목 개설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지침 제정
- ③ 이수내역확인으로 교과목 이수에 대한 확인, 지도 제고 및 대학원 학사 지도 수월성 제고

4) 대학원 진학 후 이수 학점 감소로 본연의 목적인 연구 활동에 투입할 시간이 증대되어 연구력 향상 효과를 거둠

5) 대학원의 개설 교과목 수 감소로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의 부담 경감으로 연구지도 시간 증대 및 연구력 향상에 기여

### 2. 학석사 연계과정의 확대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 선발기준 학점을 현행 3.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학부생이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함

### 3. 산업체와 연계 교육의 활성화

- 1) 대학원 및 산업체 전문 인력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 2) 학·연·산 연계교육 강화로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교육과정의Globalization 기회 확대

### 4. 학습 지원체계의 개선

#### 1)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Blended Learning and Mobile Learning) 확대

- ① 대부분의 강의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수업의 밀도와 효율성 및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함
- ② 수강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병행 확대

#### 2) 맞춤형 특성화 교육 확대

- ① 학생들의 강의수준 개선요구, 수업에 대한 피드백 및 참여에 대한 요구 충족 미흡
- ② 전공별 맞춤형으로 특성화된 교수법을 활용해 학생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촬영 및 컨설팅 확대
- ③ 맞춤형 그룹코칭, 학습 멘토링, 학습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학습프로그램 다면화 확대

### 5. 전체 대학원 교육내실화 추진

- 1) 전학과를 대상으로 외국인 수강교과목 외국어 강의 실시
- 2) 내국인 재학생의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학기 영어특강 실시
- 3) 외국인 재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강의 및 연구지도의 내실화
- 4) 외국인 수강 교과목은 영어로 강의를 실시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생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 내국인 학생은 국제화 능력 향상(방학 중 / 주간 / 야간반 운영)

#### 6. 연구설계/실험설계/데이터분석/논문작성 등을 위한 대학차원의 지원 확대

- 1) 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대학원, 정보전산원 정보화지원팀, 시스템운영팀
- 2) 프로그램 개설  
한글, MS오피스, ChemDraw Ultra, Adobe Dreamweaver, SPSS, SAS, Minitab, MatLab, Clementine, AutoCAD 등 SAS 국제공인 자격증 준비반 운영, 워크숍 개최
- 3) 논문 작성 프로그램 도입
  - ① Endnote, ReWorks, zotero, MENDELEY, Bookends, Papers, Sente 등
  - ② 서지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해 논문작성시 난점 보완 및 논문표절 사전방지
- 4) 논문작성 교정비 지원
  - ① 한글 또는 영문 논문에 대한 교정비 일부 지원
  - ② 250단어 1페이지 기준 15,000원~20,000원 소요(외부업체 기준)

#### 7. 외국인 대학원생 선발 시스템 구축

- 1) 객관적 자격시험 개발 및 도입
  - ①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 ② 외국어 우수자 장학금 지급
- 2)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
  - ① 일반대학원 행정실
  - ② 입학 담당자 1명 배치
  - ③ 해외 홍보 및 선발요원 1명 추가 배치
  - ④ 시행시기: 2016학년도 1학기부터

#### 8. 대학원생들의 교육, 연구 몰입을 위한 행정지원제도

- 1) 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확대
  - ① 국내 : 80명 1,500만 원
  - ② 국외 : 120명 3,500만 원
- 2) 국내외 논문발표 경비지원 확대
  - ① 국내 : 170명 3,000만 원
  - ② 국외 : 170명 12,000만 원
- 3) 작품발표회 및 연주회 지원 확대 : 10명 1,000만 원

#### 9. 연구 발표 논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 1) 석·박사 대학원생 및 지도교수 연구 결과를 SCI급 등재학술지에 투고 시, 투고준비 단계부터 영문 번역, 원어민 교정을 지원하며 추후 논문 출판 시 영향력지수(IF) 및 피인용 횟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발표논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할 예정

2) 전공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파악 및 우수 연구자와의 Human Network 구축을위하여 국제규모의 학술회의 참가 및 발표를 독려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임

## 6.5 연구윤리 강화 실적 및 계획

### 1. 동아시아문화학과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모든 대학원생들은 연구자로서 연구윤리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는 연구윤리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였다. 이 수업을 통하여 연구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경우와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한 우리 학과 학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1학기 이수자: 박지영(박사과정), 정호윤(석사과정)

2014년 2학기 이수자: 신미삼(박사과정), 손혜남(석사과정), 왕충성(석사과정), 최선아(석사과정),

2015년 1학기 이수자: 정남희(박사과정), 김태환(박사과정), 강병순(석사과정), 장아름(석사과정), 서보현(석사과정)

2015년 2학기 이수 예정: 육담성(박사과정), 왕닝(석사과정), 갈천(석사과정)

### 2. 연구윤리 내규

[동아시아문화학과 연구 윤리 규정]([참고 26] [동아시아문화학과 홈페이지 연구윤리 규정/내규] 참고)

#### 제1조 연구의 정직성에 관한 규정

1) 본 학과의 대학원생은 연구의 기본 설계,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 등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 본 학과는 연구 수행 및 연구물의 출판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중복 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학술적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 제2조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본 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1) 표절 행위: 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함.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자기표절 행위

2)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연구의 기여도와 일치하지 않은 순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및 기여가 있는 연구자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행위

4)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 제3조 심사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1) 심사위원은 대학원생의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이 통과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1) 심사 중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2) 이미 게재된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 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과장이 선임한다.
-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제소자에 관한 규정

- 1) 본 학과생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과에 보고해야 한다.
- 2) 본 학과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4)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연구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연구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규정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대학원생의 1년간 논문투고 금지 및 장학금 혜택 제외.
- 2)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3) 대학원 홈페이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제8조 윤리규정 시행 지침

- 1) 본 대학원생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 2) 본 윤리규정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 3. 대학원 논문 표절검사 시스템 도입

1) 활용 목적: 대학원생 학위논문에 대하여 표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의식강화, 논문의 표절 사전 예방기능 강화, 학생 및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문화 함양을 목적으로 함

2) 대상 논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전체, BK21플러스 사업 관련 논문 전체

3) 운영효율화를 위한 교육 실시: [표절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용교육 적극 실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eContents 학술DB 항목에서 학술DB교육 동영상에 들어가 표절 검사 시스템인 Turnitin 교육 동영상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다.([참고 27] [영남대학교 도서관 학술 DB 화면] 참고)

4) 표절 검사 시스템의 예: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www.kci.go.kr](http://www.kci.go.kr), 논문표절예방 Turnitin, <http://www.turnitin.com/ko/home>([참고 28] 영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표절방지 프로그램 Turnitin 화면 참고)  
표절 검사의 한 예로 박사과정 박지영의 투고 논문을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였음. 검증결과 유사도 1%를 나타내었음.([참고 29], [참고 30], [참고 31] Turnitin 프로그램 실행 화면 및 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화면 참고)

### Ⅲ 사업비 집행 계획

#### 1 사업비 집행 계획(4~8차년도)

(단위 : 천원)

항목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계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	540,000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	-	-	-	-
산학협력 전담 인력 인건비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	135,000
국제화 경비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	202,500
사업단 운영비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	108,000
교육과정개발 비	14,000	14,000	14,000	14,000	7,000	63,000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2,200	2,200	2,200	2,200	1,100	9,900
간접비	4,800	4,800	4,800	4,800	2,400	21,600
합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	1,080,000

## 2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4~8차년도)

### 2.1 4차년도

####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비고
석사과정생	10	600	12	72,000	
박사과정생	4	1,000	12	48,000	
합계	14	X	X	120,000	

####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신진연구인력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				
합계			X	X	

####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1	2,500	12	30,000

####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14명*1,000,000원=14,000,000원	14,000
장기연수	.	0
해외석학초빙	▶ 2명*1,000,000원=2,000,000원	2,0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15,000,000원=15,000,000원 ▶ 국제학술대회 참가: 14명 *1,000,000원=14,000,000원	29,000
합계		45,000

#### 5)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	0
성과급	▶7명*2,000,000원	14,000
국내여비	▶국내 출장: 5회*200,000원	1,000
학술활동지원비	▶석사: 7명*100,000=700,000원 ▶박사: 3명*100,000=300,000원	1,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0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및 기타: 500,000원 ▶홍보비(플래카드 등): 800,000원 ▶홈페이지 관리비: 800,000원 ▶인쇄비: 900,000	3,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회의비 20회*100,000=2,000,000원 ▶행사개최비 10회 *300,000=3,000,000원	5,000
기타	.	0
합계		24,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교육과정 개발비 -7과목*2,000,000원=14,000,000원	14,000
합계	14,00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자문료 및 강사료, 행사비	2,200

8) 간접비

(단위 : 천원)

간접비	4,800
-----	-------



2.2 5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비고
석사과정생	10	600	12	72,000	
박사과정생	4	1,000	12	48,000	
합계	14	X	X	120,0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신진연구인력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				
합계			X	X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1	2,500	12	30,00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14명*1,000,000원=14,000,000원	14,000
장기연수	.	0
해외석학초빙	▶ 2명*1,000,000원=2,000,000원	2,0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15,000,000원=15,000,000원 ▶ 국제학술대회 참가: 14명 *1,000,000원=14,000,000원	29,000
합계		45,000

5)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	------	----

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	0
성과급	▶ 7명*2,000,000원	14,000
국내여비	▶ 국내 출장: 5회*200,000원	1,000
학술활동지원비	▶ 석사: 7명*100,000=700,000원 ▶ 박사: 3명*100,000=300,000원	1,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및 기타: 500,000원 ▶ 홍보비(플래카드 등): 800,000원 ▶ 홈페이지 관리비: 800,000원 ▶ 인쇄비: 900,000	3,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20회*100,000=2,000,000원 ▶ 행사개최비 10회 *300,000=3,000,000원	5,000
기타	.	0
합계		24,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교육과정 개발비 -7과목*2,000,000원=14,000,000원	14,000
합계	14,00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자문료 및 강사료, 행사비	2,200

8) 간접비

(단위 : 천원)

간접비	4,800
-----	-------

2.3 6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비고
석사과정생	10	600	12	72,000	
박사과정생	4	1,000	12	48,000	
합계	14	X	X	120,0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신진연구인력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				
합계			X	X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1	2,500	12	30,00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14명*1,000,000원=14,000,000원	14,000
장기연수	.	0
해외석학초빙	▶ 2명*1,000,000원=2,000,000원	2,0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15,000,000원=15,000,000원 ▶ 국제학술대회 참가: 14명 *1,000,000원=14,000,000원	29,000
합계		45,000

5)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	------	----

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	0
성과급	▶7명*2,000,000원	14,000
국내여비	▶국내 출장: 5회*200,000원	1,000
학술활동지원비	▶석사: 7명*100,000=700,000원 ▶박사: 3명*100,000=300,000원	1,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0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및 기타: 500,000원 ▶홍보비(플래카드 등): 800,000원 ▶홈페이지 관리비: 800,000원 ▶인쇄비: 900,000	3,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회의비 20회*100,000=2,000,000원 ▶행사개최비 10회 *300,000=3,000,000원	5,000
기타	.	0
합계		24,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교육과정 개발비 -7과목*2,000,000원=14,000,000원	14,000
합계	14,00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자문료 및 강사료, 행사비	2,200

8) 간접비

(단위 : 천원)

간접비	4,800
-----	-------

2.4 7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비고
석사과정생	10	600	12	72,000	
박사과정생	4	1,000	12	48,000	
합계	14	X	X	120,0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신진연구인력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				
합계			X	X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1	2,500	12	30,00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14명*1,000,000원=14,000,000원	14,000
장기연수	.	0
해외석학초빙	▶ 2명*1,000,000원=2,000,000원	2,0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15,000,000원=15,000,000원 ▶ 국제학술대회 참가: 14명 *1,000,000원=14,000,000원	29,000
합계		45,000

5)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	------	----

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	0
성과급	▶ 7명*2,000,000원	14,000
국내여비	▶ 국내 출장: 5회*200,000원	1,000
학술활동지원비	▶ 석사: 7명*100,000=700,000원 ▶ 박사: 3명*100,000=300,000원	1,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및 기타: 500,000원 ▶ 홍보비(플래카드 등): 800,000원 ▶ 홈페이지 관리비: 800,000원 ▶ 인쇄비: 900,000	3,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20회*100,000=2,000,000원 ▶ 행사개최비 10회 *300,000=3,000,000원	5,000
기타	.	0
합계		24,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교육과정 개발비 -7과목*2,000,000원=14,000,000원	14,000
합계	14,00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자문료 및 강사료, 행사비	2,200

8) 간접비

(단위 : 천원)

간접비	4,800
-----	-------

2.5 8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비고
석사과정생	10	600	6	36,000	
박사과정생	4	1,000	6	24,000	
합계	14	X	X	60,0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신진연구인력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				
합계			X	X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1	2,500	6	15,00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14명*500,000원=7,000,000원	7,000
장기연수	.	0
해외석학초빙	▶ 2명*750,000원=1,500,000원	1,5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참가: 14명*1,000,000원=14,000,000원	14,000
합계		22,500

5)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	0

성과급	▶7명*1,000,000원	7,000
국내여비	▶국내 출장: 5회*100,000원	500
학술활동지원비	▶석사: 2명*100,000=200,000원 ▶박사: 3명*100,000=300,000원	5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0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및 기타: 250,000원 ▶홍보비(플래카드 등): 400,000원 ▶홈페이지 관리비: 400,000원 ▶인쇄비: 450,000	1,5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회의비 10회*100,000=1,000,000원 ▶행사개최비 5회*300,000=1,500,000원	2,500
기타	.	0
합계		12,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교육과정 개발비 -7과목*1,000,000원=7,000,000원	7,000
합계	7,00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자문료 및 강사료, 행사비	1,100

8) 간접비

(단위 : 천원)

간접비	2,400
-----	-------



# I 사업단 현황

[첨부 1] 2015년도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현황

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직급	성별	연구자 등록 번호	교육/분교/ 기금	전임/겸임	외국인/내국 인	사업 참여 여부	비고
		한글	영문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과	김양선	KIM, YANGSUN	정교수	여	10046866	-	겸임	내국인	참여	연구년 ( '15.3.2~'16 .2.29)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과	노상래	Roh, Sangrae	정교수	남	10031468	-	겸임	내국인	참여	연구년 ( '15.3.2~'16 .2.29)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과	박한우	Park, Han Woo	정교수	남	10044114	-	겸임	내국인	미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과	손승희	Son, SeungHoi	정교수	남	10049062	-	겸임	내국인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과	우재호	Woo, Jae Ho	정교수	남	10023270	-	겸임	내국인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과	이수환	Lee, Soo Hwan	정교수	남	10024590	-	겸임	내국인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과	정병석	Jung, Byung Seok	정교수	남	10125761	-	겸임	내국인	참여	-
총계	전체 교수 수(교육, 분교, 기금 제외)	전체			7명	교육/분교/기금 교수 수	전체			0명	
		참여	전임		0명		참여	전임		0명	
			겸임		6명			겸임		0명	
			계		6명			계		0명	

총계	전체 교수 수(교육, 분교, 기금 포함)	전체		7명	X
		참여	전임	0명	
			겸임	6명	
			계	6명	
참여비율(%)					85.71%

[첨부 2] 2015년도 대학원 학과(부) 소속 참여교수 지도학생 현황

기준일	소속 대학원 학과(부)	성명		학번	성별	생년월일 (YYYYMMDD)	지도 교수 성명	학위과정		사업 참여 여부	비고
		한글	영문					과정	재학 학기 수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갈천	GE, QIAN	21546177	여	19920602	손승희	석사	1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강병순	KANG, BYUNG- SOON	21440336	여	19690421	노상래	석사	4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서보현	SEO, BO-HYEO N	21540368	여	19920930	정병석	석사	2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손혜남	SUN, HUI-NAN	21446147	남	19870601	이수환	석사	3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왕닝	WANG, NING	21546178	여	19890804	이수환	석사	1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왕충성	WANG, ZHONG- CHENG	21446148	남	19870324	김양선	석사	3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정혜윤	JEONG, HYE-Y OON	21440338	여	19880612	우재호	석사	4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정호윤	JUNG, HO-YUN	21440335	남	19870210	손승희	석사	4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최선아	CHOI, SUN-A	21440339	여	19750107	김양선	석사	4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김태환	KIM, TAEH-WA N	21550227	남	19831109	김양선	박사	2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육담성	LU, TAN-SHEN G	21556132	남	19880811	정병석	박사	1	참여	-
접수마감일	동아시아문 화학부	정남희	JUNG, NAM-HE E	21450235	남	19811219	노상래	박사	4	참여	-
전체 대학원생 수(명)		석사	9명	참여 대학원생 수(명)		석사	9명	참여비율(%)		석사	100%

전체 대학원생 수(명)	박사	3명	참여 대학원생 수(명)	박사	3명	참여비율(%)	박사	100%
	석박사통합	0명		석박사통합	0명		석박사통합	0%
	계	12명		계	12명		전체	100%

## II 부문별

<사업단 목표 및 역량 영역>

[첨부 3] 대학원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연도	기준학기	학과(부) 대학원생 수	총 등록금(천원)	총 장학금 (천원)		
				교내	교외	계
2013년	2학기	0명	0	0	0	0
	3학기	명	0	0	0	0
2014년	1학기	9명	33,372	23,683	52,800	76,483
	2학기	10명	36,848	27,270	69,000	96,270
	3학기	명	0	0	0	0
2015년	1학기	13명	47,972	32,323	56,140	88,463
	2학기	명	0	0	0	0
총 등록금		2013년	0	총 교내 장학금	2013년	0
		2014년	70,220		2014년	50,953
		2015년	47,972		2015년	32,323
총 교외 장학금		2013년	0	전체 대학원생 수	2013년	0명
		2014년	121,800		2014년	19명

총 교외 장학금	2015년	56,140	전체 대학원생 수	2015년	13명
----------	-------	--------	-----------	-------	-----

[첨부 4] 최근 2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 확보 실적

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명		학번	성별	외국인/내국인	생년월일 (YYYYMMDD)	지도 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4년	4월1일	1	강병순	KANG, BYUNG-S OON	21440336	여	내국인	19690421	노상래	석사
2014년	4월1일	2	이종협	LEE, JONG-HYE OP	21440334	남	내국인	19910124	손승희	석사
2014년	4월1일	3	정혜윤	JEONG, HYE-YO ON	21440338	여	내국인	19880612	우재호	석사
2014년	4월1일	4	정호윤	JUNG, HO-YUN	21440335	남	내국인	19870210	손승희	석사
2014년	4월1일	5	최선아	CHOI, SUN-A	21440339	여	내국인	19750107	김양선	석사
2014년	4월1일	6	신미삼	SHIN, MI-SAM	21450234	여	내국인	19801105	노상래	박사
2014년	4월1일	7	정남희	JUNG, NAM-HEE	21450235	남	내국인	19811219	노상래	박사
2014년	10월1일	8	강병순	KANG, BYUNG-S OON	21440336	여	내국인	19690421	노상래	석사
2014년	10월1일	9	손혜남	SUN, HUI-NAN	21446147	남	외국인	19870601	이수환	석사
2014년	10월1일	10	왕충성	WANG, ZHONG-C HE	21446148	남	외국인	19870324	김양선	석사
2014년	10월1일	11	정혜윤	JEONG, HYE-YO ON	21440338	여	내국인	19880612	우재호	석사
2014년	10월1일	12	정호윤	JUNG, HO-YUN	21440335	남	내국인	19870210	손승희	석사
2014년	10월1일	13	최선아	CHOI, SUN-A	21440339	여	내국인	19750107	김양선	석사
2014년	10월1일	14	신미삼	SHIN, MI-SAM	21450234	여	내국인	19801105	노상래	박사
2014년	10월1일	15	정남희	JUNG, NAM-HEE	21450235	남	내국인	19811219	노상래	박사

2015년	4월1일	16	강병순	KANG, BYUNG-S OON	21440336	여	내국인	19690421	노상래	석사
2015년	4월1일	17	서보현	SEO, BO-HYEON	21540368	여	내국인	19920930	정병석	석사
2015년	4월1일	18	손혜남	SUN, HUI-NAN	21446147	남	외국인	19870601	이수환	석사
2015년	4월1일	19	왕충성	WANG, ZHONG-C HE	21446148	남	외국인	19870324	김양선	석사
2015년	4월1일	20	장규은	JANG, GYU-EUN	21540369	여	내국인	19910119	우재호	석사
2015년	4월1일	21	정혜윤	JEONG, HYE-YO ON	21440338	여	내국인	19880612	우재호	석사
2015년	4월1일	22	정호윤	JUNG, HO-YUN	21440335	남	내국인	19870210	손승희	석사
2015년	4월1일	23	최선아	CHOI, SUN-A	21440339	여	내국인	19750107	김양선	석사
2015년	4월1일	24	김태환	KIM, TAEH-WAN	21550227	남	내국인	19831109	김양선	박사
2015년	4월1일	25	정남희	JUNG, NAM-HEE	21450235	남	내국인	19811219	노상래	박사
지도학생 수( 명)	석사		2013년		0명	석박사통합		2013년		0명
			2014년		11명			2014년		0명
			2015년		8명			2015년		0명
			계		19명			전체		0명
	박사		2013년		0명	총계		2013년		0명
			2014년		4명			2014년		7.5명
			2015년		2명			2015년		5명
			계		6명			전체		12.5명



[첨부 5] 최근 2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 배출 실적

연도	기준월	연번	소속 학과(부)명	성명		학번	성별	생년월일 (YYYYMMDD)	취득학위	입학년월 (YYYYMM)	취업정보(창업정보)				
				한글	영문						구분	취업(창업)일자 (YYYYMMDD)	회사명(사업자등록명)	전화번호	취업(창업)구분
졸업생				2014년		석사	0명	2015년		석사	0명	전체기간		석사	0명
						박사	0명			박사	0명			박사	0명
						계	0명			계	0명			계	0명
취업				2014년 8월 졸업자	석사	X	국내 진학자 소계	0명	2015년 2월 졸업자	석사	X	국내 진학자 소계	0명		
						0명	국외 진학자 소계	0명			0명	국외 진학자 소계	0명		
					X	입대자 소계	0명	X		입대자 소계	0명				
						취업자 소계	0명			취업자 소계	0명				
				박사	0명	입대자 소계	0명	박사	0명	입대자 소계	0명				
					X	취업자 소계	0명		X	취업자 소계	0명				
창업건수				2014년 8월 졸업자	석사	0명	창업자 소계	0명	2015년 2월 졸업자	석사	0명	창업자 소계	0명		
					박사	0명	창업자 소계	0명		박사	0명	창업자 소계	0명		

<창의적 교육 및 산학협력 영역>

[첨부 7] 최근 2년간 참여교수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인사 및 예술 분야만 해당)

연도	연번	논문제목	개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						가중치(P)	환산편수	
			게재학술지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저 자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 (A)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 (B)			
2013 년	1	역유태극의 해석을 통해 본 여헌 장현 광의 역학 사상	한국학논집	1738- 8902	52	-	119	20130 9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2013 년	2	글로벌새마을운동 현지화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민족문화논 총	1229- 8697	55	-	283	20131 2	1명	0명	1명	노상 래	1003 1468	1명	-	-	0명	1명	1	1
2013 년	3	문화대혁명의 이단 자들-광동극좌파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225- 1615	220	-	187	20131 2	1명	0명	1명	손승 희	1004 9062	1명	-	-	0명	1명	1	1
2013 년	4	신좌파의 문화대혁 명 인식	인문연구	1598- 2211	69	-	69	20131 2	1명	0명	1명	손승 희	1004 9062	1명	-	-	0명	1명	1	1
2013 년	5	제임스 레게와 리 하리트 빌헬름의 주 역 번역에 관하여	동아인문학	1598- 6888	26	-	263	20131 2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2013 년	6	한 경계인의 민족 적 고아의식-今村英	한민족어문 학	1229- 0742	65	-	633	20131 2	1명	0명	1명	노상 래	1003 1468	1명	-	-	0명	1명	1	1

2013 년	6	治의 동행자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 학	1229- 0742	65	-	633	20131 2	1명	0명	1명	노상 래	1003 1468	1명	-	-	0명	1명	1	1
2013 년	7	荀子の '天生人成' '과 尊群體의 정신	중국학보	1226- 850x	68	-	307	20131 2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8	樂府詩 「梅花落」 에 관한 小考	한중언어문 화연구(韓中 言語文化研究 )	1738- 0502	34	-	165	20140 2	1명	0명	1명	우재 호	1002 3270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9	번안소설의 텍스트 변화 과정 연구	민족문화논 총	1229- 8697	56	-	297	20140 4	2명	0명	2명	노상 래	1003 1468	1명	-	-	0명	1명	1	0.5
2014 년	10	헤테로토피아, 제3 의 눈으로 읽는 만 주-현경준의 [유명] 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1598 -2211	70	-	1	2014 04	1명	0명	1명	노상 래	1003 1468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1	象數에 대한 朱子 와 李退溪의 觀點( 상수에 대한 주자와 이퇴계의 관점)	민족문화논 총	1229 -8697	56	-	359	2014 04	1명	1명	2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0.5
2014 년	12	周易의 儒家 經典 化	철학논총	1226 -9379	76(2 )	-	145	2014 04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3	문장체에서 しかも 의 의미용법	일본어학연 구	1229 -7275	40	-	3	2014 06	1명	0명	1명	김양 선	1004 6866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4	日韓企業内におけ る敬語使用の比較* - 話題人物に對する 敬語使用を中心に -	일본문화연 구	1229 -4918	51	-	5	2014 07	2명	0명	2명	김양 선	1004 6866	1명	-	-	0명	1명	1	0.5
2014 년	15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과 만주에서의 행적	한민족어문 학	1229 -0742	67	-	399	2014 08	2명	0명	2명	노상 래	1003 1468	1명	-	-	0명	1명	1	0.5
2014 년	16	다치바나 히라키( 橘樸: 1881-1945)와	동아인문학	1598 -6888	28	-	339	2014 08	1명	0명	1명	손승 희	1004 9062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6	滿洲國 建國 구상- 헤테로토피아 (Hetertopia)로서의 만주를 꿈꾸며-	동아인문학	1598 -6888	28	-	339	2014 08	1명	0명	1명	손승 회	1004 9062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7	朝鮮時代 昌原都護 府 圈域 越境地 檢 討	민족문화논 총	1229 -8697	57	-	77	2014 08	2명	0명	2명	이수 환	1002 4590	1명	-	-	0명	1명	1	0.5
2014 년	18	八卦取象說과 周易 성격의 전환	동양철학연 구	1229 -5965	79	-	31	2014 08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9	1939~1945년 경북 지역의 노동력 강제 동원	민족문화논 총	1229 -8697	58	-	35	2014 12	1명	1명	2명	이수 환	1002 4590	1명	-	-	0명	1명	1	0.5
2014 년	20	기억의 재생, 갈리 는 시선	민족문화논 총	1229 -8697	58	-	3	2014 12	1명	0명	1명	노상 래	1003 1468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1	일제강점기 경북 유림(儒林)의 만주 망명일기(亡命日記) 에 보이는 현실 인 식과 대응 : 백하일 기(白下日記)와 서 사록(西徙錄)을 중 심으로	민족문화논 총	1229 -8697	58	-	87	2014 12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2	한국의 동아시아론 과 정체성의 문제	동아인문학	1598 -6888	29	-	131	2014 12	2명	0명	2명	노상 래	1003 1468	1명	-	-	0명	1명	1	0.5
2014 년	23	帛書 역전 요 편을 통해 본 공자의 주 역관	중국학보	1226 -850x	70집	-	369	2014 12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4	儒家의 죽음관 : 生死의 連續과 不朽 의 죽음	민족문화논 총	1229 -8697	58	-	339	2014 12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5	朝鮮易學史에서 圖 象學的 象數易學의	유교사상연 구	1226 -7082	58	-	305	2014 12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5	受容과 批判	유교사상연 구	1226 -7082	58	-	305	2014 12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26	대구권 성리학과 의병활동	철학논총	1226 -9379	79(1 )	-	457	2015 01	1명	1명	2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0.5
2015 년	27	조선전기 선비들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 사회	퇴계학과 유 교문화	2233 -7032	56	-	45	2015 02	1명	0명	1명	이수 환	1002 4590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28	文房四友를 읊은 唐詩에 관하여	한중언어문 화연구(韓中 言語文化研究 )	1738 -0502	37	-	149	2015 02	1명	0명	1명	우재 호	1002 3270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29	星州 迎鳳書院 연 구	역사교육논 집	1225 -0775	54	-	189	2015 02	1명	0명	1명	이수 환	1002 4590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30	문장체 'ただ' 와 'ただし'-한국어 대 응을 활용한 의미용 법 비교-	동아인문학	1598 -6888	31	-	193	2015 06	1명	0명	1명	김양 선	1004 6866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31	文化大革命과 武漢 極左派	중국학보	1226 -850x	73	-	417	2015 08	1명	0명	1명	손승 희	1004 9062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32	黃庭堅의 書藝詩 研究	중국어문학	1225 -083x	69집	-	59	2015 08	1명	0명	1명	우재 호	1002 3270	1명	-	-	0명	1명	1	1
논문 총 환산편수					2013년			7	2014년			14.5	2015년			6.5	총계		28	

[첨부 8] 최근 2년간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인사 및 예술 분야만 해당)

연도	구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참여교수						가중치 (P)	환산 편수 (P/T)*A	검토 필	
				게재 학술 지명	학술 지 구분	ISSN	권	호	쪽	연월 (YYY Y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수 (A)	성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수 (B)				
2014 년	기타 국제 학술 지	1	從天生到人成	孔子研究 (Confucius Studies)	국외 일반	1002 -262 7	141( 1)	-	38	2014 02	1명	0명	1명	정병 석	1012 5761	1명	-	-	0명	1명	1	1	V
논문 총 환산편수				국제저명학술지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X			
				기타국제학술지			2013년		-	2014년			1	2015년		-	총계		1				

[첨부 9] 최근 2년간 참여교수 학술저서 실적 (인사 및 예술 분야만 해당)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T)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참여교수			국어/외국어 가중치(P)	환산편수 (A*P/T)
				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YMM)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A)		
2013년	국어저서	1	조선시대생활사4 조선의 일상, 법정에서 서다	역사비평사	978-89-7696-544-8	-	-	-	201311	12명	이수환	10024590	1	2	0.1666
2014년	국어저서	2	동아시아의 사형	영남대학교 출판부	978-89-7581-481-5	-	-	-	201402	1명	손승회	10049062	1	2	2
2014년	국어저서	3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978-89-93958-73-7	-	-	-	201403	12명	이수환	10024590	1	2	0.1666
2014년	국어저서	4	한국의 서원유산 1	한국서원연합회	978-89-93958-75-1	-	-	-	201403	17명	이수환	10024590	1	2	0.1176
2014년	국어저서	5	점에서 철학으로 : 점서역학의 해체와 주역의 철학적 해석의 길	동과서	978-89-6525-108-8	-	-	-	201406	1명	정병석	10125761	1	2	2
2014년	국어저서	6	慶尙北道 1314~1896	국립경주박물관, 상주박물관	979-11-952917-0-0	-	-	-	201407	6명	이수환	10024590	1	2	0.3333
2014년	국어저서	7	서원향사 홍암서원·대로스	국립무형유산원	978-89-299-0437-1	-	-	-	201410	5명	이수환	10024590	1	2	0.4
2014년	국어저서	8	헤테로토피아와 만주	경제, 인문사회	979-11-5567-071	-	-	-	201412	3명	손승회	10049062	1	2	0.6666

2014년	국어저서	8	헤테로토피아와 만주	연구회	-2	-	-	-	201412	3명	손승희	10049062	1	2	0.6666
2015년	국어저서	9	조선국민문학집	영남대학교출판부	978-89-7581-500-3	-	-	-	201501	2명	노상래, 김양선	10031468, 10046866	2	2	2
2015년	국어저서	10	중국의 시와 그림, 그리고 정치	영남대학교출판부	978-89-7581-513-3	-	-	-	201508	2명	우재호	10023270	1	2	1
2015년	외국어저서	11	Understanding Korean Seowon -Principles and Elements	한국의 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978-89-93958-93-5	-	-	-	201501	23명	이수환	10024590	1	3	0.1304
총 환산 편수	국어저서	2013년		0.1666	2014년		5.6841	2015년		3	총계		8.8507		X
	외국어저서	2013년		-	2014년		-	2015년		0.1304	총계		0.1304		



[첨부 10] 최근 2년간 참여교수 창작물 출품(전시회/공모전/영화제) 실적

구분	항목	연번	전시회/공모전/영화제명	개최국가	개최연월 (YYYYMM)	주관기관	작품명	총 출품 자 수(T)	출품자 중 사업단 소속 참여 교수			가중치 (P)	환산 편 수 (A*P/T)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A)		
창작실적 환산편수			국제전시회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X
			국내전시회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국제공모전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국내공모전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국제영화제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국내영화제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첨부 12] 최근 2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 국내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인사 및 예술 분야만 해당)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참여교수 지도학생				가중 치(P)	환산 편수	
			게재학술지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YYM 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저 자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 자수
												성명	수(A)	성명	수(B)			
2014 년	1	‘만주’ 를 배경으로 한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과 만주에서의 행 적	한민족어문학	1229- 0742	67	-	399	20140 8	2명	0명	2명	신미 삼	1명	-	0명	1명	1	0.5
2014 년	2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정체성의 문제	동아인문학	1598- 6888	29	-	131	20141 2	2명	0명	2명	정남 희	1명	-	0명	1명	1	0.5
논문 총 환산편수			2013년			-	2014년			1	2015년		-	총계			1	

[첨부 13] 최근 2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인사 및 예술 분야만 해당)

연도	구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참여교수 지도학생					가중치(P)	환산편수	검토편
				게재 학술지명	학술지 구분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자수 (m)	기타저자수 (n)	총저자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저자수			
														성명	수 (A)	성명	수 (B)				
논문 총 환산편수	국제저명학술지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총계						X		
	기타국제학술지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총계								

[첨부 14] 최근 2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 학술저서 실적 (인사 및 예술 분야만 해당)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T)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참여교수 지도학생		가중치 (P)	환산편수 (A*P/T)
				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YMM)		성명	수(A)		
2015년	외국어저서	1	東亞與世界	社會科學 文獻出版社	978-7-50 97-7112- 9	2	1	1	201303	20명	정호윤, 신미삼, 장아름, 정남희, 박지영	5	3	0.75
총 환산 편수	국어저서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X	X		
	외국어저서	2013년	-	2014년	-	2015년	0.75	총계		0.75	X	X		

[첨부 15] 최근 2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 창작물 출품(전시회/공모전/영화제) 실적

구분	항목	연번	전시회/공모전/영화제명	개최국가	개최연월 (YYYYMM)	주관기관	작품명	총 출품자 수(T)	출품자 중 사업단 참여교수 지도학생		가중치(P)	환산편수 (A*P/T)
									성명	수(A)		
창작실적 환산편수				국제전시회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국내전시회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국제공모전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국내공모전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국제영화제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국내영화제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첨부 16] 기타 대학원생

학위과정	연번	관련 첨부 해당 연번	성명		학번	성별	소속 학과(부) 명	지도교수 성 명	재학정보	
			한글	영문					입학일자 (YYYYMM)	졸업일자 (YYYYMM)
석사과정생 수			0명	박사과정생 수	0명	석박사통합과 정생 수	0명	전체 대학원생	0명	

[첨부 17] 최근 2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실적

구 분			연번	학술대회명	개최국가	개최일 (YYYYMMDD)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총 저자 수(T)	저자 중 참여교수 지도학생		가중치 (P)	환산 편 수 (A*P/T)
										성명	수(A)		
구두발표	2014년	국제	1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140826	BK21+ 글로벌동아시아문화콘텐츠	11世紀における東女眞海賊の動向	1명	이종협	1명	2	2
구두발표	2014년	국제	2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140826	BK21+ 글로벌동아시아문화콘텐츠	경산, 동아시아를 만나다	1명	강병순	1명	2	2
구두발표	2014년	국제	3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140826	BK21+ 글로벌동아시아문화콘텐츠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삶의 형태’	1명	정남희	1명	2	2
구두발표	2014년	국제	4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140826	BK21+ 글로벌동아시아문화콘텐츠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事件—志賀直哉震災見舞いを中心に—	1명	최선아	1명	2	2
구두발표	2014년	국제	5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140826	BK21+ 글로벌동아시아문화콘텐츠	滿洲を背景にした李石薫の二重言語の小説と滿洲での行跡	1명	신미삼	1명	2	2
구두발표	2014년	국제	6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140826	BK21+ 글로벌동아시아문화콘텐츠	中日戦争期 汪精衛의 和平運動에 대한 식민지 朝鮮의 認識	1명	정호윤	1명	2	2
구두발표	2014년	국제	7	2014년 4개국 차세대연구자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140826	BK21+ 글로벌동아시아	韓國華僑的定居和移民	1명	정혜윤	1명	2	2

구두발표	2014년	국제	7	대회	대한민국	20140826	시아문화 콘텐츠	韓國華僑的定居和 移民	1명	정혜윤	1명	2	2
구두발표	2014년	국제	8	제15회 동아인문학 회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41023	동아인문 학회	한·중·일 동아시아 이론과 한국 동아시아 이론의 과제	2명	정남희	1명	2	1
구두발표	2014년	국제	9	DISC(Daegu Kyungboo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국제학 술대회	대한민국	20141211	아시아트 리플헬릭 스학회, 영남대학 교 사이 버감성연 연구소, KISTI, 영남대학 교 Bk+21 동아시아 문화콘텐 츠사업단	A study on the exchange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East Asia.	3명	강병순	1명	2	0.6666
구두발 표	2014년	국제	10	DISC(Daegu Kyungboo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국제학 술대회	대한민국	20141211	아시아트 리플헬릭 스학회, 영남대학 교 사이 버감성연 연구소, KISTI, 영남대학 교 Bk+21 동아시아 문화콘텐 츠사업단	Social network analysis of South Korea national basketball team: Spain basketball World Cup in 2014	3명	손혜남, 왕충성	2명	2	1.3333



구두발표	2015년	국제	11	中日韓意研究生論壇2015 全球化時代 東亞知識的遷移	중국	20150313	중국북경 외국어대학	ネットワーク分析による日中韓の國際交流に關する考察	1명	강병순	1명	2	2
구두발표	2015년	국제	12	中日韓意研究生論壇2015 全球化時代 東亞知識的遷移	중국	20150313	중국북경 외국어대학	이효식의 문학과 만주(국)-경쟁하고 규합하는 헤테로토피아	1명	정남희	1명	2	2
구두발표	2015년	국제	13	中日韓意研究生論壇2015 全球化時代 東亞知識的遷移	중국	20150313	중국북경 외국어대학	韓國の高校日本語教科書にみられる日本「文化」とその變遷-第7次、2007、2009改正教育課程を中心に-	1명	최선아	1명	2	2
구두발표	2015년	국제	14	中日韓意研究生論壇2015 全球化時代 東亞知識的遷移	중국	20150313	중국북경 외국어대학	解放期、李石薰の文學の研究	1명	신미삼	1명	2	2
구두발표	2015년	국제	15	中日韓意研究生論壇2015 全球化時代 東亞知識的遷移	중국	20150314	중국북경 외국어대학	대동아공영권 속 만주국과 왕정위 남경정부-왕정위, 주불해의 만주국 방문, 1942-1943	1명	정호윤	1명	2	2
구두발표	2015년	국제	16	中日韓意研究生論壇2015 全球化時代 東亞知識的遷移	중국	20150314	중국북경 외국어대학	매체를 활용한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듣기 교수, 학습 연구	1명	김태환	1명	2	2
구두발표	2015년	국제	17	中日韓意研究生論壇2015 全球化時代 東亞知識的遷移	중국	20150314	중국북경 외국어대학	東亞西亞文化之大數據時代前的覺醒	1명	왕충성	1명	2	2
구두발표	2015년	국제	18	中日韓意研究生論壇2015 全球化時代 東亞知識的遷移	중국	20150314	중국북경 외국어대학	中韓文化比較	1명	손혜남	1명	2	2

2013년	국제	총 건수	0건	2014년	국제	총 건수	10건
		총 환산 편수	0			총 환산 편수	16.9999
	국내	총 건수	0건		국내	총 건수	0건
		총 환산 편수	0			총 환산 편수	0
	계	총 건수	0건		계	총 건수	10건
		총 환산 편수	0			총 환산 편수	16.9999
2015년	국제	총 건수	8건	전체기간	국제	총 건수	18건
		총 환산 편수	16			총 환산 편수	32.9999
	국내	총 건수	0건		국내	총 건수	0건
		총 환산 편수	0			총 환산 편수	0
	계	총 건수	8건		계	총 건수	18건
		총 환산 편수	16			총 환산 편수	32.9999

[첨부 18]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주실적

산정기간	연번	주관부처	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성명	참여교수성명	연구자등록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형태	총연구비(천원)	사업참여교수지분(%)	사업참여교수지분액(천원)	연구비입금일(YYYYMMDD)	사업참여교수지분액중입금액(천원)
								시작일	종료일						
'13.9.1~'14.8.31	1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사업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인재양성사업단(BK21플러스-1차년도)	손승희	손승희	10049062	20130901	20140228	단독	132,000	100%	132,000	20131227	113,680
'13.9.1~'14.8.31	2	울진군	연구용역	울진정신(열)자료집 발간 및 DB화 연구용역	정병석	정병석	10125761	20131023	20140828	단독	51,272	100%	51,272	20140123	34,181
'13.9.1~'14.8.31	3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사업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인재양성사업단(BK21플러스-1차년도)	손승희	손승희	10049062	20130901	20140228	단독	132,000	100%	132,000	20140224	15,680
'13.9.1~'14.8.31	4	(재)한국연구재단(NRF)	BK21플러스사업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인재양성사업단(BK21플러스)	손승희	손승희	10049062	20140301	20150228	단독	264,000	100%	264,000	20140408	189,135
'13.9.1~'14.8.31	5	(재)한국연구재단(NRF)	인문사회분야개인연구	文化大革命時期 極左派 연구	손승희	손승희	10049062	20140501	20150430	단독	26,000	100%	26,000	20140508	20,000

'13.9.1~'14.8.31	6	(재)한국연구재단(NRF)	인문사회분야성과확산군	역전(易傳)과 성인(聖人)	정병석	정병석	10125761	20140501	20150430	단독	10,000	100%	10,000	20140514	10,000
'13.9.1~'14.8.31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용역	헤테로토피아와 만주	손승희	손승희	10049062	20140630	20141210	단독	18,181	100%	18,181	20140722	8,636
'13.9.1~'14.8.31	8	(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	영남 자료권역센터 구축	이수환	이수환	10024590	20140701	20150630	단독	112,120	100%	112,120	20140822	100,000
'13.9.1~'14.8.31	9	(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	영남 자료권역센터 구축	이수환	이수환	10024590	20140701	20150630	단독	112,120	100%	112,120	20140822	0
'14.9.1~'15.8.31	10	(재)한국연구재단(NRF)	BK21플러스사업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인재양성사업단(BK21플러스)	손승희	손승희	10049062	20140301	20150228	단독	264,000	100%	264,000	20140919	69,584
'14.9.1~'15.8.31	11	울진군	연구용역	울진정신(얼) 자료집 발간 및 DB화 연구용역	정병석	정병석	10125761	20131023	20140828	단독	51,272	100%	51,272	20141028	14,649
'14.9.1~'15.8.31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용역	헤테로토피아와 만주	손승희	손승희	10049062	20140630	20141210	단독	18,181	100%	18,181	20150129	8,636
'14.9.1~'15.8.31	13	(재)한국연구재단(NRF)	BK21플러스사업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인재양성사업단(BK21플러	손승희	손승희	10049062	20150301	20160228	단독	264,000	100%	264,000	20150326	189,057

'14.9.1~'15.8.31	13	(재)한국연구재단(NRF)	BK21플러스사업	스)	손승희	손승희	10049062	20150301	20160228	단독	264,000	100%	264,000	20150326	189,057	
'14.9.1~'15.8.31	14	경산시청	연구용역	2015년 선비아카데미 교양과정	이수환	이수환	10024590	20150301	20150831	단독	10,600	100%	10,600	20150330	4,219	
'14.9.1~'15.8.31	15	(사)경산문화원	연구용역	경산의 금석문조사 학술 용역	이수환	이수환	10024590	20150401	20151210	단독	14,000	100%	14,000	20150407	6,667	
'14.9.1~'15.8.31	16	경산시청	연구용역	2015년 선비아카데미 교양과정	이수환	이수환	10024590	20150301	20150831	단독	10,600	100%	10,600	20150430	3,048	
'14.9.1~'15.8.31	17	(재)한국연구재단(NRF)	인문사회분야성과확산군	역전(易傳)과 성인(聖人)	정병석	정병석	10125761	20150501	20160430	단독	10,000	100%	10,000	20150514	10,000	
'14.9.1~'15.8.31	18	(재)한국연구재단(NRF)	인문사회분야성과확산군	文化大革命과 極左派	손승희	손승희	10049062	20150501	20160430	단독	10,000	100%	10,000	20150526	10,000	
'14.9.1~'15.8.31	19	경산시청	연구용역	2015년 선비아카데미 교양과정	이수환	이수환	10024590	20150301	20150831	단독	10,600	100%	10,600	20150529	2,199	
'14.9.1~'15.8.31	20	경산시청	연구용역	2015년 선비아카데미 교양과정	이수환	이수환	10024590	20150301	20150831	단독	10,600	100%	10,600	20150625	630	
총 수주 건수		'13.9.1~'14.8.31					9건	정부 연구비 수주 총입금액			'13.9.1~'14.8.31					491,312
		'14.9.1~'15.8.31					11건				'14.9.1~'15.8.31					318,689

총 수주 건수	계	20건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계	810,00 1
---------	---	-----	--------------------	---	-------------

[첨부 19]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실적

산정기간	연번	산업체명	산업체구분	지역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성명	참여교수성명	연구자등록번호	연구기간(YYYYMMDD)		연구형태	총연구비(천원)	사업참여교수지분(%)	사업참여교수지분액(천원)	연구비입금일(YYYYMMDD)	사업참여교수지분액중입금액(천원)
									시작일	종료일						
총 수주 건수			'13.9.1~'14.8.31			0건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3.9.1~'14.8.31		-		
			'14.9.1~'15.8.31			0건						'14.9.1~'15.8.31		-		
			계			0건						계		-		

[첨부 20]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산정기간	연번	해외기관명	국가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천원)	사업 참여교수 지분 (%)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연구비 입금일 (YYYYMMDD)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 중 입금액 (천원)	환산 입금액 (천원)	해외 재원 (단위)
								시작일	종료일								
총 수주 건수	'13.9.1~'14.8.31				0건	해외기관 연구비 총 입금액	'13.9.1~'14.8.31		-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13.9.1~'14.8.31		-				
	'14.9.1~'15.8.31				0건		'14.9.1~'15.8.31		-		'14.9.1~'15.8.31		-				
	계				0건		계		-		계		-				



[첨부 21]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특허 등록실적

연도	항목	연번	등록 국가	등록일자 (YYYYMMDD)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의장등록 여부	등록인 구분	발명인 중 참여교수 성명	특허의 총 발명인 수(T)	발명인 중 참여교수 수 (M)	가중치 (P)	환산건수 (P/T)*M				
구분						총 특허	의장등록	구분				총 특허	의장등록				
특허 총 건수	국내	2013년				0건	0건	특허 총 환산 건수			2013년	0건	0건				
		2014년				0건	0건				2014년	0건	0건				
		2015년				0건	0건				2015년	0건	0건				
		계				0건	0건				계	0건	0건				
	국제	2013년				0건	0건				특허 총 환산 건수				2013년	0건	0건
		2014년				0건	0건								2014년	0건	0건
		2015년				0건	0건								2015년	0건	0건
		계				0건	0건								계	0건	0건

[첨부 22]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기술이전 실적

구분	연도	총 발명인 수	발명인 중 참여 교수		기술내역	산업체명	산업체구분	지역	계약 또는 기술이전 형태	기술료입금일 (YYYYMMDD)	계약기간 (YYYYMMDD)		기술료수입액(천원)	사업단 참여교수 지분율(%)	사업단 참여교수 지분액(천원)	해외재원(단위)
			성명	수(명)							시작일	종료일				
특허 관련 총 기술이전비	2013년	-	특허이의 산업 재산권 관련 총 기술이전비			2013년	-	지적 재산권 관련 총 기술이전비	2013년	-	Know-how 관련 총 기술이전비	2013년	-	2013년	-	
	2014년	-				2014년	-		2014년	-		2014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